금주의 법구–〈잡보장경〉
이익을 위해 남을 모함말며
객기를 부려 만용하지 말라.
허약하여 비겁하지 말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22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4년 음력 11월 9일) 2020년 12월 23일 수요일

1천년 역사 연등회 인류무형유산 등재

유네스코 무형유산위 12월 16일 확정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연등회 인류무형유산되기까지

2012년 4월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 지정
2017년 등재신청대상 선정
2018년 3월 등재신청서 및 관련자료 유네스코 제출
2019년 9월 등재신청서 수정사항 제출
2020년 3월 유네스코 평가기구(전문가) 심사 시작
2020년 11월 유네스코 평가기구 등재권고
2020년 12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결정

연등회 보편적 가치 인정 '쾌거'
창의성 · 문화 다양성 높게 평가
원행 스님 "보존 · 전승에 최선"
문화재청 "지원사업 적극 추진"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불교문화행사인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가 확정됐다.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이하 무형유산위원회)는 12월 16일 온라인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대표목록에 등재 신청한 '연등회(Yeondeunghoe: Lantern Lighting Festival in the Republic of Korea)'에 대해 등재를 확정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등재 확정 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화상회의로 진행됐으며, 이 현장을 연등회보존위원장 원행 스님(조계종 총무원장)과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국립고궁박물관에 마련된 부스에서 함께 시청했다.

앞서 무형유산위원회 심사기구는 지난 11월 16일 열린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연등회는 특정 무형유산의 대표목록 등재가 어떻게 무형유산 전체의 중요성에 대한 가시성과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잘 준비된 신청서"라고 평가해 사실상 등재가 확실시 됐다.

연등회의 인류무형유산 등재까지는 장장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지난 2018년 3월 유네스코 본부에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고, 그간 등재를 위해 연등회보존위원회, 문화재청 등은 긴밀히 협력해 왔다. 지난해에는 등재신청 양식이 변경돼 수정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여정의 마침표를 찍는 순간, 함께 영상 회의를 지켜보던 원행 스님과 정재숙 청장은 연등회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등재 직후 원행 스님과 정재숙 청장은 모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연등회 보존과 발전에 함께 노력할 것을 밝혔다.

원행 스님은 "모두가 주인으로 참여하는 연등회에는 전 지구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공동체 정신이 담겨있다"며 "오늘의 결정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후대에 잘 전승되도록 연등회의 보존과 전승에 더욱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숙 청장은 "한국을 대표하는 불교행사 연등회가 3년여의 긴 여정 끝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된 것을 정말로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문화재청은 등재를 계기로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지원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인류무형유산 지원 사업을 펼쳐 연등회 전승과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 종교를 떠나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각별한 문화유산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등회는 부처님오신날인 음력 4월 8일에 부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거행되는 불교 행사로, 삼국시대로 그 연원이 올라갈 정도로 1000년 동안 계승된 불교 의례다.

연등회는 연등법회와 연등행렬, 회향(廻向) 등으로 이뤄졌으며 1975년 '부처님오신날'이 국가 공휴일로 제정되면서 오늘날에는 중요한 문화행사로 발전했다.

지난 2012년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됐으며 '연등회 보존위원회'에서 전승교육을 맡아 △전통등 제작 강습회 개최 △지역봉축위원회 연계 연등회 행사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 체계적 전승과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유구한 역사를 가진 연등회가 명맥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보존 · 전승되고 있다는 점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확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된다.

박상미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위원(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은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봉행되는 연등회는 종교문화유산으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종교의 경계를 넘어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화합과 포용의 메시지를 주는 문화유산이 됐다"면서 "연등회는 많은 사람들이 형형색색의 등을 들고 행렬하는 화려한 축제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절제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보여준다. 민간의 보존회와 정부가 협력해 유산을 보존하고 있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12월 12일 코로나19 극복과 종식을 염원하는 '2020 서울붓다페스티벌 &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에서 온라인으로 동시에 연결한 108개 사찰 불자들에게 치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날마다좋은날

코로나19 극복 온텍트로 '염원'

날마다좋은날 12월 12일 전국불자 금강경 독송 진행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이사장 주윤식)이 주최한 2020서울붓다페스티벌 &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이 12월 12일 사상 최초 온택트 금강경 독송 정진 행사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불교계 첫 전국 실시간 연결 방식으로 서울 조계사 대웅전 및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을 중심으로 전국 108곳서 진행됐다. 사전 동참 신청을 받아 교구본사는 물론 포교사단의 각 지역단, 해외이주민 법당, 인청공항 광제사, 올림픽공원 법당, 경주 동국대 정각원 등 전국 사찰과 단체, 개인이 ZOOM 접속을 통해 1년여 만에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온택트 방식으로 소수 인원만 참여했지만 행사는 장엄했다. 포교원장 지홍 스님의 개막선언과 동시에 무대뒤로 108개 분할화면이 펼쳐지며 전국 불자들의 모습이 나타났다. 이어 △주윤식 회장의 환영사 △총무원장 원행스님의 치사 △이기흥 명예회장의 격려사 △이원욱 국회 정각회장, · 윤성이 동국대 총장 등의 축하영상이 진행됐다.

주윤식 회장은 "지금 전국 방방곡곡의 수많은 불자님들과 온택트 야단법석을 진행하고 있다"며, "오늘 이 금강경 합송은 한반도를 불국토로 만들고 더 나아가 코로나 종식을 위한 우리 들의 간절한 염원이 전세계에 전달 될 것이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치사를 통해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以生其心), 즉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나눔을 통해 자리이타(自利利他)를 함께 실천하길 바란다"며 8년째 진행해온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을 격려하고 더불어 "불자들의 간절한 염원이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인도 분황사 온라인 착공식 연다

조계종, 12월 29일 '줌' 활용 중계… 2022년 대웅전 완공 계획

조계종 제36대 집행부의 백만원력결집불사 핵심사업 중 하나인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건립 불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조계종 백만원력결집불사위원회(위원장 금곡)는 12월 29일 오후 1시30분 인도 부다가야 현지와 온라인으로 분황사 건립 착공식과 기공법회를 봉행한다. 기공법회는 온라인 화상시스템인 'ZOOM'을 활용해 이원생중계될 예정이다.

현재 기공법회를 위해 조계종과 업무협약한 물라상가 법인 대표 붓다팔라 스님을 비롯한 9명이 지난 11월 27일 인도 현지로 들어가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분황사 기공법회는 올해 3월로 예정돼 있었으나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두 차례 연기됐다. 하지만, 내년 4월부터 인도의 우기가 시작돼 더 이상 공기를 늦출 수 없어 기공법회를 봉행키로 했다.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는 부처님 정각(正覺) 성지에 한국 사찰이 낙후돼 성지순례자들을 수용할 수 없어 한국 전통양식의 사찰을 건립하겠다는 원행 스님의 원력으로 시작된 사업이다. 원행 스님의 발원에 부산의 설매 · 연취 두 화주자가 선뜻 거금 50억 원을 쾌척했고, 백천문화재단에서 진료소 건립 기금을 기부함에 따라 불사는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사찰 분황사의 조성 위치는 인도 물라상가의 부다가야 보유부지로 건축면적은 총 1,302.88㎡, 연면적은 총 1,741.56㎡다. 부지에는 한국 전통 건축양식의 건물 3동이 들어선다. 대표 건물인 대웅전은 단층으로 면적 433.84㎡, 연면적 262.26㎡으로 문경 봉암사 태고선원을 모티브로 설계됐다. 한국 사찰 건축물 중 보기 드문 회랑식 법당으로 설계한 것은 태양고도가 높아 일사량이 강하고 고온다습한 인도 기후와 주변환경을 고려해 이뤄졌다.

숙소 건물은 2층으로 지어지며 고온의 복사열을 차단하기 위해 이중지붕 구조로 건립된다. 규모는 74.93㎡, 연면적 964.45㎡이며, 1인실 15개실 · 2인실 6개실로 구성된다.

부다가야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지원 공간인 보건소는 진료대기를 위한 넓은 로비와 복도를 중심으로 유동적 진료공간이 만들어지는 데 설계의 주안점을 뒀다. 규모는 연면적 514.85㎡으로 1층에는 진료소와 환자 대기를 위한 로비가, 2층에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인 2인 숙소 5개실이 들어선다.

한편, 조계종은 2022년 4월까지 분황사 대웅전 건립을 마무리하고 순차적으로 숙소와 지역 보건소 건립 불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연등회
燃燈會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환영합니다

연등회보존위원회
보존위원장 원 행 圓行

연등회,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의 기쁨을
함께하는 축하메세지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에 힘입어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기쁜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작은 이벤트를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벤트 일시 2020. 12. 17(목) ~ 2020. 12. 31(목)

참여방법
- 각종 SNS(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축하 메시지, 사진 및 해시태그 작성
(#연등회 #유네스코 #유네스코인류무형문화유산연등회 #연등회파이팅 등)
- 성함, 연락처, 배송지 주소, 게시글 주소(URL), 작성한 게시글 캡쳐사진을 첨부하여 연등회 메일(LLF@buddhism.or.kr)로 발송
-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www.llf.or.kr


포항 스님 방역봉사단


상월 결사 순례 모습



호국 홍제사 착공식


태고종중정 추대식

코로나 국난 극복 원력

아듀! 2020년, 현대불교 선정 10대 뉴스

2020년 한국불교는 '코로나19' 라는 엄청난 재난 속에서 국민들의 아픔을 보듬는 데 주력했다. 방역 지침을 지킬 뿐만 아니라 종교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냄으로써 호감도를 높이는 한해였다. 대사회적으로는 불교 문화유산의 재평가와 상월결사의 확대, 백만원력 결집불사의 진행 등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사업들이 시작됐다. 한해동안 한국불교 주요 이슈 10개를 선정 · 정리했다.

정리=신성민 · 노덕현 · 송지희 기자

1. 코로나, 불교에 화두를 던지다

'코로나19' 는 2020년 한국사회를 관통한 이슈다. 이는 불교도 마찬가지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가 한달 연기됐으며, 연등회는 취소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불교계는 '자리이타' 의 정신으로 희생을 감수하며 선제적 방역에 나섰고, 현재까지 단 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코로나19는 한국불교에도 화두를 남겼다. 비대면이 일상화되는 시대의 신행 · 포교를 비롯해 사찰 재정의 다각화, 종교로서 사회적 역할 등은 앞으로 불교가 고민할 시대적 과제다.

2. 연등회 인류무형유산 등재 확정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는 2020년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슈였다. 연등회의 인류무형유산 등재까지는 장장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지난 2018년 3월 유네스코 본부에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고, 그간 등재를 위해 연등회보존위원회, 문화재청 등은 긴밀히 협력해 왔다.

원행 스님은 "모두가 주인으로 참여하는 연등회에는 전 지구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공동체 정신이 담겨있다"며 "오늘의 결정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후대에 잘 전승되도록 연등회의 보존과 전승에 더욱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3. 상월결사 한해동안 이어지다

붓다의 길을 따라 걷는 고행의 발은 인욕의 상징이었다.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는 10월 7일 대구 동화사서 시작해 10월 27일 서울 봉은사에서 21일간의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장장 511km에 달하는 이 길 위에서 순례단은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도반이자 국난극복의 첨병이 됐다.

만행결사 자비순례에서 순례단은 매일 30km를 걷고 밤에는 노숙과 다름없는 텐트에서 잠을 자며 씻지도 못하는 고행을 자임했다. 길위에서 중생의 안락을 위해 정진했던 부처님과 그 제자들처럼 순례단은 불교중흥과 국난극복을 위해 매진했다.

회향도 잠시, 한 달이 지난 11월 28일. 만행결사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불자들의 노력은 전국 각지에서 전개되고 있다.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주지 경우)가 11월 28일 본 · 말사 걷기명상 성지순례를 개최한 것이다. 제22교구본사 대흥사가 동안거 후 걷기순례, 상월선원 결사대중이 내년 10월 경 삼보사찰 순례에 나서기로 하는 등 코로나 극복과 국민 화합에 대한 불자들의 바람이 걷기순례란 새 문화로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상월결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4. 조계종 종단 불사 본격화

2020년은 조계종이 추진하는 종단 주요 불사가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해였다. 우선 조계종 36대 집행부의 백만원력 결집불사 핵심 사업인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기공법회가 12월 29일 봉행된다. 인도 분황사에는 전통한옥 양식의 대웅전과 숙소,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소가 세워진다.

지난 6월 17일에는 행정수도 세종시의 포교 거점이 될 광제사와 한국불교문화체험관 착공식이 진행됐다. 전월산 광제사와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은 대지면적 16,000㎡(4,840평) 부지에 세워진다.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은 연면적 5,495.96㎡(1,662.5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다.

11월 24일에는 육해공군 3군본부가 위치한 계룡대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펼 호국 홍제사 불사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1만 3200여 평 대지에 2021년까지 조성될 예정인 계룡대 호국 홍제사 불사는 대웅보전이 들어서는 법당이 연면적 700여 평, 교육연수시설로 만들어지는 교육관이 연면적 250여 평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산문폐쇄 · 연등회 취소… 'B-방역' 빛났다

2020 종단 결산

부처님오신날 행사 한달 연기
종단들 코로나19 방역 안간힘
조계종 주요불사 일제히 첫삽
태고종 새종정 추대 등 안정화

2020년을 풍미한 '코로나19' 의 여파는 한국불교도 비켜가지 못했다. 지난 1월 20일 첫 국내 확진자가 나오며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이 한달여 만에 유행으로 번지자 조계종 총무원은 2월 20일 전국 사찰에 긴급대책과 지침을 공지했다. 해인총림 해인사는 산문을 폐쇄했고, 대부분의 사찰은 법회와 성지순례를 중단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도를 전국 사찰서 이어갔다.

올해 부처님오신날 즈음 다시 시작된 코로나19 2차 유행에 불교계는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를 한 달 연기한다는 초유의 결단을 내렸다. 하지만 그 뒤에도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조계종을 비롯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원 종단들은 결국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 봉행을 취소했다. 연등회 행사가 취소된 것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계엄령으로 행렬이 진행되지 못한 이후 40년 만이다.

당시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원행 스님은 "지난 3월 불교계가 코로나19 상황에 직면해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한 달 뒤로 변경한 것과 같이, 오늘의 위기가 하루 속히 종식돼 모든 국민들이 평안해지기를 발원하고자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의미를 밝히기도 했다.

불교계 각 종단들의 혼신의 노력으로 올 한해 불교는 단 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으며 'Buddhism-방역' 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줬다.

이 같은 불교계에 노력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19일 불교지도자 초청 오찬에서 "불교계는 코로나 초기부터 앞장서 방역을 실천했을 뿐 아니라 법회를 비롯한 모든 행사를 중단했고, 특히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을 뒤로 미뤘고 천년 넘게 이어온 연등회마저 전격적으로 취소했다"면서 "불교가 실천해온 자비와 상생의 정신은 'K-방역' 의 근간으로, 이는 중생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는 불교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다"고 상찬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각 종단들은 주요 불사와 사업들의 추진에도 박차를 가했다. 조계종의 경우 백만원력 결집불사 주요사업인 인도 부다가야 포교당 분황사, 계룡대 영외법당 홍제사와 세종시 포교 거점으로 활용될 광제사 · 한국불교문화체험관 불사들이 일제히 첫 삽을 떴다.

전임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으로부터 비롯된 태고종의 내홍은 편백운 스님의 멸빈이 확정되면서 비로소 마무리됐다. 이후 태고종은 새 종정으로 지허 스님을 추대하고 정체성을 살펴보는 학술대회를 여는 등 안정화의 초석을 다지고 있는 중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차별금지법 제정 주도…기후위기 대응

2020 사회복지 결산

아신 빤딧짜 스님 범계와
개신교인의 사찰 방화 등
사건 사고 충격도 이어져
비대면 복지의 문화 확산

올해 불교계는 코로나19로 대사회 활동이 다소 위축된 가운데, 차별금지법 제정운동과 기후위기 대응활동에서 두드러지는 행보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불교환경연대 등 일부 단체에 집중된 양상으로 아쉬움을 남겼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올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긴밀한 연대를 토대로, 코로나19에도 릴레이 기도법회 및 오체투지 법회를 이어가는 등 21대 국회 및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이밖에도 무연고 사망자, 제주 4 · 3사태 희생자, 5.18사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코로나19 희생자 등을 추모하는 기도법회로 사회적 약자와 함께했으며, 간호사 태움문화 희생자인 故 서지윤 간호사의 산업재해 인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김진숙 노동자 복직 촉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등 사회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활동도 전개했다.

불교환경연대를 중심으로 한 불교기후행동 발족도 눈에 띄는 사건이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대두됐지만 이웃종교에 비해 불교계 활동은 미진했던 상황에서, 불교기후행동의 발족은 범불교적 기후위기 극복활동을 이끌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충격적인 사건 사고도 이어졌다. 미얀마 담마야나 선원 아신 빤딧짜 스님의 범계행위가 本紙 단독보도로 드러나 불교계 안팎에 적지 않은 충격을 던졌고, 개신교인의 남양주 수진사 방화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특히 남양주 수진사 방화사건은 그동안 지속돼 온 개신교계의 훼불행위를 재차 사회적으로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으며, 종교로 인한 차별행위가 어떤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우리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등 주류 기독교계가 이례적으로 공식 사과입장을 밝히는 등 내부적으로 자성의 목소리를 드러내기도 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전국 불교계 복지관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상당기간 운영을 중단한 가운데, 지역사회 약자를 위한 도시락 배부와 비대면 복지서비스 확대 등 새로운 시도들이 이어져 주목됐다. 일부 복지관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유튜브, SNS 등 비대면을 통한 복지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행사나 프로그램도 비대면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변화를 꾀했다. 이밖에도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려운 이용자들이 소외감 · 우울로 인한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도록 화분이나 만다라 그리기 키트 등 집에서 혼자 즐길 수 있는 서비스도 시작돼 눈길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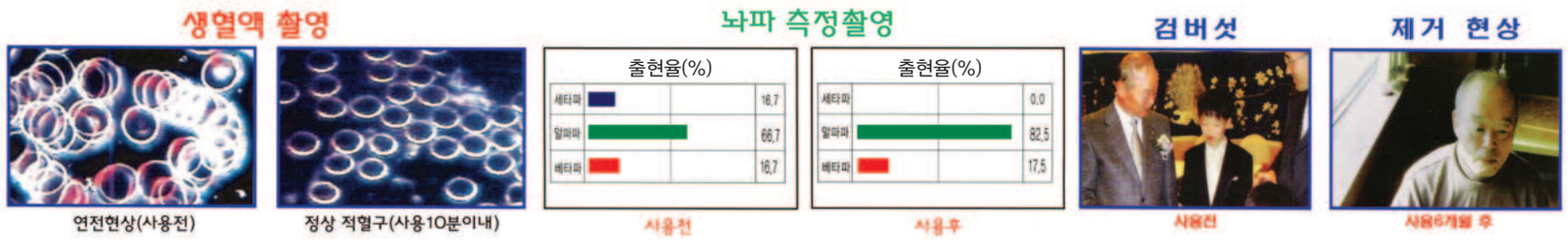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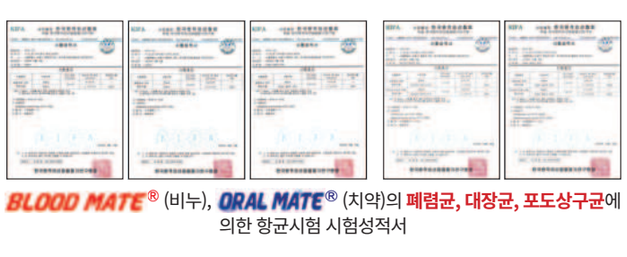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적극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효과 :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BLOOD MATE® (비누), ORAL MATE® (치약)의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에 의한 항균시험 시험성적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생기는 다리 쥐나는 것, 목, 어깨, 허리통증, 무릎관절 등은 피가 맑아져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자연치유되어 뇌파가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집니다.

항균 폐렴균 · 대장균 ·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가 폐렴균 99.9% 정균감소는 폐렴균에 의한 모든 폐렴질환을 예방할 것이며 대장균 99.9% 정균감소는 식중독, 배탈, 설사를 예방하고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는 아토피, 검버섯, 무좀, 비듬, 사타구니 가려움증, 발뒤꿈치 각질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때를 일부러 밀지 않고 비누거품으로 마사지만 해주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가 투명하고 매끄러우며 윤이 나므로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보습효과가 뛰어납니다.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냄새, 노인냄새 제거.

세상에 이런 세정제를 보셨습니까?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게르마늄 허브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BLOOD MATE® 강비누:35,000원2개 = 70,000원
BLOOD MATE® 순비누:15,000원4개 = 60,000원
ORAL MATE® 치 약:21,000원3개 = 63,000원
193,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에이스 삼강 02)353-9692 , 010-2791-3696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나눔의집 전경



차별금지법 제정촉구시위


중앙신도회장 이취임식



신흥사 영산회상도 환수식

한 자리에 모이다

5. 태고종 15년 만에 새 종정 추대

태고종 종정에 지허 스님이 추대됐다. 태고종 종정이 새로 추대된 것은 15년만이다. 더욱이 전 종정 혜초 스님이 2004년부터 15년간 3번의 임기를 만료한 2019년 4월 이후, 종정이 약 1년간 공석이었다는 점에서 지허 스님의 종정 추대는 종단 안팎의 관심을 받았다.

태고종이 그동안 각종 분규 등으로 그 위상이 약화된 상황에서, 종단의 정신적 스승인 종정을 새롭게 추대하면서 종단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이 모이기도 했다. 지허 스님의 종정 추대식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내년에 봉행될 방침이다.

6. 나눔의집 사태, 일파만파

1992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쉼터로 개원해 30년 가까이 위안부 문제 해결에 매진한 나눔의집이 운영비리 논란에 휩싸이면서 사회적 충격을 안겼다. 나눔의집에 근무하는 일부 직원들이 "후원금이 할머니를 위해 사용되지 않았다"며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광주시와 경기도청 감사 결과 악의적인 횡령은 없었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러 들지 않고 있다.

특히 내부제보를 했던 일부 직원들이 법인 · 시설과 대립각을 세워 내부갈등이 심화되면서 사태가 점차 악화되는 등 우려를 낳기도 했다.

7. 불교계,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올해 차별금지법 제정활동은 사실상 불교계가 주도했다는 평가다. 21대 국회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입법 발의되면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제정촉구 움직임이 더욱 본격화됐다.

정의당표 차별금지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민주당이 '종교'를 예외조항으로 추가한 차별금지법안 발의를 추진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차별금지법은 지난 13년간 6번 발의됐다가 폐기 · 철회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만큼, 불교계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입법화가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모였다.

8. 불교문화재 은닉, 설 자리 없다

지난 6월 25일 내려진 대법원 1부는 사립박물관장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은닉 불교문화재 39점에 대해 내려진 '몰수' 명령도 확정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불교 성보 유통이 전혀 일반적이지 않다'는 2심의 판결이 인정됐다. 문화재 몰수 판결도 불교에서는 처음 있는 사례로 은닉 성보 환수에 청신호가 켜졌다.

당시 판결에 대해 조계종 문화부는 "불교 문화재의 유통이 비상식적인 일임이 법적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불법 유통이 근절될 수 있게 됐다. 도난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또한 지난 10월 29일에는 조계종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04년 사이에 도난된 뒤 장기간 은닉돼 온 14개 사찰의 불교문화재 16건 32점을 회수하기도 했다.

9. 주요신행단체장 새얼굴로 교체

국회 정각회(회장 이원욱)가 11월 18일 오전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제21대 국회 정각회 개원 및 신임 회장 취임법회를 봉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제21대 국회 정각회는 지난 6월 29일 창립됐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개원법회가 지연됐고, 이날 봉행되게 됐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주윤식)도 10월 6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제26 · 27대 회장 이 · 취임법회를 봉행하고 27대 집행부 활동을 시작했다.

불교는 불교문화를 축으로 한 다양한 사업들을 새해 준비하고 있다. 새로운 수장을 맞이한 2020년을 바탕으로 2021년에는 활발발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10. 신흥사 영산회상도 환지본처

한국전쟁 직후 사라졌다가 미국의 박물관에서 발견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던 속초 신흥사 '영산회상도'와 '시왕도'가 원소장처인 신흥사로 66년만에 돌아왔다. 이번 사례는 조계종이 이를 소장했던 LA카운티박물관과 성보반환을 골자로 한 포괄적인 문화교류에 대한 상호협의를 도출한 데 따른 것으로, 진정한 의미의 '환지본처'라는 점에서 불교계 감동이 적지 않았다.

특히 혼란했던 한국전쟁 전후시기 해외로 반출된 성보가 종단을 중심으로 한 문화재청,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등 각계 기관의 지속적인 노력과 현 소장처의 문화재 보존에 대한 선의가 더해져 환지본처에 성공한 모범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언택트 신행문화의 새장르 열다

2020 신행포교 결산

포교사단 첫 임원 회의 후
대학생 온라인 수계법회와
유튜브 인큐베이팅 이어져
결사정신 전국적으로 전개

포교 · 신행분야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언택트 문화가 눈부시게 발전했다. 조계종 포교원 청년대학생전법단(단장 무각)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윤정은)는 10월 31일 '제2회 청년대학생 불자 합동수계법회'를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했다. 비로자나국제선원에서 열린 수계법회는 30여 대학 70여 청년대학생 불자들이 계를 받았는데 법회에는 전계사인 공생선원장 무각 스님 외 지도법사 자우 스님(비로자나국제선원 주지)과 수계자 대표 3명만 참석했다. 온라인 참여자들은 화상회의로 동참했으며 연비를 대신해 연꽃모양 타투스티커를 붙였다.

조계종 포교사단(사단장 방창덕)도 4월 14일 서울 우리함께빌딩에 위치한 포교사단 본부에서 2020년 2차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다른 임원회의와 달리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포교사단은 2010년 화상회의 시스템을 도입했다. 포교사단이 구축한 화상회의 시스템은 현재 17명이 동시접속이 가능한 상황이다.

포교사단은 그동안 내부적으로 임원회의와 사무국회의, 상벌회의 등 각종 회의를 온라인 상에서 예비로 진행한 데 이어 이날 공식적으로 첫 화상회의를 진행하게 됐다.

이처럼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자 사찰 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11월 5일 조계사 백주년기념관 내 관음전에서 주지 지현 스님, 이명구 신한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대면 기부 서비스 제공 협약을 체결했다.

유튜브를 비롯한 언택트 포교 방법의 발달로 인한 인큐베이팅도 본격적으로 진행된 한해였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 이하 포교원)은 8월 10일 불교 크리에이터 창작지원사업을 통해 불교 크리에이터 1기 중 우수 창작자를 선정해 프로젝트 팀 'GO!사리'를 결성했다. 이와 함께 포교원은 온라인 플랫폼 활용 매뉴얼과 찬불가 율동영상도 제작해 배포하기도 했다.

코로나 극복을 기원하는 순례도 진행됐다. 바로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가 그 것이다. 자비순례는 공심(公心)이 담긴 하나의 원력(願力)이었다. 상월선원 결사는 천막결사를 거쳐 만행결사까지 장장 1년 동안 이뤄졌다. 그리고 결사마다 회향은 나눔의 행보였다. 10월 7일 대구 동화사에서 입재 후 문경새재 등을 거쳐 서울 봉은사까지의 21일간의 자비순례는 불자들에게 국난극복과 불교중흥의 원력을 알린 자리였다. 그 회향 또한 사회 소외계층과 함께 진행했다. 병원 구급차 구입, 베트남 농촌학교 해우소 건립 등 자비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 문화유산 전승 · 활용 토대 마련

2020 학술 · 문화재 결산

연등회,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수마노탑 등 '국보' 승격 연이어
사경,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눈길
학계 포스트코로나 담론도 이어가

2020년 한해동안 문화재 분야에서는 굵직한 이슈들이 많았다. 경자년 한해의 대미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로 장식됐다.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는 12월 16일 온라인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대표목록에 등재 신청한 '연등회(Yeondeunghoe: Lantern Lighting Festival in the Republic of Korea)'에 대해 등재를 확정할 것을 결의했다.

연등회의 인류무형유산 등재까지는 장장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지난 2018년 3월 유네스코 본부에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고, 그간 등재를 위해 연등회보존위원회, 문화재청 등은 긴밀히 협력해 왔다. 지난해에는 등재신청 양식이 변경돼 수정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등재 직후 연등회보존위원장 원행 스님은 "모두가 주인으로 참여하는 연등회에는 전 지구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공동체 정신이 담겨있다"며 "오늘의 결정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후대에 잘 전승되도록 연등회의 보존과 전승에 더욱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불교 성보문화재들의 국보 승격도 이어졌다. 지난 6월 25일에는 보물 제410호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이 국보 제322호로, 지난 8월 27일에는 보물 제419-3호 범어사 소장 '삼국유사 권4~5'가 국보 제306-4호로 각각 승격됐다.

또한, 지난 7월 20일에는 불교 경전을 널리 전하기 위해 이를 옮겨 적는 기술의 장인인 '사경장(寫經)'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으며, 첫 보유자로 김경호 화엄사 전통사경원장이 인정됐다.

이와 함께 은닉 · 성보 성보문화재 몰수와 환수가 이뤄진 것도 의미가 크다. 대법원 1부는 6월 25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립박물관장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아들 B씨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또한 은닉 불교문화재 39점에 대해 내려진 '몰수' 명령도 확정됐다. 지난 10월 29일에는 조계종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협력해 2004년 사이에 도난된 뒤 장기간 은닉돼 온 14개 사찰의 불교문화재 16건 32점을 회수하는 성과를 냈다.

학술분야에서는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는 불교학자들의 움직임이 가시화됐다. 한국불교학회가 12월 23일 동계워크숍에서 포스트코로나를 주제로 학술담론을 열었고, 불교평론의 포스트코로나 특집, 명상심리상담학회의 코로나 블루 치유법 모색 학술대회도 눈길을 끌었다.

신성민 · 노덕현 기자

"당신 삶으로 증명하세요.
자신의 삶보다 위대한 증명은 없습니다."

스스로를 점검하기 위해 떠난 2년간의 세계 만행. 선방 수좌 원제의 조금 특별한 수행기!

제방 선원에서 20여 안거를 지낸 원제 스님. 단순, 소박, 규칙적인 삶을 좋아하는 그가 산문 밖을 나서 2년여 시간 동안 5대륙 45개국 세계 일주를 완수했다. 그동안 해온 수행을 세계 도처에서 점검하겠다는 결의와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과 교류하며 한국 불교와 선 수행을 알리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다. 고집스레 두루마기 승복을 입고, 낡은 삿갓을 쓰고, 손에는 염주를 쥔 채 세계를 누빈 원제 스님의 여행의 순간, 깨달음의 기록!



원제 스님

2006년 해인사로 출가, 도림법전 스님의 제자로 스님이 되었다. 삶의 경험들이 수천수만이어도 자기만의 안목으로 통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멋진 삶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김천 수도암에서 정진 중이다.



다만 나로 살 뿐 1, 2
원제 스님의 정면승부 세계 일주

원제 지음 | 각권 15,000원

문의 031.955.9790 수오서재

“민주당표 차별금지법, 사회화합 저해 법안”

불교계, 이상민 의원 ‘차별금지법안’에 공분 확산

‘종교 · 전도 제외’ 조항 문제점
조계종 “사회 · 종교화합 저해”
제정연대 “입법 취지 해친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불교계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법안이 종교 행위를 차별 예외조항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를 해치고 사회 · 종교 화합을 저해하는 법안”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높다.

문제가 된 조항은 ‘제4조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항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특정한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집회, 단체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된 기관에서 해당 종교의 교리, 신조, 신앙에 따른 그 종교의 본질적인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됐다. 개신교계가 차별금지법 반대 이유로 밝혀 온 ‘성적지향’ 항목은 법안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조항이 특정종교계와의 면담을 통해 추가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에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그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해 온 개신교계를 의식해, 사실상 ‘종교행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예외조항을 ‘개신교 달래기식’으로 추가한 것 아니냐는 비판여론이 높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12월 16일 대변인 삼혜 스님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하고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조계종은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안은 종교간 갈등을 부추기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법률안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별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을 삭제했을 뿐만 아니라 차별 예외조항에 ‘종교’를 추가함으로써 종교간 갈등과 증오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불교계는 그동안 개신교계에 의한 종교차별 및 훼불 행위로 고통 받아 왔다는 점에서, 종교행위에 대한 예외는 묵과할 수 없는 대목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이 불교계는 물론,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국민적 인식 및 정서와도 대치된다고 지적했다. 조계종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4월 발표한 ‘차별국민의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차별 1위는 장애차별(45.5%), 두 번째가 종교차별(37.5%)이다. 특히 온라인에서의 차별유형도 정치적 의견(51.5%) 다음으로 종교차별(31.3%)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수 국민들이 우리사회에 종교로 인한 차별행위가 많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포괄적 차별금지를 규정하는 법안에 ‘종교로 인한 차별행위’를 예외조항으로 명시한 것은 국민 정서는 물론, 입법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조계종은 “해당 법안은 종교계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음은 물론, 특정 종교와의 타협을 전제로 진행된 법률안”이라며 “법 제정 과정에서 관련 단체 및 종교계와 차별 없는 협의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원행, 이하 종단협)는 같은날 30개 회원 종단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하고 법안 발의 중단을 촉구했다.

종단협은 “지난 2007년 법무부가 처음 발의한 후 13년 만에 처리를 기대하는 ‘차별금지법’에 ‘특정종교의 신앙에 따른 행위’를 예외조항으로 포함한 것은 특정 종교와의 이해관계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처음 발의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의 기본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며, 또 다른 불평등 법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종단협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끝없는 훼불 사건과 종교 편향의 피해를 인내해 온 불교계 입장에서는, 종교 편향적 일탈 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모두가 존중받는 선진사회가 아닌 특정 종교 감싸기로 또 다른 피해를 합법화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종단협은 “민주당의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종교 간 갈등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민주당은 더 이상 특정 종교의 이익을 위한 법안수정 발의를 중단하고, 만인이 평등하고 차별 없는 법안의 근본 취지를 살려달라”고 촉구했다.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도심, 이하 종평위)도 같은 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회화합을 저해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종평위는 “해당 법안에서 ‘특정종교단체 및 소속 기관’에 대한 예외’ 조항을 명문화한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들 서로 간에 불신하고 반목을 야기할 소지를 가지고 있다”며 △국민화합을 저해하고 △종교화합을 저해하며 △시대에 역행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종평위는 “기존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초안에 없던 종교에 대한 예외조항이 추가되면서, 발의될 경우 종교 안에서는 ‘차별을 해도 된다’는 인식의 토대가 되거나 분쟁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평등법 원안대로 통과되어 국민들 삶이 더 나아 질 수 있도록, 공당의 의무를 다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조계종 측 관계자는 12월 14일 국회에서 이상민 의원을 만나 해당 조항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지만 뚜렷한 답은 듣지 못했다. 이상민 의원은 12월 17일경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일정 연기를 요청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차별 없이 세상 밝히는 ‘성탄 연등’ 성탄절을 앞두고 조계종은 12월 17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조계사 일주문 앞에 ‘성탄절 연등’을 밝혔다. 조계종은 “28일까지 차별 없이 세상을 밝히는 성탄 연등을 밝힌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조계종은 성탄절을 맞아 이웃종교인 등을 초청해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성탄절 연등 점등식을 개최해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행사를 취소하고 점등식만 진행했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종무행정 중심 ‘포교 · 교화’에 두겠다”

진각종 제31대 통리원장 도진정사 취임법회 봉행

대한불교진각종 제31대 도진 통리원장 취임법회가 12월 15일 서울 진각문화전승원 1층 무진설법전에서 봉행됐다.

이 자리에서 도진 통리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금 진각 백년을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먼저 종단의 근간을 바로 세워야한다. 그것이 승단의 근본부터 살피는 일이며, 우리의 본분사가 되어야 한다”며 “공감하는 신행, 함께하는 종단을 지향하고 승단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 또한 모든 종무행정의 포커스를 포교와 교화에 두기 위해서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교구와 심인당 포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통리원에 집중된 인적, 물적 자원을 교구로 분산 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진 통리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검토하기 위해 스승과 신교도가 함께하는 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미래 진각종의 자산이 될 산내수련원 개발을 위한 T/F팀도 구성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에 앞서 봉행위원장 능원 총무부장은 봉행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적극 동참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많은 분들을 모시지 못해 봉행위원장으로서 많이 아쉽고 안타깝다”면서 “31대 통리원장 취임법회는 우리는 참회와 서원, 수행과 정진을 체로 세우며 육바라밀 실천으로 현세정화 할 것을 서심 결정하는 발심의 자리이자 상생의 인연자리”라고 전했다. 이어 “31대 통리원장으로 취임하시는 도진 정사님과 새로운 집행부의 종책 불사가 원만히 성취되어 모든 진언행자들이 감동하면서 공감하는 신행, 함께하는 종단으로 발전하길 서원한다”고 덧붙였다.

익정 총금강회장은 일지정 수석부회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도진 통리원장님의 취임은 세대교체를 통해 침체된 종단에 새바람이 일어나기를 염원하는 전국의 종도에게 기대감을 줄 뿐 아니라, 백년대계의 기초를 세울 것이라 믿는다”며 “승속동행은 명실상부 시대적인 요청사항일 뿐만 아니라 종단 발전에 출발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총금강회는 미래의 후손들에게 정신적 자산을 남겨주기 위해 오늘부터 신발 끈을 조여매고 원장님과 함께 전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진각종 신임 통리원장 도진 정사가 취임사를 하고 있다.

이날 취임법회에는 경정 총인예하와 인의회 부의장 덕일 정사를 비롯해 종의회의장 효원 정사, 현정원장 회성 정사, 교육원장 효명 정사, 회당학원 이사장 덕운 정사, 진각복지재단 대표이사 원혜 정사를 비롯해 집행부 부 · 실장 스승과 대구교구청장 증혜 정사, 부산교구청장 진광 정사, 대전교구청장 의신 정사, 전라교구청장 법경 정사, 경주교구청장 원주 정사, 총금강회 수석부회장 일지정 보살, 위덕대 장익 총장 등이 동참했다.

한편, 이번 취임법회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참석인원은 최소화 했으며, 이후 언택트 온라인 서비스(유튜브 및 SNS)로 공개했다. 또한 종단의 새 출발의 첫 행보로서 ‘월곡2동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진행한다. 이번 지원은 총본산 지역인 월곡2동의 만 65세 이상 1인 가구 기초수급 200가구를 대상으로 이불 200채를 전달한다.

글=김주일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조계종 11기 고시위원장 수진 스님

진우 스님, 11기 위원 위촉

조계종 제11기 고시위원장에 해인정사 주지 수진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12월 1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수진 스님, 일귀 스님, 대전 스님, 승원 스님, 무애 스님, 여연 스님, 상덕 스님, 수경 스님, 운산 스님 등 총 9명을 고시위원으로 위촉했다. 고시위원 스님들의 임기는 2022년 11월 12일까지로, 2년간 종단 스님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각급 승가고시를 관장하게 된다.

신임 위원장 수진 스님은 “고시위원 스님들과 함께 승가고시의 장단점을 보완하며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2020년 각급 승가고시가 무사히 회향한 것처럼 2021년 각급 승가고시도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방역지침에 따라 의연하게 대처하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고시위원회는 이날 위촉장 수여 직후 회의를 열고 2021년 각급 승가고시 일정과 시행계획 등을 심의 ·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5급 상반기 승가고시는 2021년 3월 11일 오전 8시(장소 미정), 하반기는 9월 5일 오전 8시(장소 미정), 4급은 3월 19일 오전 9시 중앙승가대, 3급은 4월 2일 오전 8시 중앙승가대, 2급은 10월 1일 오전 10시 중앙승가대, 1급은 4월 15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된다.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코로나19 등)으로 고시 개최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연기될 수 있다.

고시위원장 수진 스님은 문성 스님을 은사로 1974년 수계하였으며, 해인사승가대학장 · 범어사율학승가대학원장을 비롯해 해인사 율주, 제8기 고시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해인정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송지희 기자

대한불교진흥원, 내년 상반기 4대사업 발표

원효학술상 · 청년불자상 등 각종 공모 사업 진행 계획

불교계를 대표하는 문화진흥단체인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 이하 불교진흥원)이 2021년 신축년 상반기에 다양한 공모사업을 진행한다.

불교진흥원은 “불교의 현대화 · 생활화 · 대중화라는 재단의 설립 취지를 새롭게 조명하고 시대 상황에 맞는 불교 진흥을 위해 2021년도 상반기 4대 공모사업을 실시한다”고 12월 16일 밝혔다.

불교진흥원이 내년 상반기에 실시하는 공모사업은 △제11회 원효학술상 △대원청년불자상 · 동아리상 △대원불교 학술 · 콘텐츠 공모 △불교기관 · 단체 지원사업이다.

인문사회과학 등의 분야에서 현대 사회 · 문화에 대한 불교적 조명과 한국 철학의 세계화를 위해 지난 2009년 제정된 ‘원효학술상’은 내년 2월 1일부터 2월 26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접수 방법은 직접 및 우편으로 이뤄진다. 시상 및 상금으로는 학자 부문 논저(1명)에 3000만원과 특별상에 1500만원, 석 · 박사 과정 학생 부문 논저에 300~800만원이 수여된다.

올해 신설된 ‘대원청년 불자상(리더/일반) · 리더상’은 청년불자 인재 양성을 위해 전국의 대학생, 대학원생과 초 · 중 · 고등학교 · 대학교 · 대학원 불교 동아리를 대상으로 불교 장학금 및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학생 · 대학원생 리더에게는 각각 300만원, 일반에게는 15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초등학생 불교 동아리는 50만원, 중 · 고등학생 불교 동아리 100만원, 대학생 · 대학원생 불교 동아리 100만원이 지원된다. 선정된 불교 동아리 지도교수(교사)에게도 50만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제2기 ‘대원청년 불자상(리더/일반) · 리더상’은 내년 2월 1일부터 2월 19일까지 접수받는다. 접수는 이메일(kbpf2606@daum.net)로 하면 된다.

내년 3회째를 맞는 ‘대원불교 학술 · 콘텐츠 공모’는 시대에 맞는 불교 진흥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 및 단체를 대상으로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접수는 내년 2월 15일부터 3월 12일까지다. 접수 방법은 이메일(kbpf2606@daum.net)이다.

선정된 연구자와 단체에는 불교 학술 부문 · 저서 부문에 500만원~1500만원, 번역서에 300만원~1200만원이, 불교 콘텐츠 부문(만화 · 동화 · 소설 · 찬불가 작사 · 작곡 · 수행 프로그램 개발)에 300만원~150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올해에 신설된 ‘불교 기관 · 단체 지원사업’은 내년 1월 4일부터 1월 29일까지 내년도 공모가 진행된다. 접수는 이메일(kbpf2606@daum.net)로 받으며, 상세 내용은 불교진흥원 홈페이지(www.kbpf.org)를 참고하면 된다. 선정된 기관과 단체에게는 사업 내용에 따라 100~500만원의 지원금이 전달된다. 신성민 기자

코로나에도 불교계 세밑 자비나눔

조계종 중앙신도회 · 해인사 등 눈길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불자들의 자비보시행이 이어지고 있다. 동지를 앞두고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이사장 주윤식)은 12월 17일 종로구 · 중구 소재 소방서와 경찰서에 동지팥죽을 전달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돈의동 · 창신동 · 남대문 쪽방촌 일대 이웃들에게 포장팥죽 2000개와 마스크, 핸드워시, 찜질팩 등 방역 · 보온 물품을 전했다.

지역에서도 따뜻한 행보가 이어졌다. 전주불교연합회(공동대표 덕산, 금선암 주지) 주최로 12월 15일 자연음식문화원(원장 유정희)과 야외 주차장에서 열린 자비의 김장김치 나눔에는 금선암(주지 덕산), 태고종전북종무원(원장 진성), 전북불교대학(학장 이창구), 전주시청 연우회(회장 김상용) 등이 참여해 1000kg의 김장김치를 만들었다. 이날 행사를 통해 마련된 김장김치는 송광 · 정심원(원장 이경주), 금선백련마을(원장 김찬우), 전주서원노인복지센터(관장 동찬) 등 불교계 복지기관과 지역 소외 어르신들에게 전달됐다.



중앙신도회 이금석, 추성호 부회장과 최상원 직할교구 신도회장이 남대문쪽방상담소를 찾아 코로나극복 지원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합천 해인사(주지 현응)도 12월 16일 가야면 코끼리행복문화센터서 연말 자비행복나눔을 펼쳐 총 2000만원을 기탁했다.

노덕현 · 조동제 전북지사장

삼광사, 21세기 문화 불교역할 고찰한다

12월 24~25일, 개산 51주년 학술대회 개최

천태종 삼대지표운동 주제
미래 포교방향 모색의 자리
"개산 의미 되새기는 시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 천태종 삼광사는 12월 24일~25일 경내 지관전에서 '삼광사 개산전법 51주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문화가 삶을 결정한다. 21세기 문화융성의 시대에 불교의 역할은 무엇일까? 불교의 역할을 고찰하고 천태종 삼광사 개산 후 51년의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이 마련된다.

부산 천태종 삼광사(주지 세운)가 12월 24~25일 경내 지관전에서 '삼광사 개산전법 51주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서는 삼광사 창건 후 도심 전법도량으로 시민들과 함께해온 삼광사의 역사를 고찰하고 새로운 미래 방향을 검토하는 시간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삼광사 창건 51년을 맞아 기획됐으며 주제는 '21세기 문화융성시대와 불교의 역할'이다. 12월 24일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삼광사 개산 50주년과 삼대지표운동'을 주제로 주지 세운 스님이 기조발제 한다.

학술대회 발표는 먼저 '부산불교의 진로와 방향에 대한 삼광사의 역할'을 권기현 위덕대 교수가 발제한다. 이어 △도웅 스님 '부산불교복지에서 삼광사의 역할과 전망' △월도 스님 '천태종 종무행정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 △조기룡 동국대 교수 '코로나시대, 어떻게 포교할 것인가-부산불교 현황을 기반으로' △보덕 스님 '관음염불의 실천행 고찰-한국 천태종 삼대지표를 중심으로' △문무왕 동명대 교수 '삼대지표로 본 가람배치의 구조와 의미-구인사와 삼광사를 중심으로'가 각각 발표 된다. 마지막 총평으로 첫날 학술대회가 정리된다.

12월 25일 발표는 오후 1시부터 시작된다. 첫 발표는 이병욱 고려대 교수의 '삼대지표와 한국 근대불교 개혁론'이 이어지며 △이철헌 동국대 교수 '수행과 기도중심으로 부산불교를 이끌다 - 재가불자 수행을 중심으로' △광도 스님 '대조사 법어에 나타난 천태사상의 새로운 해석' △이기운 동국대 교수 '삼대지표와 천태법화사상' △김경집 동국대 교수 '대조사의 한국불교 개혁론'이 각각 발표된다. 권기종 동국대 명예교수의 총평이 이어지며 삼광사 주지 세운 스님의 폐회사로 학술대회가 마무리된다.

이번 학술대회는 전법 활동을 직접 펼친 천태종 스님들이 발표해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전법 방법과 필수 조건들을 심도 깊게 나눌 예정이라 눈길을 끈다. 아울러 김명우 동아대 교수, 최연주 동의대 교수, 오지연 동국대 교수, 김영미 동국대 교수, 고영섭 동국대 교수 등 불교 학자 교수들이 논평해 전문성을 더할 예정이다.

삼광사는 "천태종과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미래 삼광사 역할과 포교방향을 논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다"며 "삼광사와 부산불교중흥 그리고 삼대지표를 주제로 개산의 의미를 되새기자"고 당부했다. 051)808-7111

영축문화대상 수상자에 김봉렬 총장 등

12월 25일 오전 10시 시상, 상금 각 1000만원

재단법인 영축문화재단이 시행하는 영축문화대상 수상자가 선정됐다.

재단법인 영축문화재단(이사장 현문)은 제8회 영축문화대상 수상자를 발표하고 시상 일정을 확정했다.

수상자는 학술문화부문에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봉사실천부문은 동국대학교 경주병원(단체), 포교원력부문에는 사단법인 동련(단체)이다.

시상은 오는 12월 25일 오전 10시에 통도사 설법전에서 개최되며 상금은 각 1천만 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영축문화재단은 신문 공고기간을 거쳐 최종 후보자 21명이 접수했으며 지난 11월부터 심의위원회의 실사와 심사를 거쳐 3명의 수상자를 최종 결정했다.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은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30여 년간 불교건축 연구와 사찰건축을 새롭게 설계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동국대 경주병원은 어려운 지역의료여건에도 전문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처님의 자비희사정신을 널리 펼쳐 수상했다.

사단법인 동련은 34년간 전국 어린이 청소년불자 포교를 위해 포교자료연구개발에 앞장서고 체계적인 여름불교학교 및 법회 관리, 어린이 지도자 연수, 소식지 발간 등 공적을 인정받았다.

영축문화재단 이사장 현문 스님은 "불교계에 뛰어난 활동을 보여주는 분이 많았다. 모두 선정하지 못했지만 활동가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한다"며 "이제 영축문화대상이 지역불교계를 대표하는 큰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더 많은 일꾼들을 발굴하여 맑고 밝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재단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축문화대상은 근대 통도사 중흥조인 구하당 천보 스님(1872~1965)과 대한불교조계종 9대 종정과 통도사 초대방장을 지낸 노천당 월하 스님(1915~2003)의 자비희생정신과 생명존중사상을 후세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제정됐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불자 자비심 확대 통해 코로나 극복을"

불교법왕청·국제불교지도자協 제 1회 평화 봉사대상 개최해

목탁스님 "행동하는 불제자 되자"
자비나눔, 이타행 장려 차원 제정
김동주의원 등 2백명 수상자 선정


김동주 대한민국 헌정회 부회장(前국회의원, 사진 왼쪽 세번째)이 봉사대상을 수상하고 있다.

코로나 19의 아픔을 치유하고 자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세계불교법왕청과 국제붓다자비평화봉사단, 국제불교지도자협회는 12월 16일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제1회 세계 붓다자비 평화 봉사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하에 수상자만 참가한 시상식에는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이사장 목탁 스님을 비롯해 미얀마연방승가회 회장 우꾸마라 사야도 등 사부대중 30여 명이 참석했다.

시상식에서는 법광 스님과 조향 스님, 보광 스님을 비롯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前 국회부의장, 김동주 대한민국 헌정회 부회장 등 모두 200명이 평화봉사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이사장이자 국제붓다자비평화봉사단 총재인 목탁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와 한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에 선정되신 수상자에게 감사하다. 돕는 일엔 먼저 앞장서고 나보다 남들을 칭찬받게 하자. 관세음보살과 보현보살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마음과 행동이 하나로 되는 인연으로 맺어진다면 우리 모두 행복해질 수 있다. 행동하는 부처님 제자가 되자"고 당부했다.

이어 목탁 스님은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열매는 거둘 수 없다, 짜증이나 싫다를 생각하면 업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고 좋든 싫든 열매를 내가 걷어야 한다"며 "가슴으로 행동하고 서로 이끌어주는 부처님을 닮아가는 참다운 중생이 되자"고 당부했다.

세계불교법왕청 우꾸마라 스님은 "지금 온 세상이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암흑의 시기"라며 "이런 때 나의 자유와 권리만을 내세우지 말고 사무량심의 정신으로 남을 먼저 배려한다면 고통도 줄고, 병마에서 벗어나는 일까지도 빠른 쾌유가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세계붓다평화봉사상 대회장인 혜정 스님은 "이타정신으로 고통받는 이웃과 마음을 같이 하는 실천이 따라야 한다. 이는 우리 국제붓다자비평화봉사단이 추구하는 슬로건"이라며 "감사의 마음으로 회향하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린다. 봉사자가 하나 되어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자"고 당부했다.

수상을 겸해 참석한 황운하 국회의원은 "만해 스님은 세계평화 열쇠로 조선민족자결을 꿈꾸었고, 달라이라마는 비폭력으로 자치를 얻는 꿈을 꾸었다. 코로나로 인해 전세계가 고통받는 가운데 살아있는 보현보살 화신을 찾는 일은 매우 가치가 있다. 불교 근본정신으로 돌아가 고통받는 이웃의 손을 잡고 평화로운 세상 만들기에 더욱 앞장서자"고 각오를 밝혔다.

이날 봉사대상을 수상한 김동주 헌정회 부회장(前 국회의원)도 "한국사회 분열에서 화합의 가치는 더욱 높아진다. 이런 움직임에 봉사하는 이들의 존재는 하나의 연결고리로 자리할 것"이라며 "부처님을 닮아가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실천된다면 이 땅이 불국정토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는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스님과 대상 수상자 등을 중심으로 소수만 식장에 입장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봉사상 수상자들은 소독문을 통한 입장을 거치도록 했다. 노덕현 기자

울산불교환경연대, 사회 응원의 쌀 전달

'제1회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자비의 쌀 나눔' 개최

울산불교환경연대가 시민 사회 활동가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며 응원의 의미를 담은 자비의 쌀을 전달했다.

불교NGO 울산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천도)는 12월 11일 울산불교환경연대 사무실에서 '제1회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자비의 쌀 전달식'을 개최했다.

쌀은 총 680kg이며 채식평화연대, 유기견 센터, 더불어숲 작은세상, 어린이책시민연대 울산지회 등 시민단체 13곳에 각 40kg 씩 전달됐다. 쌀은 여여선원, 정토사, 백련사, 내원암 등 4곳에서 후원했다. 아울러 자비 쌀로 만든 떡국 판매 수익금 일부를 유기견 센터에 성금으로 전달했다.

활동가를 위한 자비의 쌀 전달은 오직 공익 활동가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의미로 진행됐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밝은 사회를 이루기 위한 활동가들의 역할과 가치를 인정하는 행사로 의미가 깊다. 이번 행사는 처음으로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불교환경연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비의 쌀 나눔을 통해 격려를 이어 갈 예정이다.

전달식에는 울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천도 스님, 공동대표 벽선사 혜진 스님, 감사 법왕사 혜경 스님외 각 시민단체 대표 및 활동가 10여 명이 동참했다.



불교NGO 울산불교환경연대는 12월 11일 울산불교환경연대 사무실에서 '제1회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자비의 쌀 전달식'을 개최했다.

상임대표 천도 스님은 "소외되어 어둡고 외로운 곳, 정의가 필요한 곳에 희망이 되고 꽃이 되어 세상을 밝혀주신 시민활동가들의 실천과 봉사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자비의 쌀을 나누게 되었다"며 "자연과 사람의 노고가 가득 담긴 소중한 쌀을 나누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로 침체된 사회분위기에 물심양면으로 위로가 필요한 곳이 많아져서 활동가들은 할 일이 많다. 배고픈 곳엔 밥이 되어 주시고 어두운 곳엔 등불이 되어 이 사회를 향기롭게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참된 회향 참구를"…양진선사 좌탈입망

12월 12일 통도사서 다비식 엄수

'문을 열면 문을 닫을 줄 알라'

통도사 양진선사가 짧은 임종게를 남기고 12월 10일 오전 10시 좌탈입망(坐脫入亡)했다. 문을 여는 것이 태어남이라면 닫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일까? 죽음도 여여(如如)하게 맞으며 참된 회향을 참구할 것을 당부하고 양진선사가 홀연히 사바세계를 떠났다.

통도사 한주 재관당 양진 선사의 다비식이 12월 12일 통도사에서 엄수됐다.

통도사 송수정에서 노재를 봉행한 후 연화대로 스님의 법구는 이운됐으며 다비의식이 진행됐다.

통도사 스님들은 스님의 영전에 헌화, 헌향하며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양진선사는 말 그대로 한주(소임을 맡지 않고 수행하는 스님)이다. 상좌도 두지 않았고 통도사에서 40년 동안 조용히 수행 정진했다. 하지만 양진 스님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본 스님들은 바른 회향을 일러주는 삶, 그 자체였다고 회고했다.

원오사 주지 정관 스님은 "스님은 나눔으로 회향하고 그 어떤 것도 남기지 않는 소박한 삶으로 수행의 지표가 되셨다"며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양미를 들고 오셨고 수좌 스님들의 정진을 위해 보시금을 일체 회향했다"고 말했다.


통도사 양진선사가 짧은 임종게를 남기고 12월 10일 오전 10시 좌탈입망했다. 다비식은 12월 12일 통도사에서 엄수됐다.

양진 스님은 받은 한주 소임비와 보시금은 동안거와 하안거 마다 선방 수좌 스님들의 대중공양으로 회향했다. 임종 전에 마지막 남긴 당부도 "통장에 흑여 남은 것이 있으면 모두 선원 대중공양으로 사용해 줄 것"이였다.

이뿐 아니라 은사 스님이 남긴 유품 '금동아미타삼존불상'을 통도사 박물관에 기증했다. '금동아미타삼존불상'은 2012년 2월 22일 보물 1747호로 지정됐다.

스님은 12월 10일 오전 10시 좌탈입망했으며 법랍 64세, 세납 83세이다. 스님의 49재는 통도사 명부전에서 매주 수요일 봉행 될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전북 영산작법보존회, 영산재 시연

어산, 작법, 지화 등 불교무형문화재 발표


'나의 전설 우리의 전설'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문화재 시연회 중 작법무를 선보이는 장면,

전북무형문화재 18호 영산작법보존회(회장 혜정)가 불교전통무형문화재인 어산과 작법, 지화를 소개하는 영산재 공연을 진행했다. 12월 10일 '나의 전설 우리의 전설'이라는 주제로 전주 전통문화 전승관에서 열린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시연공연은 코로나19 확산사태로 인해 비대면 영상공개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영산재 시연에는 전라북도 영산작법보존회의 범패(어산) 어장인 혜정 스님(전주 동고사)과 이수자 법정 스님(익산 삼불암)이 청아하고 깊은 어산 범음 소리를 선보였다.

또 어장의 범패소리에 맞추어 아름다운 착복의 소매 자락을 휘감는 춤사위는 전주의 전설로 아름다움을 자아내었다.

특히 작법보유자인 영산 스님(익산 태봉사)은 마치 나비가 춤을 추는 듯한 착각에 빠진 듯 환상적인 작법무를 선보였다.

이밖에 작법 이수자 스님들은 각 분야별 시연을 통해 전통의 맥을 이어온 불교전통 영산재의 춤사위로 내 보였으며, 4바라 법진(익산 태봉사), 법성(익산 태봉사), 지오(익산 대인사), 보위(군산 성흥사)스님들의 수제자들이 마음껏 천수바라를 선보였다.

현진(전주 천지사), 현담(익산 정각사), 서경(전주 백련암)스님의 3작법 무에서는 산중 깊은 호수에 잉어가 물위에서 노닐 듯 살아 숨쉬는 듯 한 모습을 보였다.

50년 넘게 갈고 닦아 지화 전통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전라북도 영산작법 보존회 지화장 도홍 스님은 보상게 2점, 돈(금,은)전 2점, 공연장 좌우로 불교를 상징하는 만자, 국화꽃 1점, 하트 1점, 2m 각종 전주한지 꽃 50여 종의 꽃으로 된 장엄 꽃단 6점 등으로 장엄하여 영산재의 시연이 더욱 빛을 내며 전통의 범패, 작법, 지화가 어우러지는 시연이 되었다.

전북영산작법보존회는 범패와 작법위주의 영산재 속에 지화 장엄, 수륙재, 생전예수재, 점안의식 등 분야별로 전수를 이어갈 예정이다.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은 "불교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을 위해 기존의 범패와 어산뿐만 아니라 지화장엄, 불단장엄, 복장의식 등의 문화재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지사장

| 현불 논단 |

담담한 마음으로 마무리를



주경 스님
수덕사 부주지

코로나19에 속절없이 연말 맞아
인생 중 가장 조심 하며 산 시간

인간 활동 줄며 긍정적인 효과도
미세먼지 감소 · 환경 위기 부각
우리는 얼마나 나약한 존재였나

욕망은 문제만을 악화만 시킬 뿐
마음 자제하며 부처님처럼 살자

한 해가 또 저물어 간다. 올해는 세상을 힘들고 피곤하게 하는 코로나19로 인해 정말 위축된 시간을 견뎌왔는데 속절없이 연말이 되었다. 돌아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중에 가장 조심(操心)하며 지내온 한 해였던 것 같다. 한 해를 그렇게 자제하고 주의하며 지내왔지만 세상이 코로나19로부터 확실한 희망을 가지기에는 아직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사람들의 활동이 줄어들면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 매년 그렇게 고생스럽던 미세먼지의 고통을 잊을 수 있었고, 인도에서는 몇 십 년 만에 히말라야가 그 모습을 뚜렷하게 드러내었다. 세계적으로 전에 없던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를 느낄 수 있었다. 인간이 지구환경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인간은 자연과 환경 앞에서 보다 더 겸손하고 자제해야만 한다.

선후진국을 가리지 않고 빈부귀천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밀려오는 거대한 질병의 위기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의 평등성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주고 함께 풀어야 할 숙제를 내주었다. 질병을 통제하는 정부에 대한 신뢰와 불신의 엇갈린 시간들을 겪으며 크고 긴 안목의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욱 절감하였고, 공정하고 균등하게 제어되지 않는 차별과 불평등한 제약에 대한 불만이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더욱 심화시킴을 경험하고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19의 대유행을 겪으며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절감하게 되었다.

인간은 정말 교만한 존재였다. 무엇이든 기술과 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인간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지구의 모든 자원과 환경을 인간의 뜻대로 개발하고 파괴하며 사용해 왔다. 하지만 극히 작은 존재인 바이러스의 공격에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속수무책으로 그저 견뎌낼 뿐이다.

어쩌면 우리들은 지난 1년의 시간을 억지로 수행자처럼 살아왔을 것이다. 옛 스님 말씀에 수행하는 사람은 '중병 든 사람처럼' 생활해야 한다고 하셨다. 숨 쉬는 일에서부터 손발 움직이는 몸가짐 하나하나를 조심하고 조심하며 병든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 깊게 지내야 비로소 중병을 치유할 수 있듯이 고통의 삶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는 것이다.

기한(飢寒)에 발도심(發道心)이라고 '배고프고 추울 때 수도할 마음을 낸다' 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지루하고도 길게 이어지는 방역의 피로감으로 지쳐있고 좌절하고 있다. 사업들도 위기에 처하고 개개인의 마음들도 상처를 많이 받고 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겸허하게 자신을 반성하고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자신을 단련하고 조절하여야 한다.

이제는 자신을 자제하고 욕심과 분노를 조절하며 살아가는 삶을 받아들여야 한다. 의도치 않게 마주한 현실이지만 국경도 인종도 없는 대질병의 재앙에서 인류와 세계가 공동의 운명 속에 살아가는 동업중생(同業衆生)임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조금 더 잘 대응하고 안전한 환경이라고 자만하는 순간 위기의 짙은 그림자가 밀려오고 있다.

마음속에 분노와 욕망의 감정을 진정시키고 담담하고 편안한 마음을 찾아야 한다. 분노와 욕망은 결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오히려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끌고 갈 뿐이다.

이번 위기를 잘 넘긴다 해도 인류와 지구는 탄소배출로 인한 온난화 위기를 목전에 두고 있다. 자연과 환경의 재앙은 분명 이번 코로나19보다 심각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부처님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수행자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담담한 마음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부지런함이 최고의 덕목

부지런하다는 것은 성공을 위한 으뜸 요소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방일하지 말 것을 가르쳤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줄이고,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쏟지 말고 공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방울방울 떨어지는 물이 바위에 구멍을 뚫듯이 부지런하다면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부지런한 것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 이라고 합니다.

재능과 부지런함이 성공으로 이끄는 요인이지만, 부지런함이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재능은 좀 부족하더라도 부지런하다면 자신의 뜻을 충분히 이룰 수 있지요.

게으르고 재능도 없다면 결코 남보다 뛰어날 수 없습니다. 또한 자신의 재능만 믿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출발은 거창할 수 있어도 그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재능이 없어서 성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부지런하지 않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 예가 훨씬 많습니다.

〈파우스트〉를 쓴 괴테는 다양한 분야를 탐구했으며, 많은 저서를 남겼습니다. 사람들이 괴테를 천재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본인은 노력파라고 말했죠.



그림 · 최주현

"나는 여덟 살 때 시를 짓기 시작해 죽기 며칠 전까지 끊임없이 사색하고 글을 썼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했을 뿐이지 타고난 천재는 아닙니다. 내가 중요한 덕목으로 꼽는 것은 위대하고도 강한 의지와 자신의 의지를 실현시킬 기량과 인내심입니다."

괴테의 말을 통해 부지런히 노력하는 사람만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불후의 명작으로 꼽히는 〈파우스트〉는 괴테가 23세에 집필해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까지 마지막 장면을 수정했으니, 약 6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죽기 며칠 전까지 작품을 수정할 정도로 괴테는 평생 동안 쉬지 않고 책 읽고 글을 썼기에 불후의 명작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약간의 노력을 기울이고서도 자신의 목적한 바가 언제 이루어질 지 조바심 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뜨거운 물만 부으면 끝나는 인스턴트커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빨리 꽃피우고 싶어 하는 마음과는 달리 세상의 일이란 시간과 열정을 쏟아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제일 먼저 동네 골목길을 청소하는 사람에게 복이 온다고 했습니다.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부지런하다는 것이요, 골목길을 청소한다는 것은 베품이자 희생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복이 올 수밖에 없지요. 한 가지 일에 흔들림 없이 꾸준히 열심히 매진하다보면 언젠가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노력의 결과가 하루 아침에 드러나진 않지만, 노력한 시간과 열정이 하루하루 모여서 큰 성취를 가져다줍니다.

〈육지장사 회주〉

社 說

연등회, 인류가 보존할 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122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다. 불교계를 넘어 우리나라의 전통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연등회는 부처님오신날인 음력 4월 8일에 부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거행되는 불교 행사다. 삼국시대부터 현재까지 계승된 불교 의례이자 우리 민족의 곁에서 살아 숨 쉬어온 전통문화 그 자체다.

그런 점에서 연등회의 인류무형유산 등재는 되레 늦은 감이 있다. 1000년 세월동안 대중과 함께하는 가운데, 시대에 맞게 변화하며 현재까지 계승된 문화는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기 때문이다. 그만큼 보존가치가 높고 의미 또한 남다르다.

연등회보존위원장 원행 스님은 등재 확정 직후 "모두가 주인으로 참여하는 연등회에는 전 지구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공동체 정신이 담겨있다"며 "오늘 결정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후대에 잘 전승되도록 연등회의 보존과 전승에 더욱 정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재숙 문화재청장도 "적극적인 인류무형유산 지원 사업을 펼쳐 연등회 전승과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 종교를 떠나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각별한 문화유산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두 발언에 연등회의 가치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담겼다. 대표적인 불교문화이자 불교의례인 연등회는 동시에 우리국민 모두의 문화유산이었고 이제는 전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인류의 자산이 됐다.

보존과 전승의 주체로서 불교계가 우리 국민과 세계인들에게 감동과 환희를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민주당, 차별금지법 입법취지 새겨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를 추진 중인 '민주당표 차별금지법안' 이 불교계 반발에 직면했다. 불교계 뿐 아니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그간 입법화를 위해 노력해 온 시민사회단체들과 법학 전문가들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당연한 결과다.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아선 안된다는 입법취지를, 정치적 이유로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표 차별금지법안은 종교행위를 차별의 예외조항으로 명시했다. '성적지향' 을 이유로 법제정을 반대해 온 개신교계를 설득하기 위한 조항이라는 점에서 '개신교계 눈치보기식' 법안이라는 지적이 많다. 문제는 종교행위를 차별에서 제외할 경우 야기될 사회적 혼란과 위험성이다. 학교나 병원, 공공기관 등에서 종교교리에 기반한 행위로 차별을 야기하더라도, 종교행위라는 확대해석을 통해 그 위법성이 면제될 수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명백한 차별행위일지라도 종교적 신념이라는 명분이 면죄부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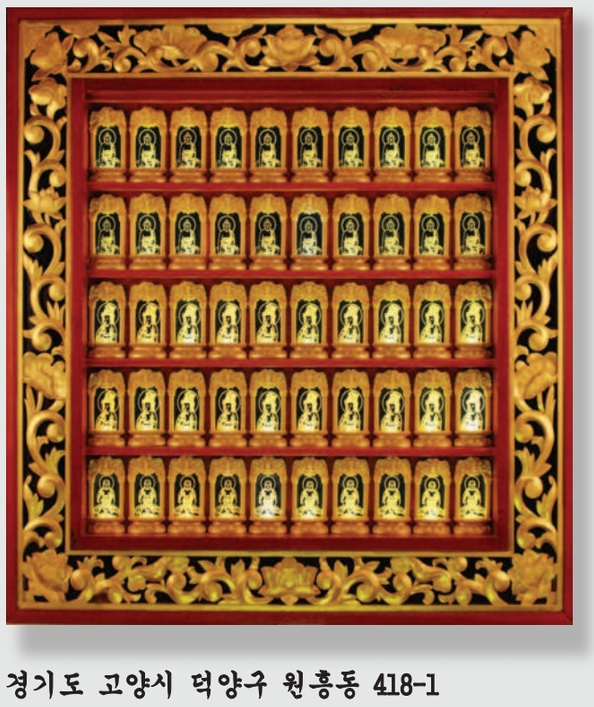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인식문제다. 종교행위라면 차별도 괜찮다는 인식이 자리 잡는 순간, 우리사회는 무수하게 발생하는 종교간 갈등, 사회갈등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민주당의 단시안적인 판단이 차별금지법안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되레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불교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하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거대정당인만큼 차별금지법 발의시 입법 가능성이 높기에, '누더기 차별금지법안' 으로 인권을 퇴보시키는 계기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민주당은 당장 해당법안의 입법발의 추진을 중단하고 사회통념에 기반한 온전한 '차별금지법안' 발의에 나서라.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불기2565년 신축년 신년 축하
새해 신축년 불보살님의 상서로운 대광명으로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국민 모두가 용기와 희망을 가지소서.
(사) 한국불교종단연합회 현대불교조계종
종 정 벽운
부종정 성주 부종정 혜원
종도일동
◉ 종단 입종을 환영합니다 ◉
◈ 입종서류 ◈
1.입종자격 : 스님, 법사, 포교사. 보광사에서 득도 출가자
2.입종서류 : 신행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사진 3장
3.입종비 : 30만원, 년회비 20만원
◈ 입종시 발급서류 ◈
1. 사암등록증 2. 주지임명장 3. 승려증 및 법사증
◈ 입종문의 ◈
전화 : 보광사 042)284-3929 팩스 : 042-283-5894
총무원장 동화 : 010-8552-7108
(동국대 불교학과,불교대학원 졸)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은어송로 86-100
(식장산 가오동 보광사)
※ 입종후 위 서류로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 발급 됨
사)현대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보광사 주지 동화
NAVER DAUM 에서 현대불교조계종 보광사를 검색하세요. http://bogwangsa.kr

금니불화의 탁월한 장엄성!
면발광LED인등


면발광LED인등
발명특허 제10-2350047호
010-6857-0108
http://www.sungbulwon.co.kr
盛拂園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문화재 수리기능자 8826호 양학모 양희곤 父子 합장
수미단 닫집 영단 인등 경탁 위패 기타 법당장엄일체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2/16~12/22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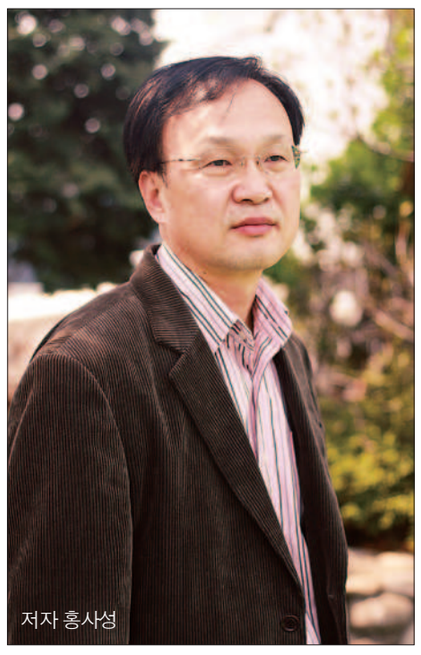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낡은 옷을 벗어라 : 법정스님 미출간 원고 68편 수록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6	원빈스님의 금강경에 물들다	원빈스님	이층버스
2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 선지식의 코신 사랑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7	초기 불교 입문 : 초기 불교 그 핵심을 담다	각묵스님	초기불전연구원
3	조용헌의 영지 순례 : 기운과 풍광 안생 순례지를 달래주는 영지 23곳	조용헌	불광출판사	8	화엄경을 머금은 법성게의 보배 구슬	김성철	오타쿠
4	지금 이대로 좋다	법륜스님	정토	9	법정스님이 세상에 남긴 맑고 향기로운 이야기	법정/김계윤 그림	불교신문사
5	연기와 공 그리고 무상과 무아	홍창성	운주사	10	번뇌 끊어야 하나 보듬어야 하나 (밝은사람들총서15)	이필원,김재권,오용석 박찬국,이유경	운주사

책세상

本心에 공명하는 시간



터널을 지나며
홍사성 지음
책만드는집 펴냄
1만원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홍사성 시인이 시집 〈터널을 지나며〉를 출간했다. 서시 '분홍 고마리' 로 문을 여는 책은 시인의 세 번째 시집이다.

총 5부에 나뉘어 실린 70여 편의 시는 시인의 말대로 한 쪽 한 쪽 꽃처럼, 분홍 고마리처럼 얼굴을 내민다. 정효구 문학평론가(충북대 교수)는 이번 시집을 '본심(本心)에 공명하는 시간' 이라고 해설했다. 홍사성 시인을 "본심을 본 사람"이라고 말한다. 아니 "본심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홍사성 시인을 그렇게 다른 시인과 구별했다.

1부에 수록된 작품들은 본심을 보고, 본심을 아끼고 본심을 사랑하고, 본심을 소중히 여기며, 본심과 동행하고자 하는 시인의 각성된 심경을 간절하게 담고 있다. 이번 시집을 계기로 홍사성 시인을 설명하고 있는 '본질' 이라는 단어를 홍사성 시인이 전 생애에 걸쳐 걸어온 불가적 함의 속에서 다시 생각해본다면 이번 시집의 1부에 수록된 작품들은 시인이 아주 오랜 동안 탐구해온 본심의 경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불교시' 라고 할 수 있다. 시를 통해 나타난 그의 본심 탐구와 본심에 대한 사랑은 '불교시' 라는 영역에서 바라볼 때 더욱 깊고 다양한 사유를 이끌어낸다. 탐진치의 오염된 마음으로 세상을 보았던 사람들의 묵은 본심을 죽비 소리나 범종 소리처럼 일깨우고 그들로 하여금 본래 자리로 되돌아가게 한다.

1부의 작품이 '이론' 이라면 2부부터는 '실천' 의 문제들이다. '본심을 행하는 시간' 으로 생각할 수 있다. 삶 속으로, 생활 속으로, 일상 속으로, 거리 속으로 내려온 시는 어떻게 하면 본심을 실천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그 순간들을 표현하고 있다. 생활과 거리 속에서 본심은 인간적 생존 카르마와 생명 카르마에 쫓기어 그 자취를 찾기 어려울 때가 많다. 경전에서 말하는, 매 순간 깨어있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본심을 행하는 시간에 초점을 맞추어 시를 쓰고 삶을 되돌아보는 일은 깨어 있는 시

本心 경지 보이는 '불교시' 다수
"詩, 본심의 체화와 정진의 과정"

간, 수행의 시간인 것이다. 시인은 삶 곳곳에서 본심이 행해진 표정들을 찾아 적었다. 시 '따뜻함의 힘' 에서 따뜻함의 위력을, '선인장 사랑' 에서는 '무심' 의 공덕을, '동행' 에서는 동지에 이르는 인내를 적고 있다.

이렇듯 '본심' 이란 쉽게 볼 수도, 쉽게 이룰 수도 없는 것이다. 매순간 깨어서 돌아보고 키워내야 하는 일인 것이다. 홍사성 시인에게 이런 '본심' 의 체화와 그 정진의 과정은 '시 쓰기' 를 통해 이뤄진다. 그에게 시 쓰기와 본심으로 가는 길은 같은 길이기 때문이다.

'본심을 실천하는 시' 들은 다시 '본심을 전하는 시' 로 이어진다. 사람들은 수많은 것들을 정보의 이름으로, 지식의 이름으로, 진실의 이름으로 전한다. 그 가운데서 가장 절실하면서 어려운 것이 본심을 전하는 일이다. '본심' 을 전하는 것을 '도(道)' 를 전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도(道)는 '진리' 의 다른 말로, 오래된 질문이자 숙제이다. 어떻게 하면 이 진리를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이를 본 사람, 이를 들은 사람, 이를 행한 사람이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이다. 시집의 뒷부분은 이런 '본심을 전하는 시간들' 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시인은 일상의 평범한 소재를 통해 그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작품 '지중해' 에서는 바다처럼 깊은 삶의 깊이를, '설악산 소나무' 에선 언제나 푸르고 큰 소나무의 항상심을, '장백폭포' 에서는 처절한 수행의 영원성을 전한다.

이렇게 '본심을 전하는 시간' 의 관점에서 홍사성 시인의 시를 이야기할 때 시집의 제목이기도 한 작품 '터널을 지나며' 는 지나칠 수 없는 이번 시집의 '집약' 이다. '터널은 어둠의 길이다' 로 시작되는 시는 '터널은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다' 로 맺는다. 시 '터널을 지나며' 를 통해 본다면 시인도 우리 모두도 끊임없이 대면해야 하는 터널들의 연속 속에서 살아간다. 시인은 그것을 아픔이기도 하고, 비애이기도 하지만 희망이기도 하다도 적고 있다.

홍사성 시인은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났다. 2007년 〈시와시학〉에서 등단했으며, 시집 〈내년에 사는 法〉 과 〈고마운 아침〉을 냈다.

책 속의 밑줄 긋기

20쪽 / 선탈 - 여름 한철 / 그악스럽게 울어대던 매미 / 날 추워지자 / 더 울지 못하고 울음 뚝, 멈추었다 // 땅바닥에 떨어진 시체 / 소리의 사리라도 됐을 줄 알았더니 / 개미조차 파먹을 수 없는 / 빈 껍데기다 // 바람 속으로 / 죽은 매미 껍질 던지다 돌아보니 / 악다구니 쓰며 살아온 세월 / 참 우습다 // 옛날 어떤 고승은 / 떠날 때 되자 / 짐승의 먹이나 되겠다며 / 목욕하고 혼자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35쪽 / 따뜻함의 힘 - 산수유도 꽃망울 터지기 전에는 / 죽은 삭정이에 불과했다 // 봄바람도 볕에 몸 녹이기 전에는 / 차가운 북풍일 뿐이었다 // 내 가슴도 네가 들어오기 전에는 / 가을걷이 끝난 벌판이었다 // 어느 날 천지가 이상해졌다 / 따뜻한 눈길 느낀 그날부터였다

75쪽 / 장백폭포 - 한 반만년쯤 울다 보면 / 저렇게 되나 보다 // 밤낮없이 울고도 / 더 쏟을 눈물 남았나 보다 // 울고 또 울어야 / 눈물 없는 세상 오나 보다 // 아직도 다 마르지 못해 / 쏟아지는 / 외줄기 / 눈 / 물

월남전을 소설로 다시 생각한다



붉은 눈동자
이상문 지음
인북스 펴냄
1만3천원

월남전에 파병된 병사 이야기
전쟁의 진실과 후유증 드러내
"월남전 우리에게 무엇이었나"

월남전쟁을 다시 생각하는 소설이다. 신간 〈붉은 눈동자〉는 설혹 그 일, 월남전쟁이 악몽으로 되짚어진다 해도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소설이다.

〈붉은 눈동자〉는 베트남에 파병된 한 젊은이가 수색중대 병사로 최일선에서 싸운 전쟁이야기다. 반세기가 훌쩍 넘은 지난 전쟁을 실감나게 그리며 그 전쟁의 진실과 후유증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그러면서 시대의 저편에 웅크리고 있는 아픈 상처를 향해 치유와 용서,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장편소설이다.

저자 이상문은 그동안 폭력적인 역사 속의 인간 존재의 비극에 대해 꾸준히 탐구해왔다. 따뜻한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함께 사는 인간들의 예의와 양심 그리고 사랑을 그려온 이상문 작가는 데뷔작 〈탄흔(彈痕)〉과 장편 〈황색인〉 등 베트남 전쟁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자신의 필생 과제로 삼아왔다.

이 작가의 덕목들이 집약된 작품이며 그가 그려온 베트남전쟁에 대한 완결편이라고 할 수 있는 〈붉은 눈동자〉는 전쟁이 끝난 지 4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베트남전쟁을 재조명하며 그 전쟁의 정신적, 신체적 후유증에 시달리는 참전 군인들의 노년의 삶을 다루고 있다. 그러면서 시대의 비극에 휩쓸려 좌절하고 상처 입은 인간들을 향해, 위로와 용서의 손길을 내밀어 화해와 치유를 모색한다. 〈붉은 눈동자〉에는 화자(話者)이자 주인공인 황덕수와 상대역인 구종구, 그리고 두 사람을 중재하는 정미연이 주요 인물로 등장한다. 그리고 베트남의 청순한 여고 3년생이었던 티엉마이와 전우 엄종철, 주인공의 회사 동료 김하나가 등장한다.

펄프 제지 관련 오퍼상을 31년째 꾸려오는 황덕수는 6 · 25 와중에 남편을 잃고 재혼한 어머니를 따라 의붓아버지 밑에서 자란 트라우마를 지닌 인물이다. 대학 시절, 날마다 시위에 나서야 하는 학교생활에 염증을 느껴 자원입대했다. 베트남 파병도 자원해 수색 중대에 배치됐다. 거기서 위문편지와 답장을 주고받은 정미연과 제대 후에 결혼하지만, 전쟁의 후유증으로 성부전증을 앓게 된다.

황덕수와 같은 수색 중대에서 전투를 벌였던 구종구는 6 · 25로 인해 부모를 잃은 고아 출신이다. 제화공으로 일하다가 초등학교 중퇴라는 학력을 속이고 입대해 참전한다. 무방비의 베트콩을 무참하게 살해하는 악마성, 돈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챙기려는 탐욕적 행태 등으로 황덕수가 적의를 품게 되는 비열한 인물이다. 대학 재학 중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서 돌아와 제대한 황덕수와 결혼하고, 전공했던 피아노를 학원에서 가르치며 가난한 신혼살림을 꾸려간 정미연은 아이를 갖고 싶었으나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남편의 성부전증으로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래도 순종적인 아내의 마음으로 갈등을 인내하던 정미연은 당뇨병과 우울증으로 자살하고 만다. 3년 후 정미연이 남편 황덕수 꿈속에 나타나며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한국군의 최초 참전 시점부터 55년이 흐른 지금, 그 병사들은 이제 고희를 전후한 나이가 됐다. 참전의 시간이 아득한 기억 속으로 희미해져 가는 듯하지만, 진정한 위로를 받을 길 없는 그들의 트라우마는 되살아난다. 작가는 고엽제 후유증 등으로 시달리며 늙어가는 동료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처절하게 싸운 그 베트남전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었는가를 참전용사로서 묻는다.

박재완 기자

21세기에 믿기 힘든 불가사의한 이야기,
성공하고 싶은 지식인들에게 들려주는 영험한 체험기

성제스님 산문집
불가사의한 가피 II·III
148×243mm | 찬샘 펴냄 | 값 (각) 13,000원



성제스님 시집
불가사의한 가피의 노래 I·II·III
143×204mm | 찬샘 펴냄 | 값 (각) 10,000원



세상 모두를 사랑하는 사람은 법계의 사랑을 받으며 믿을 수없는 기적들을 만들어 내는 것을 증명이나 하듯이 가피 영험담을 1년간 써 내려간 것이 산문집 **불가사의한 가피II·III**와 시집 **불가사의한 가피의 노래 I·II·III**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법계의 불가사의한 가피가 아니고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에 산문집과 시집이름도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부디 코로나로 많이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맑고 청정한 기운을 불어넣어주며, 이 행복에너지가 일파만파의 무한 에너지로 승화되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낼 수 있는 지혜와 복덕이 가득한 가정이되시길 기원합니다.

- 화엄사 **성제스님**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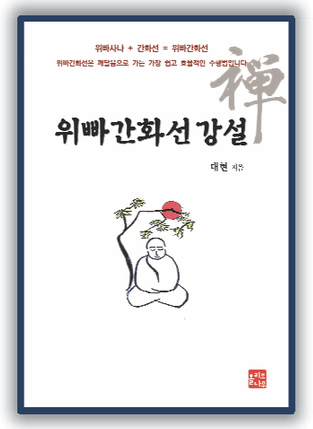
구입문의 : 성제스님 010-7406-9788 새마을금고 9002-1949-5544-0 (예금주 : 주식회사 연당)

수행의 가장 빠른 길 = 간화선 + 위빠사나

위빠간화선 강설

대현 지음

"간화선이야말로 깨달음에 이르는 지름길인 것이 분명하지만, 깎아지른 바위산을 단박에 오르는 것과도 같아서 상근기에 적합한 수행법이다. 간화선 수행자라도 위빠사나의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화두를 놓칠 때마다 놓쳤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어서 곧바로 되들기를 할 수 있다. 위빠사나 수행의 장점과 사마타 수행의 극치인 간화선의 장점을 잘 살린 위빠간화선이야말로 수행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 본책 + 강설 | 국판 | 200쪽 | 값 12,000원



선을 배우는 길

'고요히 비춤'을 바탕으로 삼고 (묵조선), '알아차림'으로 마음이 들뜸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면서 (위빠사나), "이 뭣고?" 하고 화두를 챙김으로써 (간화선), 산란한 마음을 강한 집중으로 삼매에 들게 하여 무명번뇌를 조복시켜 깨달음에 이르는 길.

* 대현 지음 / 신국판 / 302쪽 / 값 15,000원



선승의 길

수행으로만 일관하신 대현 스님의 수행기와 바른 참선수행법. 여러 선지식을 뵙고 '메마른 땅에 단비를 맞은 것처럼' 공부 농사에 영양분을 공급 받았던 내력과 함께 호흡법 등 기초공사의 중요성, 그리고 참선의 지름길을 밝힌다.

* 대현 지음 / 신국판 / 280쪽 / 값 12,000원

오리브나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82번길 10, 705-101
Tel. 070-8274-1226, 010-7755-2261 FAX. 031-629-6983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티베트 노승, 인도서 사후삼매 '툭담' 들어

남인도서 입적한 게쎄 땐빠 다르걜 스님

김민재 객원기자

티베트 불교에서는 수행이 원만한 수행자가 사망하면, 그 의식이 한동안 육신에 머물며 삼매에 드는 현상이 있다고 믿는다. 미세한 의식이 육신에 머무는 동안 의학적으로 사망했더라도 사망의 징후가 보이지 않는 것이 그 증거다. 12월 11일 '더 티베트 넷' '더 트리뷴' 등의 외신은 사후삼매에 든 티베트 스님에 대해 특별 보도했다.

지난 11월 21일, 남인도 티베트 망명촌에 소재한 간댄사원에서 게쎄 땐빠 다르걜 스님이 세수 87세, 법랍 67세를 일기로 입적했다. 간댄사원 측은 "다르걜 스님은 티베트 망명 1세대로 동부티베트 따우지역 출신의 게쎄(한국의 불교학박사)이다. 살아생전 많은 제자들을 키우신 학승이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매일 명상과 간경을 쉬지 않으신 스승"이라고 전했다.

살아생전 머물던 요사채에서 입적한 스님의 법구는 장례준비를 위해 입적한 장소에서 그 상태로 그대로 모셔졌다. 방에는 특별한 냉방시설이 없으며 시신 역시 부패방지처리 등 인위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장례준비와 기도를 위해 법구를 확인한 스님들에 의해 다르걜 스님이 사후삼매에 든 것으로 확인됐다.

티베트 불교에서 사후삼매는 '툭담'이라고 불리며 '마음이 삼매에 들었다'는 뜻이다. 육신은 의학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았으나 수행자의 의식이 아직 몸

티베트 망명 1세대 학승
사원서 20일 넘게 삼매
장례준비 과정서 확인돼

안에 남아 깊은 삼매에 들어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시신에는 사후 경직, 부패 등의 사망 징후가 보이지 않고 며칠 길게는 몇 주 동안 어떠한 보존 처리 없이 생전과 동일한 모습을 유지한다. 특별한 경우엔 시신의 크기가 신생아 크기로 줄어드는 경우도 보고된다.

다르걜 스님이 입적한 남인도의 간대



사후삼매인 '툭담'에 든 땐빠 다르걜 스님의 생전모습(좌)과 요사에 안치된 법구(우). 사진출처=간댄사원 제공

사원은 현재 평균 20도 이상의 온도가 유지되며 한 낮에는 30도 가까이 올라가는 날씨다. 그러나 현재 스님의 법구는 20일 넘게 사후삼매를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아직까지 사후경직이나 부패의 증상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스님의 사후삼매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 10일 간댄사원은 공식적으로 스님의 삼매상태를 인정하고 공표하였다.

소식은 현재 SNS등을 통해 현지 불자들 사이에 빠르게 전해지고 있다. 불자들은 "지난봄과 여름에도 사후삼매에 든 스승들이 계셨다. 희유한 모습을 스승들께서 보이시는 건 어렵고 힘든 시국에서 수행정진하라 끝까지 격려하시는 것"이라며 찬탄했다. 또 일부 불자들은 "살아생전 몇 번 뵈었는데 더 법을 여쭙지 못한게 안타깝다"는 반응도 보였다.

티베트 불교계에선 지난 3월과 7월에 티베트와 대만에서 각각 비구니 스님과 비구스님이 사후삼매에 든 사례가 보고됐다. 특히 3월 티베트에서 입적한 비구니 스님의 법구는 그 크기가 생전의 3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전해지며, 대만에서 입적한 스님은 28일간 사후삼매에 들어 있었다.

日 정토진종 종정에 '브라질인 박사'

일본계 브라질인 쵸유 스님
일본불교 역사상 최초사례



정토진종 오타니파의 제 26대 몬슈(종정)에 취임한 쵸유스님. 사진출처=아사히 신문

일본계 브라질인이자, 물리학 박사인 스님이 일본 최대 종단인 정토진종의 차기 종정에 올라 화제다. 지난 12월 13일 일본의 '아사히신문' '산케이 신문' 등 주요 언론은 이 놀라운 사실을 대서특필했다.

일본불교 최대 종단으로 꼽히는 정토진종 오타니파(大谷派)의 몬슈(門首. 한국의 종정)인 오타니 쵸유 스님은 지난 11월 말 공식으로 몬슈에 취임. 처음으로 언론과의 대담을 가졌다. 쵸유스님의 현재 국적은 브라질로 일본불교 역사상 최초로 남아메리카 출신의 종정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스님은 교토에서 태어났으나 정토진종 남아메리카 교구 포교사였던 아버지와 함께 1살의 나이에 온 가족이 브라질로 이민했다. 이후 브라질 국적을 취득, 상파울루 대학에서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고 물리학자로 평생을 보냈다.

아버지의 간청으로 40세라는 늦은 나이에 출가한 쵸유 스님은 "일본어를 읽고 쓸 줄 알았지만 일상회화는 포르투갈어, 좌식의 사찰문화에도 고생이 많았다"며 출가와 학인시절을 회상했다. 그러던 스님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것은 지난 2015년. 종단이 스님을 제26대 오타니파의 몬슈로 지명하면서 부터다.

전통적으로 대처종단인 정토진종은 대대로 몬슈가문에서 종정을 세습해 왔다. 그러나 25대 몬슈에게 자식이 없었기에 가장 가까운 혈통으로 사촌이었던 스님이 후계자로 지명된 것이다. 종단 측은 "당시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반대를 우려했으나, 종도들과 종단임원들의 대대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쵸유 스님은 현재 일본 국내외 약 8,700개의 사찰과 750만 명의 종도를 거느린 종단을 지도하기 위해 고향인 브라질에서 일본으로 옮아와 현재 교토에 거주하고 있다. 스님은 일본계 브라질인이자 물리학박사라는 자신의 배경을 활용해 문화적 차이를 이해한 포교에 집중하고 있다.

스님은 "과학은 인류의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역할이지만, 사람의 삶을 지탱하는 마음은 종교에서 나온다"며 종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스님은 "불교는 국적, 인종,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평등'을 가르친다. 다양한 언어, 문화, 음식이 있더라도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염불의 가르침을 전 세계에 전하겠다"며 포부를 보였다. 또 "모든 존재가 진정한 조화를 이루며 함께 살 수 있는 세상. 이보다 더 필수적인 것이 없다"며 평화와 조화를 위해 불법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재 객원기자

세계 음악가들, 헤비메탈에 불교 접목

포르투칼 · 미국 · 대만 등
데스메탈 밴드 음악 '주목'
불교서 영감 받아 작곡
헤비메탈에 '열반' 담아



최근 불교의 다르마에서 영감을 받은 음악가들이 많아지고 있다. 사진출처=라이언스로어

최근 불교의 다르마(Dharma)에서 영감을 받은 음악가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불교만의 평온과 '헤비메탈(heavy metal)'이란 음악 장르는 일반적으로 어울려 보이진 않지만, 헤비메탈 음악가들에게 불교와 헤비메탈은 열반, 즉 궁극적인 세계에서 만들어진 조합과 다름없게 여겨진다.

불교 매체 라이언스로어(Lion's roar)는 12월 10일(현지시간) "다르마와 헤비메탈이 콜라보를 이루는 것은 오직 시간문제였다"며 "전 세계 음악가들은 불교로부터 약간의 영향을 받거나 문화적 협력 형태로서 접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최근 불교적 색채를 곡 또는 앨범 이미지에 차용한 헤비메탈 음악가들을 소개했다.

포르투칼의 데스메탈 밴드인 '더 퍼스트본(The Firstborn)'은 수행 지침서인 '티베트 사자의 서(The Tibetan Book of the Dead)'에서 영감을 얻은 그룹으로 유명하다. 2004년 발매된 그들의 첫 번째 LP앨범인 'The Unclenching of Fists'가 바로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 영감을 받아 작업한 곡이다. 이밖에 더 퍼스트본의 곡 'The Noble Search' 'Lions Between Men' 등도 "불교의 다르마와 대승불교 사상을 명시적으로 다루면서도 동양적인 분위기를 음악 전체의 스펙트럼에 가미한 노래"라고 소개했다.

미국의 메탈 밴드 'Sun O)))'와 'Yob'도 주목할 만 하다. 썬은 7번째 정규음반인 '캐논'에 모든 부처의 연민을 구현하는 보살인 관세음보살의 이야기를 담았다. 욥은 데뷔 초기부터 불교를 음반에 접목시켜 왔다. 욥의 리더이자 기타리스트인 마이크 샤이트(Mike Scheidt)는 "과거 많은 동양 종교로부터 영향을 받아왔지만, 최근 아파서 응급실에 입원한 동안 불교에 대한 탐구가 많은 영감을 일깨워줬다"고 했다.

불교를 변종시켜 음악에 접목시킨 또 다른 밴드는 캐나다의 '야만타카 소닉 타이탄(Yamantaka Sonic Titan)'이다. 이 밴드의 명칭은 일본 불교에서 교리를 수호하는 신인 '야만타카(바즈라바이라바: Vajrabhairava라고도 함)'와 미묵의 유명한 메탈밴드인 '슬립(Sleep)'의 곡명이었던 '소닉타이탄'을 결합한 것이다. 이 밴드에 대해 라이언스로어는 "밴드 이름을 딴 그들의 데뷔 LP앨범은 아름답고, 짜릿하고, 초월적이다. 음악, 탐험. 불교를 아우른 이 밴드는 음원보다 무대에서 더 강력한 파급력을 내뿜는다"고 극찬했다.

대만 최초의 데스메탈 밴드 '다르마(Dharma)'는 엄청난 리프(riffs)와 폭발적인 비트를 동반해 전통적인 산스크리트 경전을 그들만의 음악으로 재탄생시키는 음악 작업에 몰두한다. 라이언스로어는 "다르마와 다른 밴드를 구별하는 것은 비구니 스님이 전통적인 찬불독송으로 퍼포먼스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헤비메탈 음악 목탁으로 연주한 스님

日 코산 스님, 불교 악기로
메탈리카 '엔터 샌드만' 등



일본의 한 스님이 유명 헤비메탈 밴드인 '메탈리카(Metallica)'의 곡을 목탁 등 불교 도구를 이용해 커버한 영상이 전 세계인들에게 화제를 끌고 있다.

뉴질랜드 일간신문 '뉴질랜드헤럴드(NzHerald)'는 12월 12일(현지시간) "메탈리카의 노래를 커버한 코산(Kossan) 스님의 영상<사진>이 입소문을 타고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며 유튜브 영상을 소개했다. 메탈리카는 미국의 헤비메탈 록밴드로, 2004년과 2009년 그래미 어워즈에서 최우수 메탈음악상을 거머쥔 바 있다.

해당 영상에서 스님은 메탈리카의 히트곡 '엔터 샌드만(Enter Sandman)'을 부르면서 불교 악기로 반주한다. 엔터 샌드만은 1991년 메탈리카의 셀프타이틀 앨범 타이틀곡으로, 34회 그래미 어워즈 록음악 부문 후보에 오를 만큼 인기를 끌었다.

해당 영상은 현재(16일 기준) 유튜브에서 약 14만 건의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유튜브 이용자들은 "당신은 2020년에 필요한 영웅" "이만큼 헤비메탈을 향한 순수한 열정을 본 적 없다" "메탈리카는 다음 콘서트에 그와 무대에 함께해야 한다"는 등의 극찬을 쏟아냈다. 박정현 객원기자



해외 반출 문화재 '환지본처' 바라며…



이상근의
聖寶流轉
㉔ 반출 문화재 막전막후

문화재청 산하에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라는 곳이 있다. 이름대로 해외에 반출된 우리 문화재에 대해 조사를 하는 단체다. 이 단체는 매년 4월 1일 해외 반출 문화재 숫자를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하는데 올해는 193,136이라는 숫자가 선명하다.

몇 년 새 늘어나는 추이를 보면 매해 1만 점 내외다. 대부분 소장처는 역시 박물관이다. 짐작하겠지만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반출 유물에 대해서는 그 규모 파악이 쉽지 않다. 사실 짐작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그래도 일단 파악된 19만여 점이라는 숫자도 대단하다. 어느 정도 숫자인지 감이 잘 안 오는 분들을 위해서 비교하자면 2019년 기준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 되어 있는 유물은 불과 6000여 건, 1만 여점이다. 지금까지 조사된 해외 반출 유물을 국립중앙박물관에 모두 전시하려면 1년에 한 번씩 전면 전시 교체를 해도 20년이 걸린다는 얘기다.

우리 문화재가 유출된 나라 역시 짐작대로다. 19만여 점 중에서 일본으로 4할이 넘는 8만여 점이 반출되었고, 미국으로 5만여 점, 중국으로 1만여 점이 반출되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유럽으로 넘어간 숫자 역시 만만치 않다.

이런 유물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극히 이례적이다. 2019년 한해 기준으로 돌아온 문화재는 '범어사 신중도', '신흥사 제반문(諸般文) 경판' 등 10여 점에 불과했다. 유출 경로가 '불법' 임이 어느 정도 증명되어야 국가 간 협상이라도 가능한데 그런 자료는 유물만큼이나 흔하지 않다.

그래도 이런 와중에 극적으로 돌아온, 또 반출 시도를 하다 중단돼 이 땅에 남게 된 귀중한 성보들이 있다.

돌아온 유물, 경천사지 석탑

흔치 않은 경우지만 갔다가 돌아온 유물이 있다. 협상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 여론 때문이었고 그것도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일이다. 바로 경천사지 석탑이다.(굳이 정식 명칭인 10층을 뺀 이유는 다시 밝히겠다.)

경천사는 고려 시대 개경, 그러니깐 지금의 개성에 지어진 사찰이다. 고려 시대 개경에 있던 사찰 대개가 그렇지만 왕실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했다. 고려 예종 8년(1113) 겨울 초입에 낙성식이 열렸는데 왕이 직접 낙성식에 행차했다.

지어질 당시부터 거찰의 면모를 가지고 있긴 했지만 원나라 간섭기인 1348년 친원 세력들이 기황후의 안녕을 기원하며 세운 아주 이국적인 탑이 세워지면서 사찰의 면모가 한번 일신되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다른 설명도 있긴 하다. 조선 대 문헌에는 원의 승상 탈탈이 경천사를 원찰로 삼았고 탈탈에게 자기 딸을 첩으로 바친 고려인 강융이 원나라에서 공장(工匠)을 데려와 탑을 만들었다는 설이다. 당시에는 탈탈과 강유의 초상화가 절에 남아 있었다는 기록도 있다.

여하튼 경천사는 거개의 사찰들이 그렇듯이 조선을 거치면서 폐사가 된다. 1900년 초에는 사찰 터에 오직 탑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현재 반출된 문화재 19만 여 점
美 · 日에만 문화재 9만점 반출
不法 반출 증거없어 환수 난항

경천사지 석탑, 140조각 난후
日반출… 여론 악화되자 반환
종전후 日人들 반출 못하기도
中유물 전등사 철종 등 한 예

그런데 이 탑은 1907년 1월 순종 결혼식에 일본 특사로 파견되었던 궁내대신 다나카 미스아키(1843~1939)의 표적이 되고 만다. 한 달 후인 1907년 2월 인부 수백 명이 동원되어 석탑의 해체가 시작됐다. 이를 이상히 여긴 동네 사람이 몰려왔다. 그러자 다나카 미스아키는 '고종의 허락을 받았다' 고 거짓말을 했다. 마을 주민들이 '그럴 리 없다' 고 막아서자 급기야 총을 겨눴다. 결국 140여 개로 조각난 탑은 달구지 10여 대에 나눠 실려 현장에서 빠져 나갔고 제물포에서 일본까지 배에 실려 옮겨졌다.

그런데 상황이 묘하게 전개된다. 약 한 달 후인 1907년 3월 7일 〈대한매일신보〉에는 "다나카는 우리 국민을 만만히 봤다. 조선 인민은 그 만행과 모욕에 결연히 항거할 것"이라는 기사가 떴다. 〈대한매일신보〉는 영국 출신 언론이 어니스트 베델(1872~1909)이 창간한 신문이다. 국문판과 영문판이 동시 발행되었는데 영문판에도 같은 기사가 실렸다. 이후 〈대한매일신보〉는 10여 차례에 걸쳐 기사와 논설을 쏟아내면서 석탑 밀반출을 집요하게 파헤치고 또 여론을 환기시키려고 애를 썼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 중인 경천사지 석탑. 1907년 140여 개로 조각나 일본으로 반출됐으나 국제적인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1918년 우리나라로 되돌아왔다.

이후에는 고종의 '밀사' 였던 호머 허버트(1863~1949)가 움직였다. 일본의 독립성향 신문이었던 〈재팬 크로니클〉에 두 차례에 걸쳐 석탑 반출이 문화 파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기사를 르포 형식으로 게재했다. 이 기사를 기반으로 그해 6월 2일 〈워싱턴포스트〉 보도가 나가자 일본은 위기감을 느꼈다. 조선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갖고 있었고 이제 '공식적' 으로 병탄을 하려고 할 무렵이었는데 국제 여론이 움직이자 불편할 수밖에 없었다. 급기야 조선의 초대 총독으로 부임한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일본에 "석탑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탑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건 1918년 11월이었다. 포장된 상태 그대로였다고 한다. 폐사된 절에 다시 갈 수 없으니 경복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140여 개로 조각조각 난 탑을 복원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1960년쯤에 이르러 조각을 맞춰 다시 세웠으나 용산에 국립중앙박물관을 지으며 옮겨갈 때 설계 자문이었던 이탈리아 로마대 벨란카 교수가 '풍화 작용으로 석재 표면의 균열이 심해 실내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 는 의견을 냈고 이에 따라 1995년 해체해 10년 간 보존 처리를 마친 후 2005년 국립중앙박물관이 용산에 이전하면서 박물관 안쪽 입구에 옮겨졌다.

그런데 현재 학계 일부에서는 이 탑을 10층이 아니라 13층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아래 3단을 기단부로 보고 위에 10단만을 탑으로 보는데 조선 시대 기록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13층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이유다. 우리나라에 13층 석탑의 예가 없는 건 아니다. 북한에 남아 있는 유물로는 보현사 13층 석탑이 유명하고 남한에 남아 있는 유물로는 경주 정혜사지 13층 석탑이 유명하다. 물론 탑은 위로는 홀수로 세우니 10층이 아니라 13층 석탑이 맞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10층 석탑의 예가 없는 것도 또 아니다.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그렇다. 경천사지 석탑처럼 기단부를 세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애매하지도 않다. 다만 옛 기록에 경천사에 13층 석탑이 남아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 곳이 종종 있으니 다시 살펴봐야 할 일이다.

반출 될 뻔한 유물들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약탈해간 대표적인 문화재로는 '고려불화' 를 들 수 있다. 전쟁 와중이었고 수송이 만만치 않았으니 무거운 것보다는 쉽게 소장할 수 있는 것들을 주로 가져갔다.

하지만 300여 년이 지나고 일본이 다시 이 땅에 점령군을 왔을 때는 상황이 달랐다. 곳곳에 철도가 세워졌고 한반도와 일본을 오고가는 선박도 커졌다. 물론 고려청자처럼 작은 것도 노렸지만 정원 꾸미기를 좋아하는 일본인들에게 탑과 불상 같은 석조물은 군침을 흘리기 좋은 유물이었다.

여하튼 일본으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는 항구로 가야 했고 그곳까지는 기차를 이용해야 했다.

최근 한 공중파의 인기프로그램에서 군산의 발산리 유물을 소개한 적이 있다. 그곳에 1920년경 일본인 대지주 구마모토가 지은 별장이 있었는데 창고는 텅 비었지만 정원으로 쓰이던 곳에는 고려시대 석탑을 비롯해 부도, 문인석 등이 널려 있었다. 아마 그 유물들은 구마모토가 그곳에 '장식' 으로 세워놓은 것은 아닐 것이다.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출항하는 배들의 거점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군산이다. 철도를 이용해 경향각지에서 수탈한 문화재를 일본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이곳을 거쳐야 했던 것이다.

현재 용산역에 있는 코레일 철도회관 안 있는 연복사탑중창비도 그런 경우도 짐작된다. 연복사탑중창비는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공덕으로 재건된 개경의 연복사 오층불탑의 건립 내력을 담은 비석이다. 당시 용산은 개성을 오가던 경의선의 시발역이었다. 연복사탑중창비는 경의선을 타고 용산 철도구락부(鐵道俱樂部) 구역으로 옮겨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일본으로 반출되지 않고 그곳에 그냥 남아 있었다. 그런데 오랫동안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중창비의 행방은 묘연했다. 용산으로 옮겨졌다는 것만 알려졌을 뿐 그 소재는 알려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아마 비신이 훼손돼 그 실체를 알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 그런데 2012년 우연히 한 시민이 철도회관 앞을 지나다 발견한 이 중창비의 사진을 인터넷 카페에 올리면서 이 유물의 실체가 드러났다. 누구도 이게 유물인지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곳에 내내 머물고 있었던 셈이다.

이렇게 일본으로 건너가지 못한 유물 중에는 아주 특이한 것도 하나 있다. 바로 전등사 철종이다. 사실 전등사의 철종은 송나라 유물이다. 일본이 태평양전쟁 당시 군수물자 조달 차원에서 중국 본토에서 공출해 인천 부평의 병기창에 옮겨 놓았는데 일본이 패망하자 극적으로 이 땅에 남게 된 것이다. 이 유물을 전등사에서 수습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데 현재 우리나라 보물 목록에 들어가 있는 문화재가 딱 두 점이 있다. 손기정 옹이 베를린올림픽을 제패하고 받은 고대 그리스의 청동제 투구, 그리고 전등사의 철종이다. 전등사 철종에는 만들어진 시기와 이유다 새겨져 있어 그 가치가 다른 유물에 비해 높다.

지금까지 용케 돌아오거나 넘어갈 뻔하다가 남은 유물이나 성보들 한둘을 살펴봤다. 이 땅에 살아남았건 남의 땅에서 지내고 있건 유물은 모두 하나씩의 사연은 있다. 남의 땅에 넘어가면서 사연을 하나 추가한 셈이다. 이제는 그런 유물들에 '돌아왔다' 는 사연을 하나씩 만들어 주면 좋겠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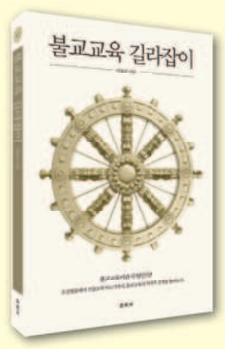
〈불광출판사 편집주간〉

불교교육이란 무엇인가? 지금 왜 불교교육인가?

불교교육 길라잡이

서양 이론 중심의 교육학에 불교의 가르침과 교육 과정을 융합하여 '불교교육학'의 새로운 영역을 구축해 가고 있는 이송곤 박사의 불교교육 개론서!
초전법륜에서 선불교에 이르기까지, 불교교육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특성, 의미 등을 고찰하였다!

이송곤 지음/신국판/268쪽/값 16,000원



무엇이 불교를 불교답게 하는가?

연기와 공 그리고 무상과 무아

현대에 맞도록 불교를 해석하고 이해하고
실천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미국 미네소타대학 철학과 홍창성 교수가
현대철학의 관점으로 붓다의 가르침을 펼쳐 보인다.

이 책은 불교철학서이다. 믿음이 아니라 이치를 따져 교리의 옳고 그름을 밝혀보겠다는 말이다. 불교가, 붓다의 가르침이 '진리'라면 그것은 시대와 지역을 뛰어넘어야 한다.



홍창성 지음/국판/216쪽/값 12,000원

금강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금강경, 연기법으로 보아야 제대로 읽힌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내용은 무엇이고, 그것은 금강경에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가?!
금강경은 존재의 실상을 깨닫도록 일러준다. 존재의 실상은 무상(공)이다. 연기법은 일체가 공임을 깨닫게 해준다.

백창우 지음/국판/184쪽/값 12,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포교 새 원동력



이현정의
불교와 스피치

⑨ 포스트코로나 포교와 커뮤니케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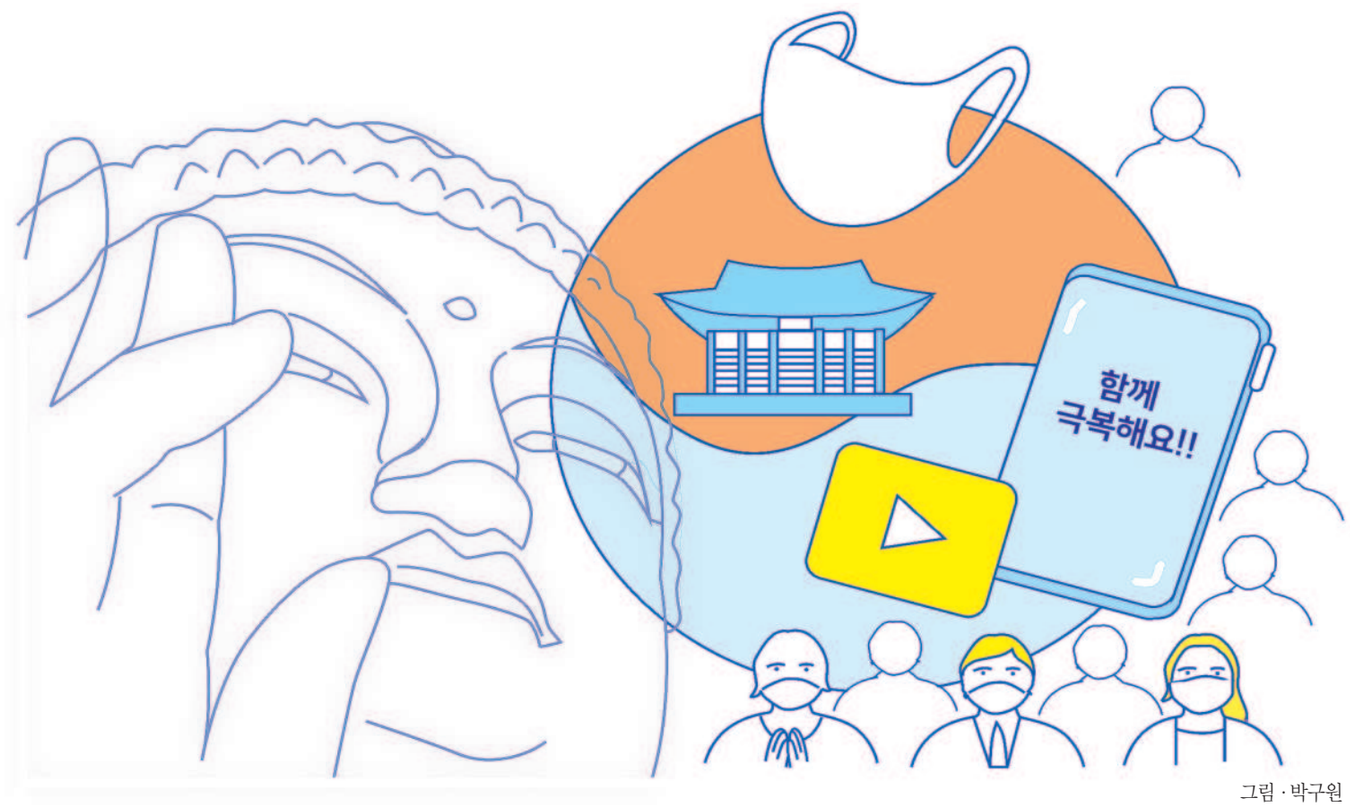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현상(pandemic)이 계속되고 있다. 인수공통감염병(zoonsis)의 창궐은 불자에게는 남다르게 와 닿는 면이 있다. 산업혁명 이후 줄기차게 달려온 과학문명의 질주와 서구사회우위의 동양의 열등의식으로 인한 성급한 경제개발, 인간우월주의에 짓밟힌 자연과 환경의 폐해, 주위를 배려하지 않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혼합형 몰인성주의, 생태환경의 악화일로로 인한 기후변화, 이로 인한 공기오염 등으로 각종 질병이 새로이 만들어지고 각종 현대병들이 줄줄이 이어져왔다. 이러한 인간편의주의로 달려온 물질문명에 강한 쐐기를 박은 사례가 바이러스의 출현이 아닌가 싶다. 이렇듯 대유행병의 메시지는 종교인으로서 각별한 의미부여로 연결된다.

코로나 위기에서도 한국은 또 한번의 한류의 위상을 높였다. 예전에 우리의 단점으로 보여졌던 공동체 문화, 부화뇌동 등의 열등한 사회현상 및 한국인만의 모습들이 코로나 사태로 뒤집히면서 강한 일체감을 보여주며 K방역과 바이러스 확산 억제에 모범사례로 보여지고 있다. 예전 14세기 유럽의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 이로 인한 역사의 분기점을 이루며 전혀 다른 세상이 열렸듯이, 코로나 역시 또 하나의 획을 긋는 역사의 변곡점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공통점을 보면, 기존의 우열이 뒤바뀌고, 미추(美醜)가 달라 보이며, 시각의 관점, 사상, 철학, 기저문화 등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 이라는 편협한 생각도 버려져야 하며, '인간은 사회적 동물' 이라는 단정이 옳지 않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온 바이다. 세상에 있는 생명체 하나하나가 다 각자 나름의 의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인간과 함께 공존해야할 대상들이었다. 더구나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위협은 인간의 무력감을 여지없이 보여주며, 맥없이 주저앉게 만들어버렸다.

기원전 5세기 경 인류의 정신적 발전에 중심축을 이룬 위대한 문명이 시작되었다. 그 전의 무지몽매한 살육과 투쟁이 난무했던 삶에서 인간의 정신고양의 정점을 이룬 일대사 전환점이었다. 칼 야스퍼스(Karl Theodor Jaspers,1883-1969)는 기원전 800년에서 기원전 200년 사이에 동서양이 서로 알지도 못하면서 각 대륙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사상의 혁명, 사유의 정신적 고찰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이를 '기축시대(Axial-Age)' 라고 명명했다. 인도에는 우파니샤드(Upanisad) 철학이 있었고 부처가 살았던 시대였으며, 힌두교와 불교가 태동했다. 중국은 비슷한 시기에 공자(孔子)와 노자(老子)가 살았고 수많은 제자백가들이 활동했다. 이란에서는 짜라투스트라(Zarathustra)에 의한 세계관이 만들어졌고, 팔레스타인에서는 이사야(Isaiah)와 예레미아(Jeremias)등이 대거 출현했다. 한편 그리스에서는 호메로스(Homeros), 헤라클레이토스(Heraclitus), 소크라테스(Socrates) 등의 소피스트들과 문학가들이 존재했다. 중앙아시아에서는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 등의 유일신 종교들이 속속 태동했다. 야스퍼스는, 이 기축시대는 인간실존을 깨닫고 이를 통한 현명한 자세와 생활을 하게 되었던 정신화작용(Vergeistigung)이라고 했다. 이 기축시대의 사상과 철학, 종교는 현재까지도 인간의 삶의 방향타구실을 할 정도로 가장 근원적인 철학과 인간의 심성을 원만하게 해주는 종교로 연결되고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커뮤니케이션은 삶의 일부
간결 · 명확 · 대안 키워드
온라인 소통으로 포교확장

코로나 사피엔스는 불교적 생활

어려운 시점마다 종교는 존재이상의 영향을 부여해주고 있다. 국난이 있거나 재앙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을 어루만져주고 생각의 관점을 바꿔주면서 강한 인간의 주체성을 확립시켜주었다. 보이는 적이 있을 때는 무참히 적을 방어하기 위해 과감히 나서기도 했고, 한 나라의 백성들의 자신감을 부여해주기 위한 여러 불사도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루어졌다. 코로나 시대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은 마치 전시체제처럼 사람들을 집에 가둬놓았다.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종교 활동도 자연히 멈추게 되었다. 돈을 벌어야 하는 일도 위축되었는데 다만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소비였다.

소비가 미덕인 20세기의 큰 축은 여전히 가동되고 있다. 오히려 집에서 더 편안히 소비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리미티드(limited)의 심리를 건드린 명품대열은 더 간절해지고 완판되는 기염을 보이면서 인간욕망의 불꽃을 더 타들어가도록 불지르고 있다. 이에 잘사는 사람의 소비 덕질은 더 심해지고 있으며 빈부격차의 간격이 더 벌어지고 있다. 욕망의 질주에 대한 욕구, 절제에 대한 멈춤의 자각이 더 격렬히 맞부딪히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양분화가 절정에 다다르고 있는 시점에서 불교는 어떠한 방향성을 조준할 것인가. 어떻게 사람의 혼란과 불안을 바로 세워 시대적 소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예전의 펜데믹과 달리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인류에게 하루가 다르게 생사여부를 가르는 강한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다. 생과 사의 기로에서 인간의 삶의 자세는 기존의 사상과 철학, 성찰 등을 통해 확대되어 보인다. 이러한 극한의 과정을 볼 수 있는 이야기가 불교에는 여러 사례로 전해지고 있다. 어떤 난관에도 거뜬히 일어설 수 있는 에너지가 부처님 말씀에 다 들어있다 해도 과장은 아닐 것이다. 4부 대중 모두는 욕망의 덩어리로 달려온 생활을 잠재우고 초심으로 돌아가는 기회로 삼아 그동안의 막행막식에 대한 참회와 숙고의 자세로 되돌아가야 할 것이다. 저마다 한국 최고의 탑, 동양 최대의 불사 등으로 경쟁 삼아 치닫던 불사경쟁도 실로 무의미해진 느낌이다. 언컨택트 시대가 본격화 되고, 우리의 생활상이 거의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시대로서 오히려 큰 규모의 대면 가능한 오프(off)사찰은 부담스러워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교포교에 대한 진취적인 생각은 사실상 무의미해 보인다. 그러나 전 인류적 재앙의 흐름, 전 지구적 변화, 인간 삶의 변화에 대한 관심과 예민한 추이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Yuval Harari)는 '코로나 사피엔스(Corona Sapiens)' 라며 앞으로 더 지능적인 바이러스들이 3~5년마다 창궐할 것이고 문명의 대전환이 밀려올 수밖에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는다고 했다. 위에서 상론했듯이, 삶의 방향성은 불교식 생활이다. 환경 친화적, 자연공존, 물질의 절제, 탐 · 진 · 치 소멸지향의 생활, 자연에 대한 경외감 및 아상을 녹이는 자기관리, 끝없는 욕심을 자제하는 수행력, 과도한 개발과 불필요한 생산은 지양한다는 점이다. 낭비를 줄이고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 이것이 코로나 사피엔스적 삶이다.

포노 사피엔스, 포교커뮤니케이션

이러한 코로나 시국에서 모든 집단적 모임, 공동체, 단체모임 등은 문을 닫게 되었다. 이 중에 종교시설에 대한 금지가 강해진 것은 기독교계통의 몇몇 교회들의 반항적 저항으로 기인한다. 사찰의 법회들은 저마다 알아서 문을 닫았고, 정부지침에 잘 따라주고 있다. 사찰은 이제부터 다른 문화를 열어가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사항과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야 앞으로의 새로운 시대를 잘 적응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20세기가 1919년 1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고서야 시작되었듯이 2020년 2월 코로나(Covid19)로 드디어 21세기의 문이 열렸다. 19세기 유럽의 중심세상에서 20세기로 들어선 미국의 패권으로 유럽, 미국이라는 거대 서양의 흐름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코로나가 분기점이 된 현 시점에서 서양문화의 흐름이 동양문화로 변화되고 있다. 사상과 철학, 종교 등 인문학적이며 심성적인 면이 강화되면서 그동안 간과되었던 많은 부분이 동양 사상으로 회귀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도 SNS, 각종 디지털 기기들의 진화 들 속으로 대량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많은 정보를 수많은 온라인시스템들로 실어 나르고 있다.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에서 처음 등장한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는 코로나 이전에 이미 생활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전 인류 대다수가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삶을 가리키는 포노 사피엔스는 불교포교의 힘도 여기에서 발휘되어야 한다. 부처님말씀으로,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 시대로 만들어야 한다. 효과적인 메시지를 위한 포노 사피엔스적 방법을 알아본다.

첫째 간결해야 한다. 온라인매체에서는 짧고 간결해 한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을 요구한다. 이를 10초 안에 사로잡는 '밈(Meme)' 의 과학이라고 한다. 밈은 문화적 복제라는 의미로 틱톡(Tiktok)이 불을 지른 격이 되었다. 단 몇 분 안에 보고 넘기며 즐기는 시대적 소통도구이다. 짧은 영상이나 문구로 긴 여운을 남기는 밈은 보는 자의 스스로의 판단에 의존한다. 이에 따른 각자의 댓글과 후기의 문화, 이를 보면서 자신의 의견을 맞춰보는 시대이다. 따라서 불교포교의 문구나 영상은 짧으면서도 누군가에게 매력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것이어야 한다.

둘째 명확성이 있어야 한다. 뭔가 불교에 관한 내용 같은데, 한자투성이거나 봐도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 수 없는 단어이거나, 의구심이 들게 보인다면 아무도 퍼다 나르지 않는다. 온라인 시대의 포교는 짧은 문구라도 감동이 전해지면 알아서 저마다 퍼다 나르게 되어 있다. 이것이 온라인 자동포교 시스템이다. 한자로 된 문구는 유아, 청소년, 젊은 층, 중년층까지도 이해하기 힘들다. 외마디라도 가슴에 젖어들 수 있는 시대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는 메시지에 육하원칙을 기본으로 빠른 이해를 유도하여 전달속도를 높인다. 문장구조에 함몰되면 형식에 치우치기 쉬울 수도 있으나, 전 세계인을 향한다면 보편적인 구조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넷째는 청중을 세계의 불특정다수로 여기고 시대를 조망할 수 있는 대안, 현 시점의 문제해결 등을 불법으로 연결시켜준다.

다섯째는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불교의 폭넓은 자비심을 펼쳐준다. 불교 자체는 다문화, 다종교, 포용력이 특징이다. 시대에 맞는 종교로서 열린 마음과 자세를 보여준다. 시대적 편견과 지역적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한다. 커뮤니케이션은 말과 글의 총체적인 합산물로서, 이를 위한 준비, 기획, 아이디어 교류, 훈련, 교육 등을 주도면밀하게 하여 21세기를 불교포교의 새로운 세기로 만들어야 한다. 〈끝〉

〈불교스피치 전문가〉

대한불교 조동종

불원사 관음전불사 및 불상구입자금 후원 안내



만월 (2mm 크리스탈 13만개로 조성된 석가모니불)
- 주지 행만스님 작 -

귀의삼보하옵고!
해외, 국내를 돌아다니면서 30년 동안 모셔온 불상이 4,000여점이 되었습니다.
소승이 모셔온 불상은 간다라 불상 및 마투라불상은 기원전으로부터 송나라, 명나라에서 청대시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기원을 잘 볼 수 있도록 관음전 삼보전시관을 불사하기로 석가세존전에 언약하였습니다.
이중 티벳 불상이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한국,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 네팔, 일본, 태국 등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원사 관음전 삼보 전시관은 국내 유일한 티벳 불상 전시관이 될 예정이며 아직 성취관에 전시되지 못한 희소성이 많은 티벳 불상 600여점이 빛을 못보고 쌓여 있습니다. 앞으로 희소성을 간직한 티벳의 불상을 관음전 삼보 전시관을 불사하여 불상의 기원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불, 보살님과 살아온 60여년의 세월, 38세에 불원사를 창건하다가 쓰레기더미에 있는 온도계 수은에 찔려 왼팔을 잃고 하루 한끼의 공양만으로 1000일 수행정진하다 뇌졸중을 쓰러지고 지금은 경동맥 협착증으로 훼손된 불상복원과 오색 크리스탈 개금, 창작개금 으로 한팔 잃은 스님으로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이젠 불, 보살님 크리스탈 개금으로 사군자, 십장생, 일월도를 새겨 놓고 있습니다.

소승의 목표는 동남아 불상을 관음전 삼보 전시관에 전시하는데 있으며 임종 그날까지 단 한분의 불상을 수집하는데 일념을 다하고 임종 시 무일푼으로 세상과 하직 하겠습니다.
관음전 삼보전시관은 초지일관 수행을 통하여 동남아 각국 불, 보살님을 찾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소승이 불사를 하지 않으면 불원사에 계신 불, 보살님이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기에 관음전 삼보전시관 후원을 불자님께 호소 드립니다.
그리고 기원전, 진나라, 송나라, 명나라, 청국시대의 희귀불상 수집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무리로서 전국 불자님들의 동참과 호소합니다.
관음전 삼보전시관에 불, 보살님을 정좌케 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관음전 불사 후원 및 고 불상 불, 보살님을 모실 수 있는 후원금을 접수하고 있사오니 소승은 마음을 빌어 청 하옵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서 윗사람을 공경하고 동기간에 우애하며 부부간에 화합하고 자손에게 사랑받고 육신은 병마, 액운 없이 건강장수를 기원드립니다.
불, 보살님의 가피로서 날마다 좋은날 되소서.

대한불교 조동종 불원사 **宣惠 행만** 합장

포항 불원사 성취관을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카페 https://cafe.naver.com/bulwonsa) 성불하십시오.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북면 기북로354번길 7-7

◈ 본 사찰은 약사여래불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원력을 행하시고 계시는 원력도량입니다. ◈

※ 후원 접수처 : (054)249 -1023 휴대폰 : 010-4504-0174 ※ 새마을금고 : 9003-2169-3217-0 예금주 신재훈

참선 경계 맛본 유일한 중국 황제



현견 스님의
중국 선 문화기행 Ⅱ

㉔ 청나라 옹정제와 선종



그림 · 강병호

청나라 세종 옹정 황제(1678~1735)는 성은 애신각라(愛新覺羅)이고 이름은 윤진(胤禛)이며, 만주족으로 청 왕조의 제3대 황제이다. 44세에 보위에 올랐고 13년을 재임했으며, 강희 황제의 네 번째 아들로서 건륭 황제의 생부이기도 하다. 그는 스스로를 '종사(宗師)'라 자처하면서, 원명거사(圓明居士), 파진거사(破塵居士)라는 두 개의 법호를 가지기도 했다. 〈어선어록(禦選語錄)〉이라는 책을 편집 간행해서 전국에 유통하기도 했다. 그는 일생 동안 불교를 신봉했고, 특히 선종에 관심이 많았으며, 태자 시절 몽골 스님인 장가호도극도(章嘉呼圖克圖)로부터 좌선을 지도받기도 했다. 중국 역사에서 치적을 이룬 몇 안 되는 군주 중의 한 사람이다. 즉 청조의 강희(康熙) · 옹정(雍正) · 건륭(乾隆) 3대의 성세(盛世)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 3대의 성세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옹정제의 각 방면에서 피나는 노력의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청 왕조가 선종의 심법(心法)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특히 옹정제는 스스로 좌선을 할 만큼 선법에 관심이 많았다. 그는 장가호도극도(章嘉呼圖克圖) 스님으로부터 수증(修證)에 대한 가르침과 인증을 받기도 했다. 장가호도극도 스님은 강희 황제로부터 관정보혜광자대국사(灌頂普慧廣慈大國師)라는 명칭을 하사받기도 했다. 옹정 황제도 스님을 칭찬하기를 "이는 진실로 다시 온 사람(환생자)이며, 실로 대 선지식이다. 계행이 청정하고 순수하며, 원통무애하고 티베트 몽골 및 중국 이외의 나라에서도 귀의하는 바이며, 많은 승속이 공경하고 우러러서 사모한다"고 했다. 그는 장가호도극도 스님의 지도하에서 2일을 연속적으로 좌선을 하고 나서 말하기를 "곧 본래를 통달하니, 비로소 오직 이 하나의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 그는 후에 다시 장가호도극도 스님의 지도로 좌선을 해서 마침내 스님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고 전해지며, 중국 역사에서 진정으로 실참해서 참선의 경계를 맛본 유일한 황제이기도 하다. 옹정제는 유년시절부터 불전을 열람하는 것을 좋아했고, 널리 선승들과 교류를 하였으며 불교의 이치에 대해서도 깊이 통달을 했다고 한다.

옹정 황제는 보위에 오른 후에도 틈이 있을 때마다, 경전 및 조사어록을 열독했을 뿐만 아니라 가깝게는 종실 친척, 멀게는 승려와 도사에게까지 본인이 집적적으로 경전 강의와 전법을 하는데 시간을 할애했다고 한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는 마침내 〈옹정어선어록(雍正禦選語錄)〉을 출간했으며, 총 19권으로 이루어졌다. 이 책에서 중요한 선종 선사 20명의 어록 및 500명의 선승과 거사의 선어를 선별해서 편집했으며, 동시에 본인이 저술한 선어를 수록하기도 했다. 또 승조(僧肇)의 조론(肇論) 보장론(寶藏論) 등의 논문을 수록했는데, 승조는 사실 선종사에서 선사의 반열에 두지 않는다. 그러나 옹정제는 승조대사를 선사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그의 관점은 "선명(深明)한 종지가 아니면, 어떻게 이같이 요달해서 알 수가 있겠는가?"라고 감탄하면서, 승조대사를 대지원정성승(大智圓正聖僧)이라고 봉하였으며, 또 중국 도교사에 매우 중요한 인물인 자양진인(紫陽真人) 장평숙(張平叔)을 대자원통선선(大慈圓通禪仙)으로 봉하기도 했다. 이외도 정토종의 운서 주굉의 〈운서법휘(雲棲法彙)〉에 대해서 평가하기도 했는데, 즉 "정토법문은 비록 선종과는 교섭이 없는 것 같지만, 염불은 참선을 장애하지 않는다. 과연 그 깊은 성해(性海)를 통달한 선인(禪人)은 정업(淨業)을 겸수할 수 있다. 어찌 수희진여(隨喜真如)하는 것이 묘과를 원증(圓證)하지 않는다고 하겠는가"라고 했다. 그는 이같이 불법 및 도교 선종에 관해 해석하고 평가했는데, 이 책은 불교를 연구하고자 하는 후래 사람들에게 많은 논쟁의 여지를 남겼다고 볼 수 있다.

〈어선어록〉 간행, 일생불교 신봉
승조대사 선사의 반열에 올려놔
선종 내부 간섭도, 원오 지지해

중국 역사에서 보면 적지 않은 승려들이 정사에 관여한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 특히 황제 최측근에서 정치에 훈수를 두면서 황제의 신임을 받았던 승려 또한 적지 않다. 옹정제는 비교적 불교를 깊이 신봉하였으며, 특히 황제에 오르기 전부터 적지 않은 승려들과 교류를 하였고, 일설에 의하면 옹정제의 일생에서 세 명의 스님과 매우 중요한 친분관계를 유지했다고 한다. 이들은 옹정제에게 불교의 가르침은 물론이거니와 정치적인 도움을 주기도 했으며, 이들을 궁중에 머물게 해서 수시로 그들을 친견했다. 장로 문각선사(文覺禪師)는 사적으로 매우 친분이 두터웠으며, 그를 국사로 봉해 정치적 고문으로 중용해서 삼엄한 자금성 내에 거주토록 하면서 수시로 정사를 담론하곤 했다. 옹정 11년 문각대사가 70세의 고령으로 옹정제의 명을 받아 강남으로 참배를 떠나게 되었는데, 이때 그 지방의 관리들에게 모두 엎드려서 정례하도록 지시를 했으며, 강남의 총독에게 각별하게 보살피도록 명하면서 제자의 예를 갖추도록 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문각대사의 특수한 신분과 지위 및 그 중요성을 짐작하게 해준다.

이 외에도 정사에 참여했던 대각사(大覺寺) 주지 성음(性音)과 초성화상(超盛和尚)이 있다. 이 두 사람은 옹정제로부터 특별한 신임과 중임을 받았다. 특히 성음 스님에게는 아주 특별한 대우를 하면서 그의 견해 및 감오(感悟)의 경지를 좋아하였고, 둘이서 담론을 할 때, 신하들이 알현을 청해도 자리를 피하게 하지 않고 함께 했다고 한다. 반면에 옹정제보다 나이가 어렸던 초성 스님을 대하는 태도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역도역우(亦徒亦友)의 관계였다고 한다. 그러나 초성 스님의 강설을 들을 때에는 매번 취해서 빠져들었다고 하며 유일한 불학지기(佛學知己)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 세 스님 모두 정치와 연루되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특히 문각선사와 초성 스님은 여류양안(呂留良案)에 연루되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성음도 이들보다는 먼저 죽었지만, 일찍이 구용탈적(九龍奪嫡)건에 연루되어서 편안한 생을 마감하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옹정제는 호법 황제이기도 하다. 특히 승사(僧舍)를 아주 잘 보호했던 황제로서, 그가 재위 시에 서부 청해성 서영부(西寧府)에 대규모의 사원인 단갈이사(丹噶爾寺)가 있었는데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거점이었다. 옹정 원년에 청해성에서 반란이 발생하자, 옹정제는 감숙성 일대의 총독인 연갱요(年羹堯)에게 토벌토록 명령했다. 연갱요는 그곳을 평정하고 나서 단갈이사의 라마들을 쫓아내고 승방 1천5백 칸을 점유해 관병들을 주둔케 하였다. 그러자 그 사원의 승려들이 강력한 항의와 불만을 표출하였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옹정제는 사찰에서 모든 청나라 관병들을 물러가게 하였으며, 이 사건을 일으킨 주범들 모두에게 죄를 물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했다.

옹정 말년에는 대량의 고찰 및 명찰을 중수하거나 보수를 진행하기도 했으며, 강남 형계(荊溪, 현재의 宜興縣)의 숭은사(崇恩寺)는 본래 옥림 통수(玉林 通琇)가 주석하면서 전법을 펼쳤던 장소이기도 하다. 이곳을 중수하도록 명령하였으며, 공금을 지출해서 절강성의 보타산(普陀山) 관음성지인 보제사(普濟寺)와 법우사(法雨寺) 등을 수리하게 하면서 친히 감독관을 보내서 불사를 돕도록 명령하기도 했다. 이렇게 황제가 친히 나서서 불사를 관장했던 적은 중국 역사에서 그리 흔치 않은 광경이다.

옹정제는 선종의 내부에 대해서도 간섭을 했다. 중국 선종은 명 · 청대에 이르러서 임제종과 조동종만이 번성했는데, 이 중에서도 임제종이 비교적 우세하였다. 임제종에는 당시 유명한 선사로서 소암 덕보(笑岩 德寶) 밀운 원오(密雲 圓悟) 한월 법장(漢月 法藏) 등이 있다. 이때에 옹정제는 선승들의 부패가 엄중하다는 핑계로 원오와 법장의 논쟁을 간섭했는데, 원오를 지지하는 바람에 법장파는 큰 타격을 받았다. 옹정제가 지은 〈어제간마변이록(禦制揀魔辨異錄)〉은 비록 원오와 법장간의 논쟁에 대한 논술이지만, 사실은 법장파를 비판한 책이다.

밀운 원오(密雲 圓悟)는 속성은 장(蔣)이고 강소성 의흥(宜興) 사람이며 30세에 처를 버리고 출가했다. 40세에 한유 정전(幻有 正傳)을 친견하고 46세에 법을 전수받고, 50세가 지나서 개당설법을 했다. 그 후 그는 26년 동안 전법을 하였고, 세수 77세에 입적했다. 〈밀운선사어록(密雲禪師語錄)〉, 〈천동어록(天童語錄)〉이 세간에 유전되었다. 한월 법장의 속성은 소(蘇)이고, 강소성 무석(無錫) 사람이다. 37세에 구족계를 받았고, 40세에 오도했다고 하며 54세에 개당설법을 했다고 전해진다. 한월 법장이 비록 밀운 원오를 참배하고 그의 문하에서 수학했지만, 관점에 차이로 도리어 밀운 원오를 공격하면서 장기간 논쟁을 이어갔다. 마침내 옹정제의 간섭으로 법장파는 매우 빠른 속도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다행이 그가 지은 〈삼봉화상어록(三峰和尚語錄)〉, 오종원(五宗原) 그의 제자인 홍인(弘忍)이 지은 〈오종구(五宗救)〉가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어서 당시의 두 파간의 긴박했던 상황을 엿볼 수가 있다.

사실 이 두 파간 분쟁의 쟁점이 된 원인은 그리 특별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선법에 대한 관념과 관점 및 방법론의 차이점 때문이었다. 그러나 옹정제는 〈간마변이록〉에서 원오대사는 스스로 조계정맥을 얻었다고 하면서 "그 언구기용(言句機用)은 오직 향상을 제시해서 직지인심을 가리키며, 이에 서쪽에서 온 뜻과 계합한다"고 했고, 법장에 대해서는 "온전히 그 본성에 미해서, 무지한 망설을 하면서, 미친 언어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고 하면서 "진실로 외마(外魔)의 지견"이라고 혹평을 했고, 심지어는 법장의 제자 홍인이 지은 〈오종구(五宗救)〉에 대해서는 "마설로 무궁한 마업을 지어서 썩지 않기를 바란다. 천하 후세에 눈을 갖춘 자가 적어서, 그 해악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사설(邪說)을 조장하고 유행시킨다고 강력한 불만을 표출했다. 심지어는 법장과 그의 문도를 '마인부자(魔忍父子)'라고 하면서, 법장을 마장(魔藏), 홍인을 마인(魔忍)이라고 칭했다. 옹정제는 유지를 내려서 법장 문하의 저작을 모두 훼손시켜 불태워버리라고 명령했다.

옹정제가 비록 불교를 신봉하면서 호불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때로는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따라서 그는 종교조차 정치에 이용한 태생적인 정치가이자 황제였다. 따라서 그는 정치적인 치적도 많지만, 반면에 정치적으로 많은 살생을 범한 군주이기도 하다 즉 살공신(殺功臣) 주이기(誅異己) 등 정치사에서 지울 수 없는 피바람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가 이러한 행위를 할 때 불교도의 시각으로 사유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과론적으로 그는 분명 군주의 입장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고 아주 단호하게 망설임 없이 정적을 없애는 과감한 행위를 저질렀다. 〈끝〉

〈동국대 강사〉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10-5282-7292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IBS, 뇌과학자)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왜! 스타급 가수들의 전용마이크가 1억이 넘을까요?

그것은 저급한 시설에도 마이크 하나만 바꿔도 소리가 몇배로 고급스럽기 때문입니다!

▣ 지금은 모두가 어려운 형편! 마이크 하나만 바꿈므로 소리를 몇배의 성능으로 높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백문이불여일견! 전화를 주시면 전국 어디든지 방문 마이크 성능 비교 값 한잔!

▣ 꼭 시설을 원하시는 분은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증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스탠드 포함)완벽시설, 190만원부터~,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무선 2 / 유선 2 /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40평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정가(스탠드 포함) 89만원

1.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지만 동시 사용은 2개
2. 헤드셋 사용 염불시 자유로운 두 손으로 목탁 요령, 북 사용

시중에 없음

▣ 한국사찰 각종 제 필수품으로 가격 ₩58만원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각종 제 전문 무선마이크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 만듬!

가격 ₩ 58만원

불교 나라 '미얀마' 관심 갖는 계기로



최재희의
비긴어게인 미얀마
㉔ 연재를 마감하며

"당신은 인연이 있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나요?"라고 누군가 나에게 묻는다면 "네! 미얀마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미얀마 사람들이 인연을 중시하는 것처럼, 나 또한 인연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약 6년전 미얀마에 방문해서 우연히 만난 NLD 원로의원의 비서분은 나를 보자마자 "전생의 딸 같다. 유학 오면 우리 연구소에서 머물러라"고 스치듯이 이야기했다. 유학을 하면서 나는 그 분의 연구소에서 미얀마인 연구원 언니 2명과 함께 지내고 있다. 미얀마 아버지의 연구소는 한국의 KDI를 본 떠 미얀마에 MDI를 만드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미얀마 양곤대학교 오리엔탈학과에 입학한 후, 입학할 때 나를 받아줬던 학장 교수님이 은퇴를 하셨다. 새로 학장 교수님이 되신 분은 나를 보자

특별한 인연으로 미얀마 향해
'미얀마의 아버지' 등 인연고리
김정숙 영부인 미얀마 방문 땐
행사 수행단 업무 받아 돕기도
불교학부 시절 받았던 도움들
'불연'으로 회향하는 계기 삼아



양곤대 오리엔탈학과 교수님들과 첫 논문을 초록하는 모습. 학장 교수님은 필자를 '한국 딸'이라고 부르며 매일 점심 도시락을 만들어 주셨다.



미얀마 큰 스승 시따구 스님과 함께한 필자.



필자는 '아세안 트레인' 미얀마팀에 유일한 한국인으로 참여했다.

마자 '박사과정 졸업할 때까지 내가 잘 도와주마. 넌 나의 한국 딸이야' 라며 매일 점심 도시락을 만들어 주시고 자신의 연구실에도 자리를 만들어 주셨다. 주말이면 본인의 집에서 맛있는 미얀마 음식을 손수 해 주신다. 한국에 미얀마 고승이신 시따구 스님께서 방문하셨을 때도 정말 자연스럽게 스님을 친견하게 되었다. 수많은 한국인 중에서 스님은 내 머리에 손을 올려 주셨고 많은 미얀마 사람들이 그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려 공유를 했다. 지금도 양곤에 있는 스님 절에 가면 '시따구 스님이랑 사진 찍은 한국 여자애 맞죠?' 라며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들을 간혹 만나곤 한다.

나의 이야기를 들은 한국 사람들은 "혹시 부모님께서 미얀마에서 사업하세요?"라고 물어본다. 나는 빙그레 웃으며 "저희 부모님은 미얀마 근처도 못 가 보셨어요"라고 대답한다. 몇 해 동안 미얀마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인연의 힘을 느꼈다. 양곤대학교에 내가 입학하기 전 꽤 많은 한국인들이 박사과정, 석사과정에 입학하려고 노력했다고 들었다. 과연 그분들이 나보다 실력이 없었을까? 나보다 뛰어나면 뛰어났지 모자라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적이 없다. 다만 나는 내가 가진 미얀마와의 인연, 미얀마 사람들과의 인연이 더 강력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현재 포스코 청암재단의 아시아지역전문가 양성 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하고 있다. 신기하게도 내가 장학금을 수령한 그 다음 해부터 포스코의 정책이 바뀌어 새로운 장학생은 뽑지 않는다.

2019년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미얀마가 민주화된 이 후 미얀마에 첫 방문을 했다. 박사과정 학생이었지만, 운이 좋게도 국빈방문 행사 중 김정숙 여사님의 양곤외대 행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미얀마 유학을 언제 갈지도 모르는 20대 초반부터 아득하게 꿈꾸던 '유학생 시절 국빈방문 수행하기' 원력이 이루어졌다. 이 원력 또한 다양한 인연 조합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나보다 미얀마에 더 빨리 와서 자리 잡았지만 국빈방문 행사에 초청되지 못했던 사람들의 웃음 섞인 질투도 많이 받았다.

아직까지도 어떤 사람들은 "미얀마가 경제적으로 가난한데, 가난한 이유가 불교 국가여서 그런 것 같다. 설명해 봐라"며 공격적인 질문을 한다. 반박할 이유는 많지만, 부처님께서도 침묵하신 열네가지 무의미한 질문인 십사무기(十四無記)의 가르침을 생각하며 미소를 머금어 보일 뿐이다. "미얀마는 아직 선진국이 아니어서 한국 관련된 사업을 하면 성공하지 않을까?" 혹은 "인건비가 저렴해서 진출해볼까?" "기회의 땅이라고 하니 사업을 해볼까?"라며 미얀마의 '진출'에만 목적을 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이런 이유를 가지고 미얀마에서 사업을 시작하면 또 다른 봉변에 부딪친다. "미얀마 사람들 수준이 많이 낮아서 내 지시를 못 알아듣는 것 같다" "전화를 안 받는다"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안 한다" 등 미얀마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고 가치관과 문화를 알지 못 해 미얀마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봤다.

혹은 '생활이 너무 불교에 젖어 있고 스님만 보면 땅바닥에 주저 앉기 바쁘다' 고 악평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 만난다. "미얀마에 탑이 많아서 불교의 나라라고 하는 거 아니야?" "미얀마를 연구하고 싶은데 왜 불교를 공부해?"라는 다소 순수한 질문들을 처음에 마주했을 때는 '미얀마의 일상생활부터 역사까지 불교 아닌 것이 없는데, 왜 저렇게 질문하지?' 라고 생각한 적도 많았다.

어쩌면 나에게 당연한 것들이 타인에게는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중에 가서 미얀마에 관련된 책을 찾아봐도, 신문을 검색해도 '위빠사나 명상' '미얀마 바간 여행기' 등이 주로였다. 현재 살아가고 있는 미얀마 사람들의 삶 속에서 불교가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발견할 수 없었다.

미얀마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미얀마의 특수한 사정과 문화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글을 쓰고 싶다는 원력이 있었다. 유학을 하면서 한국에 미얀마 관련된 일로 잠깐 입국했던 적이 있었다. 그때 우연히 한번 만난 현대불교신문 기자님과 인연으로 '최재희의 비긴어게인 미얀마' 칼럼을 쓰게 되었다.

한국에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라는 말이 있다. 미얀마에는 이와 비슷하게 'Yay Sat Shi Yin Pyan Sone Mae(예싹씨인뺀쏭매 인연이 있으면 다시 만날 거예요)' 'Kan Ma Kone Yin Pyan Sone Mae(깐마꼰인뺀쏭매 운명이 안 끊어지면 다시 만날 거예요)' 라는 말을 자주한다. 미얀마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계속 잘해주고 싶은 사람이거나 계속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 인연인가봐. 인연이 있어.' 라는 말로 특별한 기분을 전한다. 어쩌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미얀마' 라는 실타래는 '나' 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국과 미얀마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종종 '문화를 알면 그 나라를 알 수 있다' 는 말을 한다. 미얀마의 찬란했던 불교문화의 숨결은 과거를 관통해서 현재까지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 아침마다 탁발하는 스님들께 아침밥을 보시하고, 집 안에 작은 법당을 계층의 상관없이 모두가 소유하며, 존경하는 사람에게는 스님들과 같이 절로써 예를 표현한다.

남자라면 누구든 한 번씩 출가하며, 남녀노소 불문하고 일생에 한 번은 절에서 명상 안거를 보낸다. 한 달에 한 번 보름마다 불교와 관련된 행사를 국가적으로 진행하며, 새해가 되는 4월에는 액운을 씻기 위해 서로에게 물을 뿌리며 부처님께 새해 소망을 발원한다.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외교를 하기 위해 만나는 미얀마의 정치인 · 사업가 · 소비자 모두 미얀마 국민으로서 그들의 심안에는 불교적 가치관이 생생하게 살아 숨 쉬고 있다.

'최재희의 비긴어게인 미얀마' 라는 글을 통해 '현대불교신문' 독자 분들에게 '미얀마' 라는 인연의 작은 줄을 잇는 계기가 돼 기뻤다. 첫 연재글을 쓰던 날, '동국대학교 불교학부 시절 받은 장학금의 작은 회향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자' 라는 원력을 세웠다. 당시 스님들과 불자분들의 정성이 모인 장학금으로 미얀마 양곤대학교에 갈 수 있는 징검다리를 만들면서 걸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부족한 글이지만, 늘 정성스럽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제 글을 담아 주신 현대불교신문 관계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마지막으로 독자 여러분들에게 자비를 보낸다. 그리고 우리의 인연에 감사하며, Yay Sat Shi Yin Pyan Sone Mae(예싹씨인뺀쏭매 인연이 있으면 다시 만날 거예요.) 〈끝〉

〈양곤대 박사과정〉

백의 관세음보살 신묘장구대다라니
천수 감로수
백의 관세음보살 신묘장구대다라니 기도효험 천수 감로수를
꼭 필요한 분에게 무료로 보시합니다.



천수 감로수를 개발한 지혜스님은 허약체질로 태어나 평생을 만성피로에 허덕이고 소화기능도 약해 잘 체하고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했으며 잦은 위통으로 음식 먹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수년간 병원과 한의원을 다녔어도 고통의 위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일상생활에 매우 지장이 될 정도로 위염에 많은 고생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천수 감로수를 꾸준히 복용하고부터 만성 위통과 위염이 사라지고 현재 나이가 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더 가벼워져 활기찬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체에서 위가 안 좋으면 몸의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를 못하여 모든 장기가 제 기능을 발휘 하지 못합니다. 지혜스님의 기도와 정성으로 만든 천수 감로수는 위장병, 아토피,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장청소 등 모든 장기 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위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복용하고 효험을 본 천수 감로수를 조심스레 추천 드립니다. 탄산약수로 기도와 정성으로 천수 감로수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불자분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 하려 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전화 주십시오.

연화정사 신도 합장

연화정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우신새터길 77호 상담전화 010-7455-6742 (지혜스님)

부처님의 마음을 빗는 불상 불단 조성 전문업체
한국불상조성원
상담문의 010-3665-6696

정성과 신뢰로 짓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에서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통불상제작 방법을 전수받아 한국 불상의 전통과 맥을 이어가고 색바램없이 영구적으로 모실 수 있는 기술적 자질을 보유하여 다양한 불상을 조성하며 전통적인 표현양식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상판매 뿐만 아니라 사찰에 관한 모든 필요한 것을 일체 컨설팅과 자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 대표 이 인 규 합장

불단, 수미단 | 닫집, 운각 | 특수불, 동불, 목불 | 단청개금, 순금개금 | 도금, FRP, 수지
소불, 대불, 모든 탱화 | 위패제작 | 건 축 | 맞춤 조성 가능 | 사찰 관련 컨설팅 및 자문

TEL 031-536-6696 | FAX 0504-398-6696

겉에 입은 옷만 보는 눈먼 안목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㊽ 알음알이

"산승이 오늘 법을 쓰는 것은 진실하고 바르게 이루어 놓기도 하고 부수어 버리기도 하며 마음대로 신통 변화를 부려 모든 경계에 들어가되 어디서나 아무 일이 없어서 산승의 경계를 바꿀 수가 없느니라. 다만 와서 구하는 자가 있으면 나는 곧 그를 알아보나 그는 나를 알지 못한다. 내가 몇 가지 옷을 입으면 학인은 옷을 보고 알음알이를 내어 한 결같이 나의 말에 말려들고 마느니라. 괴롭도다. 눈멀어 안목 없는 머리 깎은 사람들이 내가 입은 옷을 붙잡고 푸르다, 노랗다, 붉다, 희다, 색깔만 인식하느니라. 내가 옷을 벗어버리고 청정한 법신의 경계로 들어가면 학인은 한 번 보고 기뻐하다가 내가 또 옷을 벗어버리면 학인은 정신을 잃어버리고 망연히 미친 듯이 달아나며 내가 옷을 입지 않았다고 하느니라. 내가 곧 그에게 말하되 '내가 옷을 입기도 하고 벗기도 하는 사람인 줄 아는가?' 라고 하면 그때야 홀연히 고개를 돌려 나를 알아보느니라."

법을 쓰는 것은 무위진인(無位眞人)의 마음을 쓰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을 진여의 작용이라고 보는 관점이 있다.

진여가 바로 각(覺)의 본체인 마음이다. '이루어 놓기도 하고 부수어 버리기도 한다' 는 말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사활자재(死活自在)한 경지를 나타내는 말이다. '왕이 칼을 잡은 것과 같다(如王秉劍)' 고 비유한 말이 어록에도 가끔 나온다.

깨달은 이는 깨닫지 못한 사람의 얕은 경계를 알아보지만 깨닫지 못한 이는 깨달은 이의 깊은 경계를 알아볼 수 없다. 그래서 "도가 같아야 바야흐로 알아본다(同道方知)"고 하였다. 〈법성게〉에도 "증득한 지혜라야 알 바요 나머지 경계가 아니다(證智所知非餘境)"고 하였다.

수행의 내공(內工)이란 깊이 감춰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겉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다. 도(道)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련된 기교에 있는 것도 아니다. 부처님이 비록 일대시교(一代時教)인 8만4천 법문을 설했다 하지만 실법(實法)이 아닌 방편설이라 한다. 그래서 교(教)의 말을 곡담(曲談)이라 하고 선(禪)의 말을 직설(直說)이라 말하기도 했다.

규봉(圭峰)은 부처님의 말씀은 활등과 같고 조사(祖師)의 말씀은 활줄과 같다고 비유해 말하였다. 선수행에 있어서는 말에 놀아나는 것을 금기시킨다. 이론적 논리를 대입하려는 것을 사구(死句), 곧 죽은 말이라 하고 실참(實參)을 하는 공안을 두고 활구(活句), 곧 살아 있는 말이라 하였다. 깨달은 경지를 활구소식(活句消息)이라 한다.

눈먼 안목 없는 사람들이 겉에 입은 옷의 색깔만 보고 알음알이를 낸다고 개탄을 한 임제는 누가 옷을 입고 누가 옷을 벗느냐 묻고, 입고 벗는 주인을 바로 알라 다그친다. 선의 법문은 모두 ' 주인공 ' 찾는 법문이다.

사람의 몸을 옷이라고 말한 선사(禪師)도 있었다. 나고 죽는 생사를 옷을 입고 벗는 것이라고 설한 임종게를 남긴 고려 때 자진 원오(慈眞 圓悟, 1215~1286)의 송(頌)이 있다.

"내일 갈 테니 많은 말 않겠노라. 태어나는 것은 옷을 입는 것이오, 죽는 것은 옷을 벗는 것이다.(明將行矣 不欲多語 生也如着裙 死也如脫裾)"

또 앉은 채로 돌아가는 것을 좌탈(坐脫)이라고 했는데 이 말에도 '벗는다' 는 뜻이 있다. 누워서 죽건, 앉아서 죽건, 서서 죽건, 죽는데 무슨 자세가 중요하냐고 말할 수 있지만, 생사를 초탈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안으로 수행한 힘이 없으면 좌탈입망(坐脫立亡)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오대등은봉(五臺鄧隱峰)은 거꾸로 물구나무를 서서 입적하였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생사의 근본 문제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단도직입적으로 전해주는 것이 아닐까. 선은 말의 논리나 철학적 사유를 떠나 있으면서도 교리나 철학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준다. 그러면서도 가장 평범한 말로 옷 입고 밥 먹는(著衣喫飯) 도리라고 말하기도 한다.

〈무문관(無門關)〉 제 7칙에 조주세발(趙州洗鉢) 이야기가 있다. 총림에 처음 온 스님이 조주에게 인사를 드리고 잘 지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다. 조주가 물었다

"아침에 죽 먹었는가?" "예" "그러면 발우를 씻게나" 〈끝〉

〈반야불교연구원장〉

"비둘기소리"라 한 것 왜 비방일까?



세상 속 경전읽기

㊽ 반문문자성(反聞聞自性)

첫눈 치고는 꽤 많은 눈이 와, 발등이 묻힐 정도로 쌓여있다. 오늘은 파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밝은 태양이 빛난다. 거실에서 유리창을 뚫는 따뜻한 햇볕을 받으며 눈 덮인 뜰을 바라본다. 눈송이 꽃을 손에 든 솔잎도, 나목의 하늘 끝 작은 가지도 미동(微動)조차 없다. 작은 바위에 정좌한 석불은 어깨에 백설가사를 걸친 채 삼매에 잠겨있다. 이따금 한 포기 억새의 보일 듯 말 듯 하늘거리는 손짓은 삼매를 깨지 않으려는 미풍의 조심스러움이다. 흔들리지 않는 솔가지에서 간혹 눈송이 일부가 수직으로 땅으로 내려앉는 것은 그 미풍 탓일까.

보자 현각(賢慈 玄覺) 도사(導師) 행언(行言)은 푸젠(福建)성 남동부 취안저우(泉州) 진장(晋江) 사람으로 법안 문익(法眼 文益)의 법사(法嗣, 법통을 이은 후계자)이다. 당 멸망 후, 5대 10국(五代十國) 중의 하나인 남당(南唐, 937~975)의 군주가 금릉(金陵, 현 중국 장쑤성 성도 난징)에 보자원(報慈院)을 세워 행언을 주지로 모셨다. 행언은 여기에 머물며 크게 선도(禪道)를 천명하였다.

"현각 도사가 비둘기 우는 소리를 듣고 (한) 스님에게 물었다.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한 스님: '집비둘기[鵓鴿] 소리입니다.'

현각 도사: '무간지옥에 떨어질 업을 짓지 않으려면 여래의 정법[正法輪]을 비방하지 말라.' "

이 짧은 선화는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 27권, 〈연등회요(聯燈會要)〉 27권에도 나온다. 현각이 비둘기 우는 소리를 듣고, 곁의 스님에게 무슨 소리냐고 묻는다. 비둘기 소리라고 답하자, 현각은 '불법(佛法)을 비방 말라' 고 하였다. 비둘기 소리를 비둘기 소리라 하는데 왜 정법(正法) 비방일까?

〈능엄경(楞嚴經)〉에 깨닫는 법으로, 중생 근기에 따른 25원통(圓通, 두루 원만해, 막힘없이 융통함)이 있다. 능엄회상의 보살 · 성문들이 각자 택한 행법을 말한 것이 18계(界)와 7대(七大, 地 · 水 · 火 · 風 · 空 · 見 · 識]를 통해 들어가는 25원통이다.

여래께서 문수보살에게 '아난과 무불시대 중생이 보살승(菩薩乘)에 들어가 무상도(無上道)를 구할 때, 25성도(成道) 방편 중 쉽게 성취할 방편' 을 묻자, 문수는 '관음보살의 이근원통(耳根圓通, 소리, 청각을 통해 진리를 깨닫는 행)이 최고의 수행법' 이라고 게송으로 답한다.

"대중 및 아난이여 / 여러분의 전도(顚倒)된 문기(聞機, 듣는 기관) 돌이켜 / 듣는 성품 되짚어 들으면 / (그) 성품이 무상도(無上道) 이루리니 / 원통(圓通)이란 실로 이러니라."

여섯 감관[六根]이 6진(塵)을 만나 6식(識)을 낸다. 번뇌는 6근(根)이 6진을 좇아 밖으로 흘러나갈 때 생긴다. 번뇌가 다하려면, 6근의 흐름을 거슬러 안으로 거둬들여야 한다.

6근(根)은 일정명(一精明, 한 밝은 정신, 自性)이 여섯 갈래로 나뉜 것이다. 마치 6각 석등 내 원숭이 한 마리가 이곳저곳에 얼굴 내밀듯이. 6근의 근원은 일정명이고, 6근 모두 흐름을 거슬러 회귀하면 번뇌 없는 일정명[自性]에 이른다.

6근 중 이근(耳根, 聞機)은 자나 깨나 열려 있고, 소리(聲, 動)뿐 아니라 무성(無聲, 靜)도 듣는다. 늘 작용하는 '이근[문기]의 내입이 자성 회귀(反聞聞自性)' 의 첩경이고, 마땅히 불자 최고의 수행이다. 수행자의 이근이 밖에 팔려 있는 것은 '정법을 비방함' 이라 경책 들을 만하다. 〈끝〉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㊾ 깨침의 길 9

유식의 깨침 5단계

〈唯識〉

"집착하지 말자고 마음을 먹는데도, 왜 자꾸만 집착하게 될까요?"

집착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절실하게 느낀 사람들이 간혹 던지는 질문이다. 그들은 '집착하지 말아야지.' 하고 단단히 마음을 잡아보지만, 그 다짐이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모습에 실망하곤 한다. 그러나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법이다. 그동안 집착하면서 살아왔던 에너지가 무의식에 가득 차있는데, 한두 번 마음먹는다고 사라지겠는가. 마치 수십 년 피운 담배를 하루아침에 끊기 힘든 이치와 같다. 집착이 쌓이는 데 들인 시간만큼, 비우는 데도 그 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다.

기독교를 서구 사회에 전파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내가 마음으로 원하는 선(善)을 행하지 않으며, 내가 마음으로 원하지 않는 악(惡)을 행하도다."라는 솔직한 고백을 한다.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 싶은데 정작 행동은 반대로 흐르는 현상, 즉 몸과 마음, 행동과 생각 사이의 넓은 간극은 우리 모두 실존적으로 느끼는 문제다. 불교에서 행하는 명상과 기도, 주문, 참회 등의 수행은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한 실천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이런 수행이 깊어졌을 때 비로소 마음으로 선을 원하면 행동도 선한 방향으로 흐르고, 집착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내면 실제 행동도 그렇게 되는 것이다.

유식에서는 몸과 마음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단계적인 수행을 강조한다. 유식에 의하면 모든 현상은 오직(唯) 마음(識)의 작용일 뿐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마음은 오랫동안 무의식에 쌓인 업의 에너지다. 그 에너지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온갖 편견과 선입견이 작동을 하는 것이다. 유식의 수행은 이러한 편견(識)을 지혜(智)로 바꾸는 실천이다. 이것을 전식득지(轉識得智)라고 하는데, 편견과 미망에서 벗어나 지혜의 눈, 깨침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까지 점차적인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유식에서는 미망에서 벗어나 깨침에 이르는 과정을 다섯 단계(五位)로 설명한다. 첫째로 자량위(資糧位)는 깨침이라는 먼 길을 가기 위해 식량을 비축하는 단계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붓다의 가르침을 믿고(信) 이해하는(解) 일이다. 붓다가 강조한 것처럼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성과 지혜를 통해 이것이 옳은 길인지, 나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고 믿어야 한다. 그래야 자신의 삶을 질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가행위(加行位)는 믿고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 실제로 수행에 힘을 쓰는 단계다. 이런 정진을 통해 세 번째 단계인 통달위(通達位), 즉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번뇌가 소멸되고 어리석음이 지혜로 바뀌는 경지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모든 수행을 마치는 것일까? 유식에서는 공부가 더 필요하다고 한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쌓인 습기(習氣)가 저 깊은 무의식에 남아서 현재의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세한 기운을 제거하기 위한 수행이 계속 되어야 한다. 네 번째인 수습위(修習位)가 그것이다. 이처럼 끊임없는 정진을 이어가면 완전한 지혜를 얻는 다섯 번째 단계인 구경위(究竟位)에 이르게 된다. 몸과 마음, 앎과 삶이 완전히 하나 되는 경지다.

이처럼 유식에서는 점차적이고 단계적인 수행을 강조한다. 그런데 자량위에서 통달위까지 1아승지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수없이 윤회를 반복하면서 무한한 시간 동안 수행해야 도달할 수 있는 경지인 것이다. 아는 대로 살게 되는 구경위(究竟位)까지는 또 다시 2아승지겁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 총 3아승지겁의 시간이 걸리는 셈이다. 그렇다면 현생에서는 이룰 수 없는 꿈이란 말인가.

그러나 이것을 사실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불교에서 겁(劫)이라는 무한한 시간은 한 생각 스쳐 지나는 찰나의 순간이기 때문이다. 〈법성게(法性偈)〉에서도 "무량한 겁이 곧 한 생각(無量遠劫卽一念)"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관건은 얼마나 간절한가에 달려있다. 간절한 마음으로 수행하면 3아승지겁의 시간이 한 순간으로 압축된다는 뜻이다. 그러니 겁을 내고 물러날 필요는 없다. 꿈은 이루어진다. 〈끝〉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중급과정 (6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칭, 관음시식, 구병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개 강 일 : 2021년 1월 26일(화)
◈ 강의일시 :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5시 ~ 6시 30분(90분) 담임교수 원장직강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번길 45(낙원동 243-3) 탑공공원 뒷편 ☎(02)741-0495~6

우울 탈출 비결… 있는 그대로 보는 것

명상書 톺아보기

존 카밧진 등의

‘마음챙김으로 우울을 지나는 법’

〈7〉 우울치료 명상법



지금까지 마음챙김명상으로 우울을 지나는 법을 소개했다. 우울은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는 법이다. 사실 우리의 목표는 우울한 기분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우울이라는 마음의 풍경을 조금 더 견딜 만 하게 지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목표가 아닐까. 지금까지 겨냥하는 지점도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우울의 늪에 자꾸 빠져드는 일을 막는 것이다.

옮긴이가 이 책을 처음 만난 것은 2008년 초다. 서울불교대학원 심신치유학과에 입학하기 전 겨울방학에 교수님의 지도하에 신입생들은 이 책으로 스터디를 했다. 신입생이지만 30~60대까지 풋풋한 새내기의 이미지와는 멀었다. 영어가 어려운 분도 있었지만 나름 열심히 준비해 각자 맡은 부분을 발표했다. 그때가 벌써 10년이 훌쩍 지났다. 당시만 해도 미국에서도 마음챙김에 관한 책이 많이 출간되지 않은 때였다. 지금은 말 그대로 책이 쏟아지고 있다. 이 책은 마음챙김 명상이 우리가 겪는 몸과 마음의 실제적인 문제들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소개한 초기의 저작에 속한다. 미국에서 2007년에 처음 나와 지금까지 40만부 넘게 꾸준히 팔린, 우울증에 관한 베스트셀러다. 우울증의 기제에 관한 과학적 이론과 논리적 설명에, 우울을 겪는 실제 환자들의 사례와 구체적인 수련 지침을 더해 책의 가치를 높였다.

우리는 몸과 마음을 가진 존재다. 그런데 몸과 마음을 가졌기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몸에 병이 나고, 마음에도 병이 생긴다. 병까지는 아니더라도 갖가지 미병(未病) 상태, 골칫거리와 부작용이 나타난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의사를 찾고 약을 복용하며 상담을 받는 등 갖가지 외부적 방법을 동원한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와 다른 차원에서 이 문제들에 접근할 수도 있다. 외부적 해결책이 아닌 내면적 해법으로, 우리의 ㅁ모과 마음이 본래적으로 가진 내면의 치유 자원에 접속하는 것이다. 자기 내면의 치유자원에 접속하는 과정, 이것이 곧 명상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문제의 정도가 심각하면 해결책도 그만큼 강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방석 위에 가만히 앉아 있는 명상은 심각한 우울증에 대한 그다지 강력한 해결책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매우 수동적으로 보이며, 따라서 효과도 미미할 거라고 여긴다.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뭐가 바뀌나’ 하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해결 위주의 행위모드에서 볼 때만 그렇다. 명상은 행위모드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 모드라는 차원으로 이동하는 연습이다. 지금과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는 것은 어쩌면 가장 강력한 접근법일 수 있다. 이 책의 의의는 기존 문제해결 위주의 접근법과 전혀 다른, 존재 모드라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우울의 문제에 접근한다는데 있다.

그렇다고 명상을 하면 우울한 기분이 반드시 당장 마술처럼 싹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명상이 효과를 보려면 책에서 말하듯이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 효과가 있든 없든 일정시간 거기에 온전히 전념할 필요가 있다. 명상을 수행 또는 수련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그것이다. 책의 저자들은 우리가 8주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수련을 좋아하거나 실어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단지 프로그램에 따라 수련한 다음,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라고 권한다. 8주가 종결될 때까지 판단이나 평가를 일시 유보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여느 행위에 임하는 접근 방식과 완전히 다르다.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일을 했을 때 일어나는 결과나 효과를 무의식적으로라도 예측하거나 기대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 점에서 명상은 매우 역설적이다. 특정한 결과나 효과를 예측하거나 기대하지 않은 채 임하라고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명상은 자칫, 무조건 참고 견디는 고행에 가까워지기 쉽다. 이 점에서 옮긴이는 건포도 명상 등 우리가 맨 처음 접하는 수련에서 행위모드와 다른 존재모드의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과연 어떤 경험인지 조금이라도 맛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것은 향후 명상수행을 지속하는데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기대와 예측을 하지 말라는 권고는 명상과정에서 초심과 내려놓음, 받아들임의 태도로 자신의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을 대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이것이 명상에 임하는 바람직한 태도임에 틀림없지만 ‘맛있는’ 수행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 수련을 계속 하는 것도 우리가 가진 동기-행동의 메커니즘에 부합하지 않는다. 처음의 맛있는 수행 경험이 우선 있어야 한다. 그 상태에서 수행을 하되, 그러나 일단 자리에 앉고 부터는 과거의 경험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매번 자리에 앉을 때마다 ‘탁’ 하고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한다. 이번 수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태도로 임해야 한다. 그 것은 실제로도 그렇다. 지난번 수행체험이 이번에도 똑같이 반복되는 경우는 결코 없다. 지난번에 좋은 경험을 했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은 적어도 명상에서는 소용이 없다. 심지어 우리가 쉬는 숨도 바로 이전의 호흡과 지금의 호흡이 완전히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다.

> “우울한 기분 사라지는 현상 명상통한 마술 기대는 금물 단계별로 맛보며 접근해야 일상생활서의 수행 추천해”

이점에서 명상은 수행에 대한 내적, 외적 동기를 필요로 하는 동시에 일단 자리에 앉았다면 모든 선입견과 예상, 기대를 내려놓아야 한다. 이렇게 명상은 스승, 지도자, 책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되 한편으로는 자기 나름의 묘를 찾아야 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우리가 명상을 하는 목적은 힘든 고행을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도 아니고, 신비로운 황홀경과 지극한 열락을 체험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단지 지금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다.

명상은 나의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아는 지혜를 키워 지금 빠져 있는 괴로움, 여기서는 우울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이다.

저렇게 가만히 앉아있는 수행을 통해 뭐가 바뀌나 하는 비관주의 또는 냉소주의와 수행은 어떤 문제든 해결 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여기는 비현실주의 또는 이상주의를 모두 경계해야 한다.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둘 사이의 가운데 길을 걸어가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명상 수행의 길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가야 하는가? 지금 이 순간, 나의 몸과 마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만을 보고 가야 한다. 그렇다면 이 길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마 지금보다 조금 더 괴로움에서 우울에서 벗어난 상태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우울이라는 마음의 풍경을 지혜롭게 지날 수 있다.

참고자료 또한 소개해준다. 소개한 프로그램을 더 심화하고 싶다면 다음의 책들을 참고해보자. 〈8주 마음챙김 워크북〉은 MBCT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한다. 자기성찰 질문과 매주 수련할 마음챙김 수련을 소개하며 자기 향상도를 측정하는 도구와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경험담도 실려있다. 수련 안내 음성도 다운받을 수 있다. 그 밖에 아이튜즈에서 마크 윌리엄스의 ‘우울증의 새로운 심리학’ 이라는 6시간 반짜리 팟캐스트를 들어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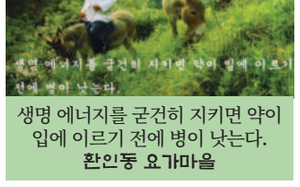
존 카밧진의 〈마음챙김 명상과 자기치유〉는 메사추세츠 의과대학의 MBSR프로그램을 자세히 소개하는 책으로 마음챙김 수련의 입문서로 훌륭하다. 카밧진은 또 〈존 카밧진의 왜 마음챙김 명상인가?〉에서 마음챙김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법을 살핀다. 이 책은 다양한 정식 수련과 일상 수련을 소개한다. 〈온 정신의 회복〉이라는 책에서는 마음챙김 수련을 감각이라는 보다 큰 연결망에 짜 넣는다.

이 책은 감각을 생각과 감정을 보완하는 방식이자 생각과 감정의 균형을 바로잡는 심오하고 비개념적인 앎의 방식으로 간주한다. 마음챙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여러 방법을 탐색하며 우리의 시야와 자아감각을 확장하는 법, 그리고 그렇게 확장된 시야와 자아감각으로 우리가 본래적으로 가진 연민과 지혜, 치유의 능력을 키우는 법을 살핀다. 만약 당신이 자녀양육이라는 도전에 관심이 있다면 그리고 일상의 책임을 다하는 중에 엄격한 마음챙김 수련으로서 부모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카밧진이 아내와 함께 쓴 깨어 있는 자녀양육에 관한 책 〈카밧진 박사의 부모 마음공부〉를 참고하길 추천한다. 〈끝〉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전국 캠핑장 킴핑트레일러(경인 아라뱃길, 가평 자라섬), 대부도 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 등
이동식 주택형 찜질방 제작판매(2인, 4인, 6인용)
정원난방산업 www.garden-heating.com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010-3267-1263

침향 향기나는 초
침 향 초
- 대중이 모일때 가장 적합한 초 -
침향은 예로부터 향료로 피워 극히 귀한 기운을 갖는다고 전해집니다. 침향을 피워 향기를 맡게 되면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법당, 집, 사무실, 기도처 등 다양한 곳에서 침향의 향기와 함께하세요.

식물성 침향초 연꽃칠성촛대 연꽃촛대
밀납PC컵초 크리스탈받침(별도판매) 연꽃 크리스탈 촛대
양초 보시 대행
해광산업 031-333-0242 · 010-5848-0189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22호 | 15 | 전면광고

누구든지 무량수불의 명호를 듣고
지성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이, 부처님의 원력으로 왕생하느니라.



부처님 말씀 읽기 -《불설무량수경》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불 교 용 품 고 가 매 입 전 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허리병 고치는 법 받을분 배울분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 내 몸에 맞는 체조로 허리병 고친다

중풍예방. 디스크. 협착증. 불면증.
성인병 등 각종 질병
한번만 오시면 퇴치 가능
2대째 이어온 운동법 발명 특허 획득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검색
50년 전통 상담
010-3829-7582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입종 동참안내

불교문화정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원, 불교선문화원,
불교명상문화원
(설립 운영하실 분)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교육부 산하 상학 인가)
만대 불교학 대학원
010-5412-8040 법광

수강생모집

* 영혼치료 *
* 주역성명학 *
* 최면마스터 *
창원시 성산구 미래운명해법원
010-6586~8289

★검 색★

GN 손도사
최고 운명정보, 무료검색
문의 : 010-5105-5000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3263-6544
010-5270-8260

• • •
공양주 모십니다.
도심속 사찰
관음사
• • •
010-5736-1835

• • •
행자승 50세
이하, 비구스님
모십니다.
포항 원진사
• • •
010-3517-6099

• • •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 • •
010-8721-2198

돈이 들어오는 건강·행운 비법공개

◈ 치우천왕 빨간속옷 ◈
선물 건강·성공·행운 "특수비법 책"
다음카페 : 치우천왕 정담 검색 농협 352-0796-0696-03 남여:5만원
문의 : 010-4500-8234 (정담)

** 희망소식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 우울증, 공황장애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 되는 병
기공, 퇴마, 천도 미륵사 주지 청원
010-3111-9056

기도의 신

원하는 대로 전수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1-741-0867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질병, 유산낙태, 교통사고,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묘터물찬곳, 조상영가, 승진운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공무원, 불교 무용 배울분
• 출장 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 명리, 구성학, 타로, 조상영가 뽑는법

상담문의 010-4014-8822

약 200만원 목표 난방비 구입을 위한 이웃돕기 동참 안내문

요즈음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병들고 다치고 하여 힘든 스님분들이 있어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우리 관음회 불자님들이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보시공덕으로 만든 침향기력단(식품 침향공진단 녹용30%, 당귀30%, 산수유30%, 침향10%)을 스님들께 100환씩 대중공양으로 드렸는데 15분 스님들께서 30환씩 이웃돕기용으로 내어 주셔서 이것을 선물용 등으로 필요하신 분께 드리며 이웃돕기에 많은 동참을 간곡히 바라옵니다.

(1환 5g, 5천원)상자포장 10환 5만원, 30환 15만원, 50환 25만원

많은 성원을 바라옵니다. 인덕 합장 010-9707-5512

고질적 영가 빙의, 산소탈, 무병 등등 단 한번에 제거하는 방법 전수합니다!!

• 단 한번의 전수로 터득됩니다(제령)
• 천도제때 활용하면 쉽게 천도됩니다(천도)
•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일체 재앙, 질병이 소멸됩니다.
• 저렴한 비용

문의 010-3514-7084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꽃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명리·육효강좌

(연결카페http://cafe.naver.com/baikamsa 백암역리원)

영가반 ○ 초보에서 실천완성
명리·육효학 ○ 초보반 : 명리·육효 기초가 전혀없는 왕초보
○ 실전반 : 명리·육효 기초 완성자

백암역리원 02)597-1101
오시는 곳 : 사당역 8, 9번출구 먹거리골목200M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향(香) 특판 안내 • 능인계향 • 능인라벤더 • 능인로즈마리



능인계향
판매가 : 20,000원

능인계향은 히말라야와 베트남,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구해온 향나무와 꽃 등다섯 가지 재료를 배합하여 만든 향으로 심신 안정과 기혈 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능인라벤터
판매가 : 15,000원

라벤더는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로즈마리
판매가 : 15,000원

로즈마리는 항균, 살균 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전화 010-7415-0803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22호 | 16 | 전면광고

한량없는 오랜 세월에 크나큰 서원 세우시고
나고 죽는 바다를 건너가나니 이것이 진정
부처님의 법이니라.



부처님 말씀 읽기 - 《화엄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시
◎ 대지 : 300평
◎ 건평 : 100평,외
◎ 시내중심,공원옆,주차가
◎ 매가 : 40억

◎ 위치 : 경기도
◎ 대지 : 200평
◎ 건평 : 90평
◎ 공원옆, 주차가
◎ 매가 : 9억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나주 동강면
- 대지 230평(임대)
- 법당 20평. 산신각 10평
- 요사채 2동. 범종각
- 영산강 전망이 좋음
- 가액 : 3500만원

010-7637-125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 대지 194평. 건평 43평
- 법당. 칠성. 산신. 용왕. 나반. 방 친견실. 공양간. 샤워실. 화장실
- 외부시설 : 용왕연못. 탑. 남여화장실 등
- 시설일체. 최고입지요건 갖춘 암자
- 가액 : 2억 3천만원(급양도)
- 사전 전화요망

010-5427-369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지하철 역세권 대도로접3층
- 약 50평, 도시가스, 옥상사용, 주변주차시설양호
- 보증금 500만, 월 45만
- 시설비 1300

010-7337-595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 찰 안 내

-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입
- 건물 : 법당, 산신각, 평수 : 600평
- 가액 : 5억 5천(절충가능)
- 조건: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불상,불화등기타)
- 주변 주차시설 양호함, 도시가스, 상수도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

010-3128-2399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사 찰 안 내

- 위치 : 산청군 단성면 청계리
- 최고의 명당, 백두대간 끝자락, 호수전망 최고, 버스 앞마당까지 진입
- 대지1500평, 개발예정지4000평, 개발된것1500평, 건물 36평 2동, 8평 1동 콘테이너 8평

010-4752-0459
010-4492-3479

토 굴 안 내

- 위치 : 파주시 문산읍
- 대지 : 104평
- 건물 : 30평(법당, 요사채, 9층탑)
- 전세금 : 3천만원
- 시설금 : 3천 5백만원

010-8567-36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서창
- 대지 200평, 자연녹지 약 930평, 건평 120평 3층, 부속건물 약 20평
- 용왕당, 산신각, 넓은주차장
- 경전철 역세권
- 가액 : 22억중 대출 9억

010-4492-3479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지 : 335평
- 대웅전.삼존불.목불.목후불탱화.목조단청12평. 요사채.방3개.목조단청19평. 공양간.방1개.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 금곡면
- 대지 : 405평
- 법당 20평, 산신당5평, 요사, 방5개, 건물5개, 화장실2개, 주차공간 많습니다.
- 가액 : 2억 8천
- 부동산 사절

010-7506-8604

사찰안내 (부동산 절대사절)

- 위치 : 김해, 건물 : 60여평
- 가액 : 37억
- 토지 : 임야(98,100평), (2차선 물고 산속 1km까지 폭 3~4m 포장도로)
- 용도 : 현재사찰, 청소년수련장, 주간 요양보호센터, 요양원, 산림욕장, 버섯 약초재배, 수목장등

- 위치 : 경주, 대지 250여평
- 가액 : 3억 1천
- 건물 : 법당 30여평 1동, 요사채 2동 (2층및 1층), 종무소 1동
- 편의 : 버스정거장 도보 3분, 동대병원 차로 10분, 2차선에서 200m, 민가 4채 끝자락의 산 밑, 정남향, 마르지않는 1급 청정수, 수도 有

특기 : 김해 물건 매입시, 경주 물건은 기부함(단, 법인체에 한함)

010-5460-650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 2층 40평
- 보증금 1천만원
- 월세 50만원
- 시설금 1천 5백만원
- 시설완비

010-8567-3667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 땅값만 받습니다
- 총 530평, 현재 성업 중
- 법당, 요사채, 공양간, 휴게실, 삼층석탑, 석등 등, 부산 울산간 지하철 역과 5분거리
- 가액 : 6억 2천만원, 스님 직접

010-2702-030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동면
- 1층 : 93.3725㎡(방음시공)
- 법당, 방1, 공양실
- 보증금 1000만 / 월 61만
- 권리금 2800만원

010-8752-9477
010-9459-9477

사 찰 안 내

- 서울 구로구 고척2동
- 작은법당(반지하)
- 혼자 기도하고 상담하기엔 안성맞춤
- 보증금2백, 월세15만 권리금3백

010-2204-8375

포 교 원 할 분

- 서울 강서 화곡동 소재
- 2층건물에 2층, 20평, 정남향코너 시장옆
- 보증금 2백, 월 40
- 권리금, 부가세 없음
- 건물주가 협조함

010-5381-141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백병길 171) 대웅사
- 토지 : 5,830평(종교용지 1,700평, 산168-2번지 4,130평)
- 건물 : 대웅전1동, 요사채(1,2층)1동, 기도방1동(납골당용)
- 특징 : 백병산 중턱의 남한강을 바라보는 전망좋은 기도사찰
- 입주조건 : 매수 또는 매수조건부 장기임대(매수대금 분활상환가능)
- 가액 : 현장답사 후 협의결정.

010-4225-0012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불교조계종대학림 02)511-1080

불교조계종(총무원) Tel 02)511-2026~7 | Fax 02)511-2028

세종시 상가안내

◈ 사찰과 교환도 가능합니다 ◈
정부청사앞 인기 급상승자리

7층(E/V有) 분양138.6㎡
가액 6억(절충가)
융자1억8500, 실가액4억
현재 레스토랑 운영중
(보2천-월138임대중 23년만기)

업종변경가능·임대업최적·투자가치최상급
시세대비저렴함·주인 직거래

010-6892-3999

◈ 사암등록 및 입종안내 ◈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각1통
- 승적원부 및 증빙서류(총무부 비치)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사진 6매(장삼, 대가사수함)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 제반서류 총무부 비치

T. 033-532-1773 / F. 033-532-1774 불교대승 조계종 총무원

무료 灸쑥뜸 수행정진하는 사부대중님께 쑥뜸공양 올립합니다.
장소 : 강원동해 향운암 상담 : 010-2873-3446

불자의 공지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장(지사명)	연락처
손문철 (대구지사)	T 053-768-8008 H 010-2813-8008
이도경 (부산지사)	T 051-405-9402 H 010-5640-8883
양행선 (광주전남지사)	T 062-512-5003 H 010-2629-1508
조동제 (전북지사)	T 063-910-8977 H 010-8642-7733
성낙두 (경남지사)	T 051-512-1761 H 010-3860-7008
박영애 (영주지국)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0mm) 판매가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행 스님

마음으로 딱 쥐고 있지 말고 하루살이로 그냥 찰나찰나 놓고 가라

지난 호에 이어서

그리고 한마디 더 해야겠군요. 예전부터 천주교에서나 불교의 스님네들이 묵언을 많이 하고 갑니다. 3년을 하기도 하고 1년을 하기도 하고 한 철을 하기도 하고 몇 달을 묵언하기도 합니다. 근데 나는 위에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말입니다, 묵언이라는 게 있으면 묵언 아닌 게 붙습니다. 우리가 찰나찰나 시공을 초월해서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죠. 우리가 발을 떼고 올 때에 짊어지지도 않고 또는 거기에 애착도 없이 그냥 그대로 걸어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을 하는 것도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말을 했어도 함이 없고 아니 했어도 아니 한 게 없고 해도 한 게 없는데, 묵언을 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또 거기에 걸리는 거죠. 모두가 묵언을 한다는 데서 걸리고 안 한다는 데서 걸리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 내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가 고정되지 않고 찰나찰나에 그 모두가 나투면서 화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절대로 한 것이 없죠.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해도 내가 혼자 한 게 없고 내가 한 게 없죠. 하나도 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묵언이라는 언어가 붙지 않는 자리죠.

그러니 모두가 그 도리를 알려면 그저 딱 따구리가 나무통 뚫듯이 그냥 무조건, 무조건 해야죠. '있느냐 없느냐, 아리송하다, 못 믿는다, 이걸 더 캐야겠다' 이런 게 하나도 없이, 어린애가 아무 걱정도 없이 걸음마 배우듯 말입니다. 어린애가 넘어질까 봐, 낭떠러지에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발을 못 뗍니까? 걸음마 배우는 애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발을 떼어 놓기만 한단 말입니다. 애들이니까 뒤에 보호자가 있거든요. 보호자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고 자기는 어린애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발을 떼어 놓듯 해야 된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내가 공부할 당시에, 사실 공부라고 할 것은 없죠, 생활이 공부니까. 6·25때 강을 끼고 싸우는 걸 봐서 그런지 그걸로다가 비유해서 스크린처럼 나오는데 말입니다, 어느 때인지 강을 사이에다 두고선 이쪽 군인하고 저쪽 군인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이쪽 저쪽이 싸우면서 죽이는 것을 보면서 '어유! 부처님 한마음인데 어떻게 싸우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순간적인 생각에 그냥 그것이 모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둥그며니 나 하나만 서 있는데 내가 얼마나 조그맣던지, 요만한 게 그래도 행전은 치고, 하하하, 키 긴 거 하나를 질질질질 끌고서 그냥 혼자 거길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어, 그렇구나! 바로 싸운다, 싸우지 않는다 하는 양면이 없는 자리구나.' 이런 거를 생각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양면이 없는 자리, 즉 양면이 있으니까 그 가운데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저 소켓에 끼우기만 하면 그냥 불이 들어올 뿐이죠, 네? 그래서 우리들 공부하는 작업이 그 소켓에 끼우는 작업이에요. 둘이 아니게 그 소켓에 맞게끔 그냥 무조건 믿고 그냥 끼울 수 있는 그 마음이 문제거든요. 그러면 불은 저절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 마음 한마음 뿌리, 주인공에 맡겨 놓으면 그냥 타 버리는 거와 같아요. 타 버리는 거와 같고 용광로에 넣어서 녹아 버리는 거와 같고, 모두가요.

그러니까 내가 업이 있네, 무슨 번뇌 망상이 일어나네,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요. 번뇌 망상이 공부할 수 있는 재료요, 애고가 공부를 크게 할 수 있는 재료니까요. 우리 모두가 '어휴, 내가 죄를 얼마나 지었기에 이렇게 고생을 하나.' 이렇게 한탄하지 마시고 '이렇게 고가 닥치는 것이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재료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아주 편안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하실 거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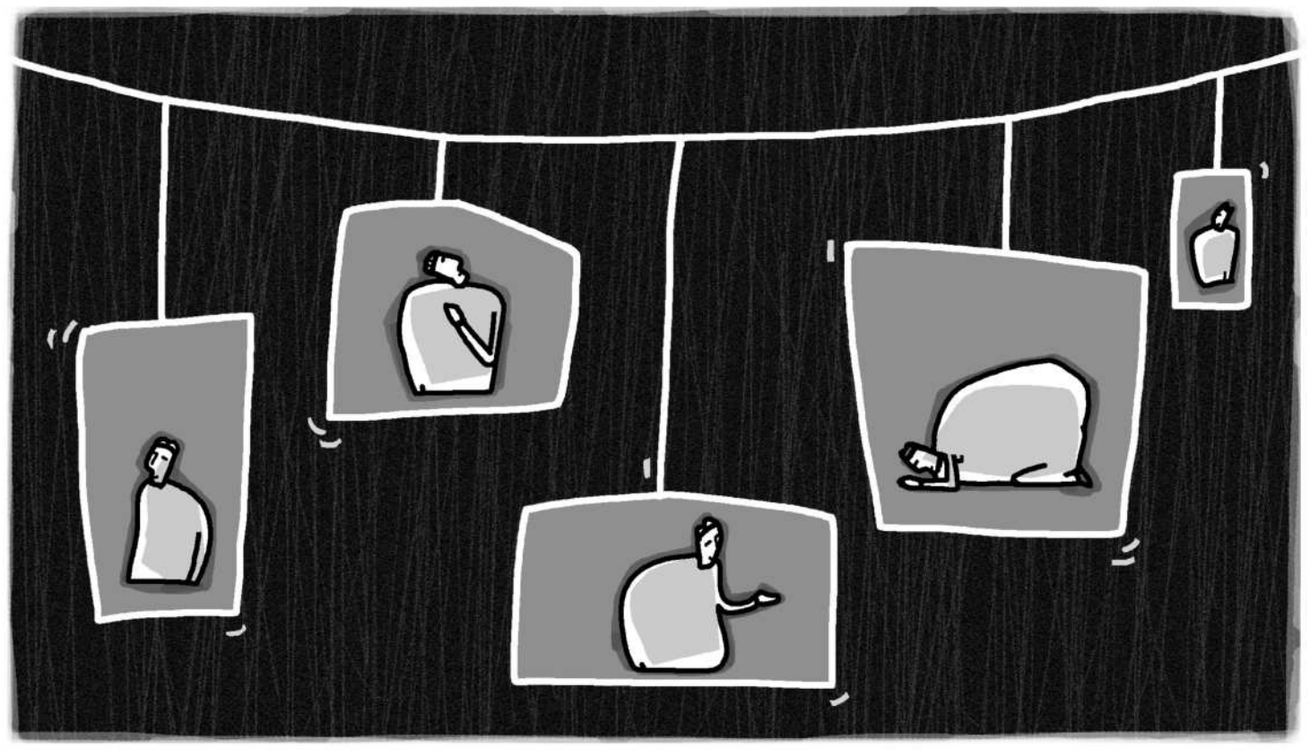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질문자1(남) 큰스님, 감사합니다. 저는 청주지원 신행회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이 자리에 있게 이끌어 주시고 선원 개원을 위해서 이곳 청주까지 왕림하시어 감로법을 베풀어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한 가지 질문 올리겠습니다. 저는 스님의 법문 중에 함이 없이 하는 것과 여여하다는 말씀을 누누이 강조하시는 것을 들었으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여여하다는 것을 화두로 삼고 공부를 시작하던 중에 온 세상이 물보라 속에 물레방아가 돌고 있는데 큰 완력기 하나가 있어 그것을 힘껏 해 보려고 해도 안 되고, 힘을 안 들이고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생각만 해도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함이 없이 해 보니 정말 너무나도 잘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여여하다는 것을 이해했고 생활과 운동할 때 해 보니 배 이상의 효과가 났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제대로 공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너무 끄달리는 것인지 궁금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큰스님 아유, 아주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 잘하십니다. 정말 여여함을 아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함이 없이 하는 도리를 아셔야 할 겁니다. 여러분이 함이 없이 하신다면 원수질 일도 없고 또 애탄지탄하며 착을 둘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살이로 사랑을 하되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원력을 세워서 우리가 한 찰나의 사랑도 세세생생의 사랑이 되도록 할 수 있어야 진정한 정일 겁니다. 그러니 말로 그냥 아무리 열 마디 백 마디 해 봐도 아니 될 때 함이 없이 하는 도리를 아셔야 될 거니까, 여기 토요일 일요일마다 들르셔서 스님하고 토론도 하시고 비디오도 보시고 법회도 하시면서 자꾸 폭을 넓혀 가십시오. 그러면 가정에 너무도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질문자2(남) 저는 현재 법형제회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지원 불자들이 한마음 법을 공부하는 데에 이해가 안 가는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대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님께서 늘 수행 과정에서 방하착 하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곤 합니다. 어디에다 어떻게 놓고 생활해야 곧 참선이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방하착을 방하착이다 하면 방하착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데 모두가 참선 아닌 게 없죠. 그러니까 본래 진리라는 것이 고정된 게 없이 돌아가니까 그대로 거기다 놓고 가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딱 쥐고 있지 말고 하루살이로 그냥 찰나찰나…. 놓고 가란 말 안 해도 지금 놓고 가는 겁니다. 모두들 놓고 가면서도 그 마음으로 당겨서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스스로 자꾸 걸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래 놓고 가는 건데 마음으로 놓고 가질 않으니까 "그것 좀 놔라, 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또 이차적으로 "야! 네 뿌리에다 놔라. 네 뿌리만이 너를, 네 나무를 푸르르게 살게 할 수 있으니까 네 뿌리에 믿고 놔라, 놔라." 영 안 놓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아, 내 뿌리만이 나를 이끌어 줄 수 있고, 내 뿌리만이 나를 푸르르게 살게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믿고 무조건 '너만이 나를 이끌어 줄 수 있어!' 하고 놔라 이겁니다. 그것이 방편 중에 제일 첫 번 관문입니다. 제일 지금 필요로 하는 게 그 겁니다.

질문자2(남)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반야심경』에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나오는데 81년도 퇴옹 성철 큰스님께서 종정으로 추대되시면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법어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색즉시공 공즉시색"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의 뜻이 같은 점이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니라." 이랬기 때문에 "공도 색도 둘이 아닌 까닭에 공은 공대로 있고 색은 색대로 있느니라." 하는 걸로 비유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른 쉽게 말하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한다면 이치가 납득이 될 수가 없어요. "둘이 아닌 까닭에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해야 되겠죠? 모습은 다 다를지언정 뿌리는 한 뿌리이다. 뿌리는 한 뿌리고 생명은 한 생명이기 때문에 바로 모습은 다 다르다. 각계각층이 말

☞ 18면으로 계속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천체가 한군데서 나고 한군데로 드는것임을 진짜로 믿어야 합니다

☞ 17면에서 계속

입니다. 먹는 것도 각계각층이 천차만별로 다 자기 먹는 게 따로 있듯이, 곤충이 먹는 게 따로 있고 사람이 먹는 게 따로 있고 짐승이 먹는 게 따로 있듯이, 모두가 천차만별로 먹고 사는 그 도리를 전체 바다로 비유를 해서 부처님께서는 "바다를 삼키고 토해서 만 중생들한테 각계각층에 먹을 거를 알맞도록 이렇게 내려 자비를 베푸신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두가, 우주 전체 삼라만상 대천세계가 둘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대천세계를 아주 작게 정맥 동맥으로 비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정신세계 물질세계를 한데 합쳐서 정맥 동맥이라고 한다면, 정맥이 없어서도 안 되고 동맥이 없어서도 안 되죠. 정맥 동맥이 둘이 아닌 까닭에 정맥은 정맥대로 있고 동맥은 동맥대로 있다 이런 거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죠? 네. 고렇게 비유를 하면 여러분이 잘 납득이 되실 것 같아서 전 우주 삼라만상 대천세계를 정맥 동맥으로 하나로 묶어서 한번 얘기해 드린 것입니다. 정맥 동맥 양면이 돌아가지 않으면 몸 전체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맥과 동맥이 둘이 아닌 까닭에 이름해서 정맥이라는 이름이 있고 동맥이라는 이름이 있느니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인데" 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롭게 응용하고 살아라 이거지, 산이 어떻고 물이 어떻고 이것 따지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목마르면 그냥 먹고, 또 나무가 필요하면 나무를 가지고, 꽃이 필요하면 꽃을 보고 이렇게 자꾸 돌아가는 거지, 산이 고정되게 있는 것도 아니고 물도 고정되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몸체가 바로 물은 물이고 산은 산입니다. 우리도 지수화풍이니까요.

질문자2(남) 감사합니다. 큰스님께서 저희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신 그 한마음 자리에 같이 우리 불자들은 한마음으로 머리 숙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삼라만상의 모든 중생이 한마음이 되어 거룩한 자유인이 되도록 청주 불자들은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스님 예. 하여튼 청주에서도 일컬어지는 분들이 생겨서 모르는 사람들을 더욱더 앞으로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력과 통신처를 아주 영민하게 잘 이끌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요만한 어린애들한테도 관법을 집에서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거는 재산을 주는 것보다도 더 소중한 보배입니다. 어느 신도 집 아이인데 아버지는 이 공부를 하러 잘 안 오지만 그 학생은 정성이 아주 지극하게 다녔어요. 그런데 혈맥이 통하질 못해서 여기가 그냥 수북하게 혹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었죠. "너는 네 뿌리를 믿지?" 그러니까 믿는대요. "그걸 안 믿으면 안 되지. 저 나무들 봐라." 그래 일러 줬어요. "나무의 뿌리처럼 네 뿌리가 바로 과거에 살던 영원한 너의 친구니까 그것을 믿어라. 바로 과거의 네가 현실의 네 몸뚱이를 형성시켜서 지금 끌고 가는 거니까 진짜로 믿어 봐! 과거의 너는 경험자이기 때문에 아주 잘 이끌어 줄 거야. 그러니 네 주인공만이, 네 뿌리만이 너를 이끌어서 아주 병도 낫게 하고 피도 잘 돌게 할 수 있을 거야." 하고 얘기를 해 줬어요. 한마디 딱!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났는데 애가 펄펄 뛰면서 왔어요. 그래서 "너 웬일이냐?" 그러니까 "이게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이러고 호들갑을 떨더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늙었든 젊었든 남녀를 막론해 놓고, 재산이 있든 없든 가난하든 못났든 잘났든 그거를 떠나서 하는 공부입니다. 아시겠어요? 못났으면 못난 걸로다가 항상 못난 것이 아니고 잘났으면 잘난 걸로다 항상 잘난 것이 아닙니다. 항상 잘난 것도 아니고 항상 못난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 **지금 한 철 차원이 높아져서 이 한 발을 벗어 놨다면**
> **세세생생 끄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 **생사에도 끄달리지 않을 것이요,**
> **자유스럽게 껄껄 웃고 살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이죠.**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서 슬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난하다고 쥐어짜고 그러지 마시고 마음을 넓게 아주 크게 생각하시고 '너만이 네 심부름꾼을, 이렇게 못나게 태어나게 했어도 너만이 이끌어 줄 수 있어.' 하고는 그냥 진짜로 믿고 나가 보세요. 그럼 대성공을 하실 분들이 여기 여러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질문자3(여) 제가 공부하는 도중 의정이 있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한 철 나왔다가 육신의 옷을 벗었을 때 신령한 의식만 남는다고 했는데 그 의식은 한 점의 불씨로 분리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한마음 바다에 그냥 있는 것인지요?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큰스님 꽃씨가 떨어져서 또 꽃이 피고 그러듯이, 연어가 자기 몸뚱이를 형성시켜 놓고 죽듯이, 우리가 자기 껍데기 헌 옷을 벗으면 새 옷을 입고 다시 형성이 돼서 나옵니다. 그렇게 한 찰나에 돌아갑니다. 우리가 알고 보면 생사가 둘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그래서 차원이 높으면 높은 대로 끼리끼리 모이고, 차원이 낮으면 낮은 대로 끼리끼리 모입니다. 그래서 소천세계, 중천세계, 대천세계가 있다 합니다. 그것도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세계지 그 세계가 그대로 그렇게 생긴 게 아닙니다. 우리네 마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한 철에 차원이 높아져서 이 한 발을 벗어 놨다면 세세생생에 끄달리지 않을 겁니다. 생사에도 끄달리지 않을 것이요, 자유스럽게 껄껄 웃고 살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이죠. 부처님께서도 자유인이시죠. 부처님이라는 이름은 모두 둘이 아닌 까닭에 부처라고 했고, 둘이 아닌 까닭에 여여하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맥 동맥이 막 같이 돌아가니까 즉 여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어느 분 한 분을 가지고 부처라고 했던 게 아니고 여래라고 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로, 자기를 진짜로 부처로 만드실 수 있다면 됩니다. 지금 금방 말을 들으면서도 뭐라고 물었는지 잊어버리고 있어요. 하하하…. 아이구 참!

질문자4(남) 큰스님 뵈올 날을 몹시 기다렸었습니다. 저는 약 7, 8개월 전부터 『무』, 『한마음요전』 또 스님 설법지를 읽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공부가 잘되는 것 같고 마음이 시원했습니다. 스님 설법을 들으러 청주에서 금왕까지 밤새도록 걸어가 본 적도 있습니다. 주인공이 얼마나 내 몸의 중생들을 통솔할 수 있나 체험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조용한 게 좋아서 밤 11시가 넘으면 산책을 하면서 한마음 공부를 하는데 '내 몸이 나 혼자만의 몸이 아니다.' 라고 주인공에 관해 놓아서 그런지 육신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디를 가든 주인공이 보호신이 되어 저의 몸을 감싸고 있는 것 같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님의 설법 책을 읽다가도 내가 살고 죽는 것을 정말 다 놓았는지, 유생 무생(有生無生)이 한마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져서 한밤중에 산에도 가 보고 묘지에도 가 봅니다. 또 TV를 보면서 무심을 공부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이 잘못된 수행인지 아닌지 가르침을 주십시오.

큰스님 그것이 잘못되는 거는, 허약해서 둘로 보면 잘못되는 것이고 하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면 외려 잘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체험을 하시려고 그런다면, 모습으로 행을 해서 그런 것이나 다가오는 것이나 일체를 다 한군데에다가 놓으시고 한군데서 나오는 줄 아셔야 됩니다. 한 구멍으로 일체를 넣고 한 구멍에서 일체가 나고 그렇다는 거를 아시면 건건이 한군데서 나오고 한군데로 든다 이 소립니다. 결국은 체험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놈도 그놈이고 체험을 하게 하는 놈도 그놈입니다. 그게 아직 납득이 안 가십니까?

그러니까 우선 한군데로, 한군데로만 하세요. '너만이 이렇게 체험을 하게 할 수 있어. 너만이 물리가 터지게 할 수 있어. 너만이 너가 있다는 것을 깨치게 할 수 있어.' 하는 거요. 모든 거를요. 일체 작은 거든 큰 거든지 다요. 그래야 옛날의 선지식들이 말씀하셨듯이 "바다를 삼키고 바다를 토했노라. 토해서만 중생들에게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귀를 띄어 주고 또는 눈을 띄어 주고 모든 자비를 베풀어 줬느니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천체가 한군데로 나고 한군데로 드는 것이라는 걸 진짜로 믿고 하세요.

질문자4(남)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은 오래 전부터 가톨릭을 믿어 왔습니다. 저는 마음에 닿지 않아서 잘 가지 않았지만 어머님은 굉장히 열성적이십니다. 지난 늦가을부터 몸이 편찮으신데 다른 신앙인들이 편견을 갖고 있듯이 저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천주님이 이름만 다를 뿐 한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 이해를 못 하시고 완고하셔서 마음의 문을 닫으시고 기복으로 기도만 하시는데, 제가 한마음 주인공에 관해도 공부가 짧아서 그런지 어머니 병환에 차도가 없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큰스님 한생각으로 아량을 베풀면 나으실 수 있고요, 또 어머니가 생각으로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렇게 둘로 보시니까 그릇이 없어서 담기지 않는 격이죠. 그러니까 병이 낫지를 않죠. 아드님이 아무리 줘도 받질 않으니까요.

내가 전에 외국이나 어디로 나가서 가만히 종교 믿는 거를 봐도요, 모두가 상대를 믿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독교든 가톨릭교든 모두가요. 근데 불교라는 것은 단어 그대로가 진리거든요. 일체 생명을 불(佛)이라고 하고, 일체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돌아가고 말과 말이 통해서 돌아가고 뜻과 뜻이 통해서 돌아가고 이럭하는 게 교(敎)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개별적인 종교를 불교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 안에 천체가, 불교가 진리니까 불교 안에 천체의 종교가 있는 거지 불교가 따로, 머리 깎은 사람만 불교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어머니더러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머니 몸뚱이가 나무라면 그 주처의 뿌리는 어머니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머니 마음속의 그 주님을 진짜로 믿으세요. 바깥으로 찾지 마세요. 안으로 찾으세요. 주님은 나한테 있습니다. 내 주님만이 내 몸뚱이를 이끌어서 낫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안으로 찾으라는 그것만 일러 주세요. 그러면 대번 나아요.

질문자4(남)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님이 뭐라 하시냐 하면 어떻게 천주님이나 하느님을, 여직껏 높으신 데 있는 걸로다 믿고 있었는데 감히 나보고 내 속에 있다고 믿으라고 할 수가 있느냐, 너무 황송한 얘기가 아니냐, 이런 높으신 분하고….

큰스님 아이고, 참 내! 그렇게 황송하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났지 않았느냐고 그러세요. 당신이 없다면 천주가 어딨고 부처가 어딨느냐고요. 당신이 없다면 무효라구요. 당신이 있기 때문에 상대가 생긴 거고, 상대가 생겼기 때문에 부처고 예수고 천주님이고 뭐, 만주님이고 다 있는 것이지, 내가 없는데 뭐가 있어요? 난 그래요. 애당초부터, 어려서부터요, '못났든 잘났든 내가 없는데 뭐가 있어?' 이렇게 나간 사람이거든요. 하하하….

질문자4(남) 감사합니다. 이 한마음 주인공 공부를 하면서 제 마음대로 큰스님을 스승님으로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가까이서 이렇게 뵈었으니 정식으로 스님께 통신망을 연결하겠습니다. 열심히 정진할 수 있도록 한마음 내 주십시오.

큰스님 예.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다 항상, 내 모습을 믿지 마시고 내 모습을 찾지 마시고, 때에 따라서는 보고 싶을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걸 떠나서 우리가 마음으로써 항상 둘 아니게, 그저 '일체제불' 한다면 스님까지도 첨보됩니다. 여기에 끌어다가 모두 마음으로 둥글려서, 아, 돈 안 드는 마음도 마음대로 못 해요? 둥글려서 하나로 자기 뿌리에다가 그냥 첨보해 놓고선 다 거기다 맡기세요. 아니, 마음을 그렇게 쓰는 데도 돈이 든다면 가난해서 못 한다고 하겠지만 마음 씀씀이를 그렇게 쓰는 데에 무슨 돈이 듭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마음대로 못 해요?

※위 법문은 1993년 12월 12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불기 2565년(2021) 신축년
신년 축하광고 접수안내

귀의삼보 하옵니다.

현대불교신문에 깊은 애정과 물심양면 도움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지면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불기 2565년(2021) 신축년 새해를 맞아 온 누리에 부처님의 법 향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신년 특집 신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루 동참해 주시어 부처님의 법음이 더욱 밝아지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불법을 수호하고, 진리의 길로 대중을 이끄는 신문으로 거듭 발전하도록 정진하겠습니다.
기쁘고 행복한 연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본 사	T. 02)2004-8216	F. 02)737-0696
부산지사	010-5640-8883	이도경
대구지사	010-2813-8008	손문철
경남지사	010-3860-7008	성낙두
전남지사	010-2629-1508	양행선
전북지사	010-8642-7733	조동제
영주지국	010-9373-3778	박영애

제 목
불기2565년(2021년) 신축년 신년 축하광고

광고내용
임원명단, 축하문구, 이미지

접수마감
2020년 12월 23일 수요일
jabi2018@naver.com

현대불교신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페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용수 스님의 아침편지

스스로 만든 외로움

우리 모두는 외로워요. 왜 외로울까요? 그리고 그 외로움은 뭘까요?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혼자 있다고 생각해서 외로운 거예요.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자신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오래된 마음의 습관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으면서 자신에 대한 관심은 지나치게 많아요. 그렇게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스스로 고립되게 만들어요.

우리는 이미 타인과 깊은 인연이 있어요.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인연을 느끼지 못해요. 타인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게 외로움이에요.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이기적인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좋고 나쁘다는 분별심을 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면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어요. 마음을 열면 그 누구하고도 바로 친하고 깊은 인연을 만들 수 있어요. 타인과의 연결성을 느끼면 치유할 수 있어요. 〈입보살행론〉에 "세상에 모든 행복은 타인을 생각해서 있는 것이고, 세상에 모든 고통은 자신만 생각해서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진광 스님의 길 위의 풍경들

㉔ 이스라엘 입성기

종교는 무엇 위해 존재하는가

드디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문명기행을 시작한다. 혹자는 "왜 하필이면 기독교 성지인 이스라엘로 순례를 가느냐"고 하지만, 필자는 도리어 "왜 그곳에 가면 안되느냐"고 되묻는다. 이웃종교를 이해하고 포용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가야할 길과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번 기행을 위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비롯한 몇 편의 종교영화와 '인디애나 존스', '아라비아의 로맨스' 등의 상업영화와 심지어 드라마 '미생'까지 섭렵했다. 또한 구약과 신약성경을 비롯한 사막교부의 저작들과 이슬람 관련 서적 들을 탐독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다.

어젯밤에 대중 스님들께 무사히 입국할 수 있게 열심히 기도해 달라고 부탁드렸다. 무언가 난관에 처했을 적에는 지도법사 혜국 스님의 법력, 혹은 대중의 간절한 신심과 원력의 기도정진과 자비덕화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렇듯 지난한 밤을 이겨낸 자만이 신 새벽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다.

무려 3시간 넘게 걸려서 간신이 요르단과 이스라엘 국경을 통과했다. 마치 국경 근처의 다리 아래 풀숲 사이로 실개천처럼 흐르는 요단강을 건넌 느낌이다. 생과 사의 갈림길인 요단강을 건너서 젓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으로 향한다. 말이 그렇지 이곳은 황량한 사막이나 진배없다. 청년예수가 광야로 들어가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는 곳도 이곳이다.

양쪽의 고원지대가 지각변동으로 갈라져 분지를 이룬 곳에 해발 마이너스 430m의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인 사해(死海)가 자리한다. 염도가 33%이고 다량의 미네랄이 함유되어 진흙팩을 하면 관절염에 좋다기에 일행도 사해체험에 나섰다. 바다에 들어가 하늘을 보고 누우면 몸이 둥둥 떠오른다. 혜국 스님도 "내가 언제 다시 와 보겠느냐"며 들어갔고, 비구니 스님들도 들어가 체험이 한창이다.

사해에서 한식 도시락으로 마음에 점을 찍고는(點心) 나사렛의 수태고지교회와 성 요셉교회, 그리고 가나라는 곳의 혼인잔치교회로 향했다. 예수가 어린 시절을 보낸 나사렛의 수태고지 교회 주랑 내벽에는 한국 카톨릭에서 만들어 기증한 한복 차림의 성모 마리아와 예수그림이 타일로 장식되어 있다. 무궁화 꽃 아래 '평화의 모후여, 하례하나이다"라고 적혀있어 자못 감동적이다.

재미있는 것은 예수의 아버지를 기념하는 성 요셉교회 마당에 요셉의 청동상이 있다. 그런데 유독 무릎이 닳아 반짝



진광 스님이 스케치한 예루살렘 전경.

세계서 해발 가장낮은 사해 '신기'
이스라엘 곳곳서 예수 생애 확인
사막서 영원의 십자가를 세우다

이기에 물어보니 그곳을 만지면 관절염이 낫는다는 속설이 있어서 하도 매만져서 그렇다고 한다.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기복적인 면은 동서양의 종교가 별반 다르지 않는가보다.

'가나'라는 마을에서 예수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첫 번째 기적을 보인 혼인잔치교회를 순례했다. 그리고 여리고 마을에서 대추야자 열매를 맛보고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입성(入城)하였다. 해질녘 붉게 물든 황금돔 사원을 비롯한 예루살렘 성은 그날도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다.

지난밤 꿈에 구약과 신약의 역사와 기나 긴 디아스포라(유형), 그리고 홀로코스트와 이스라엘 건국에 이르기까지의 유대민족의 온갖 고난과 수난의 역사를 떠올려 보았다. 그리고 현대의 석학인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비롯한 저작들을 되새겨 보았다. 이스라엘과 유대인들, 그리고 기독교까지 모두가 우리에겐 불가해(不可解)의 화두(話頭)와 같다. 불교가 진흙탕에서 연꽃을 피우듯이, 저들은 불모의 사막 한가운데서 영광과 불멸의 십자가를 세웠던 것이다.

예루살렘의 첫 일정은 나치 독일에 의해 600만 명이 대학살을 당한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찾았다. 차마 눈을 뜨고 보지 못할 참혹한 진실 앞에 충격과 분노, 그리고 눈물과 한숨만 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실감나는 순간이다. 죄를 용서할 수는 있지만 결단코 잊지는 말아야 한다. 이 모든 슬픈 역사를 기억하고 기록하며 기려야만 하는 이유이다.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안으로 들어가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에 못박힌 곳까지의 12군데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본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 보았던 바로 그 길이다. 그 끝에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박힌 채 죽음을 맞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예수승천교회가 자리한다. 가톨릭과 탁발수도회 등의 8개 단체가 공동 관리하고 있는데 정작 기독교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성인의 고난과 순교를 떠올리며 추모의 마음을 함께했다.

그리고 황금돔 사원과 통곡의 벽이 있는 광장을 돌아보았다. 예루살렘은 다윗과 솔로몬의 유대성전이 있었고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함마드가 승천했다는 바위 위에 지금의 황금돔 사원이 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서 순교한 까닭에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의 성지이다. 지구상 3개의 거대종교가 그야말로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성벽에 모여 저리 슬프게 울부짖으며 통곡을 하고 있어 '통곡의 벽'이라 이름하는 것이리라. 이곳 통곡의 벽에서 종교가 과연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을 위한 자비와 사랑, 그리고 친절과 용서의 종교가 필요한 때이다.

오후에는 예수가 태어난 베들레헴의 예수탄생교회를 돌아보았다. 허름한 시골의 마굿간에서 태어난 예수의 탄생을 축복하며 그의 삶과 죽음에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한다.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 성벽과 황금돔 사원이 보이는 맞은편 언덕에서 회향식을 가졌다. 알 수 없는 눈물과 환희가 가득한 의미있는 법석이었다. 정운 스님의 발원문을 가슴에 새기며 어제와는 다른 내일의 길과 희망을 노래한다.

마침 크리스마스가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과 '여기'에서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성탄이기를 빌어본다. 〈끝〉 〈조계종 前 교육부장〉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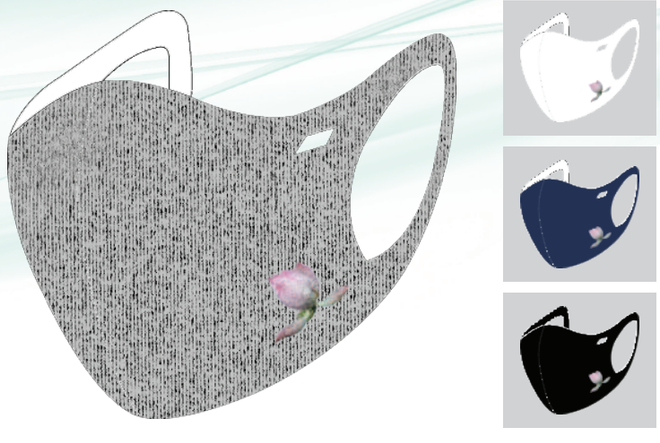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20회 세탁 후에도 90% 기능유지!

KOVI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구리마스크

FDA 등록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마스크
(연꽃문양/4색)

- **재 질** : 폴리에스테르 92%, 스판 8%
- **색 상** : 연회색, 백색, 청색, 검정색
- **판매가** : 4개 1셋트 15,000원 (개당 3,75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2,500원	(개당) 2,400원	(개당) 2,300원	(개당) 2,200원	(개당) 2,000원



기능성 비말차단 구리마스크
(연꽃문양/진회색)

- **재 질** : 폴리에스테르 81%, 구리 7%, 스판 12%
- **색 상** : 진회색 (그외 색상 주문 가능)
- **판매가** : 4개 1셋트 22,000원(개당 5,50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3,500원	(개당) 3,400원	(개당) 3,300원	(개당) 3,200원	(개당) 3,000원

Deodorization 소취 · Antibacterial 항균 · Anti-Splash 비말차단 · UV Protection UV차단 · Fast Drying 빠른건조 · Reusable 재사용가능



※ 색상 및 디자인 변경가능하오며, 로고 및 사찰명 인쇄시 장당 300원 별도 추가됩니다.
※ 대량주문 및 전체디자인 변경 등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문의 : 02)732-1520 www.mahamall.co.kr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BTN즉문즉설
당신을 응원합니다 by월도스님

우리들의 고구마 속을 시원하게 풀어줬던 월도스님이 비대면
사회 안성 맞춤 소통법으로 다시 돌아왔다! 삶의 고민거리들을 (화상)전화,
SNS으로 털어놓고 스님의 촌철살인 해법을 들어보는 쌍방향 소통프로그램

본 화 14:00 **재** 화 22:30 / 토 09:00

진행 : 월도스님(마산 삼학사 주지)



olleh 233번 · B tv 305번 · U+TV 275번 ·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